

통권 89호

# 독립정신

권두언\_ '건국절', 발상 자체가 문제다

제 12기 독립정신 답사단 후기

\_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 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수상작

\_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부른 아리랑의 노래

\_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_"광야에서 역사를 마주하다"

친일파와 그 후손들(11)\_한국 최초의 재벌이 된 친일인사  
기고\_ '노상예배'의 추억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을 언급한 시진핑 국가 주석

\_시진핑 주석, 韓中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2016년  
9, 10월



여운형(呂運亨, 1886. 5. 25 ~ 1947. 7. 19)

조선인 2천만 명을 다 죽일 수도 있고,  
나의 목을 벨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2천만 명의 혼까지 죽일 수는 없을 것이고,  
나의 마음까지 벨 수는 없을 것이다.  
하물며 내가 지닌 일편단심 조국애와 영원불변한 독립정신까지  
벨 수 있겠는가.

- 1919년 일본 다나카 육군상과의 단독 면담 중에서 -



여운형(呂運亨) :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조선건국동맹 위원장,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조선인민당 당수

(위치 : 몽양 여운형선생 기념관)

# 여운형(呂運亨)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본관은 함양(咸陽), 자는 회숙(會叔), 호는 몽양(夢陽)이다.

1945년 8월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을, 9월부터 1946년 2월 까지 조선인민공화국의 부주석을 지내기도 했다. 구한 말 기독교의 평등사상을 수용하여 노비들을 해방시키고, 교육·계몽 활동을 하다가 1907년 대한협회에서 주최하는 강연회에서 안창호(安昌浩) 연설에 감화되어 독립 운동에 투신했다.

외교관으로는 중국에 건너가 신한청년당 당수로 활동하여 1919년 3.1 만세 운동을 기획하는 일을 주도하였고, 김구식 등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했으며, 상하이 임시정부의 수립에도 힘썼다. 임시 의정원 의원과 외무부 차장으로 활동하였으며, 한국노병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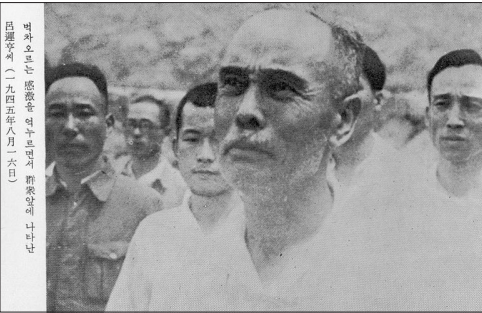
사책진회, 중한호조사 결성에도 참여했다. 또한, 상하이에서 아동들에게 독립사상과 애국정신을 교육시키기 위해 인성학교(仁成學校)를 설립하였다. 같은 해 일본을 방문하여 일제 고위관리들과 여러 차례 회담하면서 일제의 자치제 제안을 반박하고,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

1923년 국민대표회의 때 안창호, 김동삼과 함께 개조파로 활동했으나 임정을 떠났다.

이후 중화민국과 러시아를 오가면서 쑨원의 권유로 중국 국민당에 가담해 국공합작을 통한 중국 혁명 운동과 반제국주의 운동에 활동하였다. 1929년 7월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국내로 송환된 이후에는 언론인으로 활동했다. 1920년대 초중반 중국 상하이에서 동아일보의 상해 주재 촉탁 통신원과 타스 통신사 직원으로 지냈으며, 국내에서는 1933년~1936년까지 조선중앙일보사의 사장을 지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일장기 말소사건으로 신문이 폐간되어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4년부터는 비밀 지하 독립 운동 단체인 건국동맹과 농민동맹을 결성, 해방 뒤 1945년 8월 안재홍, 박헌영 등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 9월 조선인민공화국을 결성하여 혼란 수습과 치안 유지 등의 활동을 했다. 1946년부터는 김구식, 안재홍과 함께 통일 임시 정부 수립을 위해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이를 반대하는 좌·우익 양측으로부터 테러를 십여 차례 당했다. 1947년 7월 19일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차량으로 이동 도중, 백의사의 집행부장 김영철이 선정한 한지근(본명 이필형)의 다섯 명의 저격을 받고 암살되었다.

2005년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훈장 대통령장, 2008년 다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훈 1등)을 추서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여운형, 안창호, 조만식



# 독립정신

2016 9\*10

통권 89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의 회보 「독립정신」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첫 기관지인 「독립」의 자주 독립정신과 민족적 정통성을 이어받으려 합니다.



발행인 | 김자동  
편집인 | 임재경  
편집위원 | 이두엽, 이학노, 김지웅, 곽태원, 이일선, 안효진  
편집 · 디자인 | 대관인쇄

우 100-101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49 (태평로1가) 사조빌딩 305호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TEL : (02)3210-0411 | FAX : (02)732-2870 | E-mail : kpg1919@korea.com  
홈페이지 : www.kopogo.com  
가격 : 5,000원



04 권두언  
‘건국절’, 발상 자체가 문제다  
| 김자동

06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후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 한시준

09 사진으로 보는 독립정신 답사단  
| 편집부

17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수상작 - 최우수작 ①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부른 아리랑의 노래  
| 손하늘

58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수상작 - 최우수작 ②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 배상윤

76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수상작 - 우수작  
“광야에서 역사를 마주하다”  
| 홍석천

83 친일파와 그 후손들(11)  
한국 최초의 재벌이 된 친일인사  
| 최광웅

87 기고  
‘노상예배’의 추억  
| 정운현

90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열전  
조선여공의 횃불 ‘박재복’  
| 이윤옥

92 영화읽기  
영화 <아가씨>, 일제 강점기와 영화적 채색의 범위  
| 이두희

96 임정서가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헐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서간도에 들꽃 피다. 6  
| 편집부

104 임시정부의 중국 내 활동을 언급한 시진핑 국가 주석  
시진핑 주석, 韓中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106 정부포상자 명단

109 독립정신 이모저모





## ‘건국절’, 발상 자체가 문제다



김 자 동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회장

1945년 8월15일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우리민족이 강압으로부터 해방된 날이다. 우리는 이날을 처음에는 ‘해방기념일’로 불렀지만, 그 후 정부에서 이를 ‘광복절’로 고쳐 불렀다. 비교적 적절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이날을 국경일로 정한 것도, 매우 뜻 깊은 일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날을 ‘건국절’로 만들자는 말이 나왔고, 이를 공식화하는 움직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건국절을 꼭 만들어야 한다면 그 대안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중국 상하이에서 1919년 4월13일 수립되었으므로 이 날을 건국절로 하자는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이 있다.

우리 헌법은 그 전문(前文)에서 “....우리 대한 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 이념을 계승...”이라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도 건국절을 만들자는, 일면 가소로운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전제라서 비현실적이다. 문제의 본질은 과연 건국절이 필요한가에 있다.

미국은 ‘독립선언문’을 발표한 7월4일을 최대 국경일인 ‘독립기념일’로 삼고 있으며, 프랑스는 바스티유 감옥에서 폭군의 압제에 항거하여 혁명을 일으킨 7월14일을 ‘바스티유의 날’이라 하여 가장 중요한 국경일로 정했다. 전 세계에 건국절이라는 이름의 국경일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다. 1949년 10월1일 천안문에 오른 마오쩌둥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한 중국이 이날을 ‘건국절’로 기념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8월15일보다 10일 후에 이른바 총선거를 실시하고 9월9일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한 북한이 이 날을 9·9절이라고 부를 뿐이다. 그런데 왜 느닷없이 ‘건국절’을 말하는가?

한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개천절’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독립자존과 주권재민을 핵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근대적 기초를 강조하려면, 제헌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있다. 절대군주제에서 민주공화제로 넘어가는 정치체제의 전환을 기억하려면 3.1운동을 기리는 ‘삼일절’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일’을 보면 된다. 굳이 건국절을 새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다.

건국절 주장의 속내에는 국가주의라는 극우이념이 도사리고 있다. 단 하나의 사관만을 제시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맥을 같이 한다. 주지하듯이, 국가의 최고성과 무오류성을 지표로 하는 국가주의는 2차대전시기 일본 천황제 군국주의로 나타났었다. 일제의 잔재인 국가주의는 보편적 인권을 국가의 종속개념으로 간주한다. 일부 극우성향 인사들의 건국절 주장이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점에 있다. 또한 건국절은 분단체제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현재의 국제 정세와 최악으로 치닫는 남북관계로 보아 우리 조국이 하나로 통일되는 것은 보다 멀어지고 있는 듯하다. 남북을 갈라놓은 휴전선은 어느 국경보다도 더 심하게 이 나라를 갈라놓고 있다. 그러나 통일 조국 실현의 꿈을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언젠가 통일이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이 나라에 두 개의 체제가 서로 다른 국가와 정부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형식적으로라도 분단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마음속의 조국은 통일된 나라이다.

그때야말로 우리 국가는 ‘재건’ 되는 것이다. 그것도 건국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우리사회 일각 극우인사들의 ‘건국절’ 법제화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확신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서



한 시 준  
단국대 사학과 교수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장

기자에게 세 유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남대문에 불이 났다는 제보자의 말만 듣고, 제보 내용 그대로 기사를 쓰는 경우이다. 둘째는 제보를 받은 후 직접 남대문에 가서 화재가 났던 현장을 조사하고 기사를 쓰는 경우이다. 셋째는 현장을 확인함과 더불어 목격자를 찾아 증언을 듣고, 화재를 진압한 소방서를 찾아가 관련기록을 조사하여 기사를 쓰는 경우이다.

‘제12기 독립정신답사단’과 일정을 함께 하는 동안 내내 이러한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이러한 생각을 떠올리게 된 것은 답사에 임하는 학생들의 태도 때문이었다. 그동안 많은 답사단을 인솔하였지만, 이번 답사단은 특별했다. 우선 답사에 임하는 자세가 남달라 보였다. 사전에 상당한 준비와 조사를 하고, 답사를 통해 스스로 얻고자 하는 의지가 강렬하게 느껴졌다. 스스로 조사한 역사적 사실과 설명하는 내용을 듣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는 모습을 보며, 대단한 의미와 성과를 거둔 답사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이번 답사에 참여한 학생들을 보면서, 큰 희망을 갖게 되었다. 학생들은 제보자의 말만 믿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 그리고 일부 지식인과 언론들

이 독립운동의 역사를 왜곡하고 폄하하는 주장과 논리들을 펴고 있다.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생들은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거나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어야 한다는 제보자들의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자신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또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의 논리를 정립하고, 제보자의 제보가 옳은 것인지 그릇된 것인지를 판단하고 있었다. 이것이 이번 답사를 함께 한 학생들을 통해 발견한 성과의 하나다. 지도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은 학생들을 3류 기자정도로 보는 것 같지만,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지난 해 제11기에 이어 제12기 독립정신답사단은 중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상해, 가흥, 해염, 항주, 진강, 남경, 장사, 광주, 유주, 기강, 중경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였던 곳을 직접 찾아가 보았다. 일주일 정도밖에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은 많은 것을 확인하고 깨닫는 소중한 계기이자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

학생들이 확인한 것 중 하나는 대한민국은 1948년에 건국된 것이 아니라,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1919년 3월 1일 ‘독립국’임을 선언한 독립선언이 발표된 후, 국내외 인사들은 ‘독립국’을 세우기 위해 중국 상해에 모였고, 이들이 ‘독립국’으로 세운 것이 ‘대한민국’이었다. 1919년 4월 11일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대한민국’이란 국가를 유지 운영하기 위해 임시정부를 수립한 것이다. 상해에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결정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은 당시의 속기록인 <대한민국임시의정원기사록>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

학생들은 1948년 제헌국회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할 때, 대한민국 임시정부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였는지에 대한 자료들도 조사하였다. 당시 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가 제헌국회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 재건하는 방법으로 정부를 수립하자고 제안한 사실, 제헌헌법 전문에 “기미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였다고 해 놓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제헌헌법 전문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근거를 밝힌 것이라는 의미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사용한 ‘대한민국’이란 연호를 그대로 사용하였다는 것, 1948년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표기하였다는 자료들도 가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1919년의 대한민국과 1948년의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란 똑같은 연호를 사용하였다는 점, 같은 연호를 사용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해



하고 있었다. 1919년에 세워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1948년에 세운 대한민국 정부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학생들이 답사를 하며 깨달은 것도 적지 않았다. 중국에서는 남의 나라 역사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소중하게 여기지만, 정작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홀대한다는 점을 깨달은 것이다. 중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였던 곳에 모두 '진열관'이란 이름의 기념관을 만들어 놓았다. 상해·항주·장사·유주·중경 등에 모두 대한민국임시정부를 기념하는 진열관이 세워져 있고, 이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그렇지만 정작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기념하는 기념관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요즘 대한민국의 '건국'과 '건국절' 문제로 온 나라에 소란이 일어나고 있다. 광복절 기념식에서 대통령이 '건국68주년'이라 언급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1948년에 건국되었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여당인 새누리당과 일부 지식인들이 '건국절' 제정문제를 거론하고 나서면서 소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과 일부 지식인들이 알아야 할 것이 하나있다. 학생들도 그렇고 국민들을 3류 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제보자의 말만 듣고 기사를 쓰는 그런 수준의 학생과 국민들이 아니다. 이번 제12기 독립정신답사단과 함께 하면서 알게 된 값진 성과다. 🌸



01. 대한민국임시정부 구지(장사)

02. 부산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03. 김구 선생님이 총상을 당했던 곳,  
장사 남목청 임시정부기념관



04



05



06



07



- 04. 독립군가 부르며 행진 2
- 05. 한시준 선생님과 함께 한 3조 (중산대학 안에서)
- 06. 유주임시정부기념관에서
- 07. 빼대조차 남지 않은 채 사라진 광복군 총사령부 터 앞에서

08



09



10



- 08. 독립의 기운을 받으며, 황포군관학교 앞에서
- 09. 중경 임시정부청사에서
- 10. 황포 군관학교에서 독립열사들의 기를 받으며!





- 11. 중산 대학에서 김치!!
- 12. 감동적인 임시정부 창사 활동구지에서!!
- 13. 독립운동가 유자명 동상 앞에서  
(흰 옷 입으신 분은 유자명 선생 아드님)
- 14. 유주에 있는 임시정부 항일 투쟁 활동 기념관!



- 15. 임시정부가 정착했던 충칭의 옛 거리 홍야동!
- 16. 천하제일의 계림 절경!!
- 17. 가짜 개신문이라도 좋아
- 18. 중경 삼협박물관 야경사진 앞에서 찰칵!
- 19. 임시정부 국무회의실에서 잠시나마 임시정부의 요인이 되었던 순간! 교수님 깨알 엄지 척!



20



21



22



23



- 20. 조선의용대가 투쟁 중에 머물렀던 동굴
- 21. 계림첩채산에 올라가
- 22. 유주 유후공원에서 사무처장님과 함께
- 23. 조원들과 함께 찍은 단체사진

24



25



26



- 24.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 25. 중경 변화가에서 함께
- 26. 중산대학, 쑨원 동상 앞에서



총 응모작 10편 중 최우수작 2편, 우수작 1편 선정

##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따라 부른 아리랑의 노래



손하늘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 1. 프롤로그 : ‘임시정부’를 기억한다는 것

독립정신 답사단의 일원으로 중국에 간 것은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게 물었다. 그렇게 계속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나는 역으로 묻는다. 계속 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흘려온 그 뜨거운 피를 느끼지 못하는가. 왜 임시정부에 담겨있는 그 뜨거운 역사를 보려하지 않는가. 임시정부를 기억한다는 것은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투쟁’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앞으로 더 희미해져 갈 과거의 기억 앞에서 내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을 뚜렷이 하는 것이다.<sup>1)</sup> 한편 이렇게 글을 쓰는 것

1) 관련하여 주간경향에 게재된 르포르타주(reportage)에 실린 필자의 인터뷰 참고: “그런 만큼 사라져가는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이번 답사는 망각에 저항하는 기억투쟁이기도 하다. 손하늘씨(23 · 서울대 정치외교



27. 부산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앞, 강의를 들으며

28. 중산대학 안에서 1조 단체 컷

29. 독립정신 답사단 해단식

30.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수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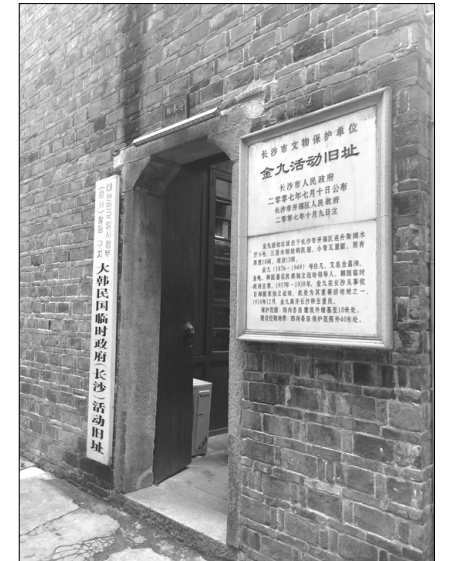
은 내 젊음을 반성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다른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 때문이다. 임시정부의 이동경로에 내재된 수많은 민족지사들을 기리면서 내 젊음도 정리하고 싶었다. 이 땅의 아픔을, 특히나 기억되지 못하는 임시정부의 현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온다. 이번 중국 답사를 마치는 내 심정이 그러했고, 답사 도중에 ‘김산(金山)<sup>2)</sup>의 삶을 다룬 님 웨일즈(Nym Wales)의 책(『아리랑』)과 동일한 제목의 노래를 부르던 당시의 내 심정이 그러했다.

## 2. 장사, 광주, 불산, 유주, 기강, 중경… 대한민국 임시정부 이주경로 개괄

1930년대 당시 일본군이 점점 다가오자 중국 정부는 충칭(重慶)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결정했고, 임시정부 역시 충칭으로의 먼 이삿길에 나섰다. 임정은 물가가 싼 창사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그해 12월 일본군은 난징을 점령해 시민 수십만 명을 살육했다. 중국 건국의 아버지 쑨원(孫文)의 묘가 있는 난징은 태평천국의 수도로 내부의 전화를 겪은 이후 최대의 비극을 맞은 것이다. 임시정부는 배편을 이용해 난징에서 후난성의 성도(省都) 창사(長沙)로 이동했다. 창사로 가는 배편은 난창(南昌)을 거쳐서 가는 길과 우한(武漢)을 거쳐서 가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도 기차로는 하루, 배로는 3일 정도 걸리는 길이다. 임시정부가 창사에 머문 시간은 1937년 12월부터 1938년 7월까지로 비교적 짧지만 김구 선생에게는 죽음의 직전에 다다른 피격사건이 있었다. 임시정부가 창사를 선택한 것은 홍콩 등

과 연락하기 쉽고, 곡창인지라 물가가 싼기 때문이다. 또 김구 선생과 친분이 있던 당시 장즈중(張治中)이 후난성의 주석으로 취임했다. 당시 선생이 머문 곳은 상(湘)강의 강가에 자리한 시위안베이(西園北)리다.

이곳에서 창사의 중심길인 우이(五一)로로 내려 오기 위해 작은 골목을 지나고, 제법 큰 길로 들어선 후 오른쪽 골목을 타고 들어가면 난무팅(南木廳)이라는 작은 건물이 있다. 김구 선생은 바로 이 건물에서 피격당했다. 1938년 5월6일 난무팅 9호에 있는 조선혁명당 당부에서 연회가 벌어져 김구 선생도 초청을 받는다. 연회 도중에 청년 활동가였던 이운환(李雲煥)이 권총을 난사해, 현익철이 죽고 김구와 유동열이 중상을 입었으며, 이 청천이 경상을 입었다. 김구 선생은 사건 직후 자동차에 실려 상아의원(湘雅醫院, 현 호남대학교의과대학 부속병원)에 도착했는데, 의사는 진단 후 가망이 없다며 진료를 포기했다가 세 시간이 지나도록 숨을 거두지 않아 치료를 시작했다. 진료를 포기했기 때문에 홍콩에 간 아들 인에게 전보를 쳤을 정도였다. 사건 후 김구 선생에게 어머니 곽락원(郭樂園) 여사는 “사악한 것이 옳은 것을 범하지 못하지. 하나 유감스러운 것은 이운환 정탐꾼도 한인인즉, 한인의 총에 맞고 산 것은 일인의 손에 죽은 것만 못하네”라는 말로 분열되는 민족정신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남목청 6호 장사 임시정부 활동구지

이내 창사에 대한 공습이 심해지자 임시정부는 장제스(蔣介石)에게 부탁해 광저우로 이사를 추진한다. 국공합작 이후에도 중국 내부에선 좌우 투쟁이 벌어졌고 중국 내 이권을 노리는 서구 제국주의 세력으로 인해 장제스의 중국 정부가 한국 임시정부를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의 의거가 발생했고, 이 사건 이후 장제스를 비롯한 중국인들은 4억의 중국인도 못해낸 일을 소수의 망명정부에서 해낸 것에 놀라 한국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1938년 7월 임정은 장주석이 기차 한 칸을 내주어 광저우로 이동, 동산바이위안(東山柏園)을 임시정부 청사로 하고, 아세아여관에 여장을 풀었다. 동산바이위안은 현재 동산구 건설국이 자리해 있고, 아시아여관이 있던 자리는 동산후(東山湖) 공원으로 바뀌었다. 광저우도 일본군이 빠르게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어 안전하지 못했다. 선

학부)는 ‘당시의 역사가 떠나가는 버스 같은 느낌이다. 그래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거에 대한 기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희미해져 가겠지만, 개인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을 뚜렷이 하는 것이다. 그들의 자취, 흔적을 따라가면서 되새기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현재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독립운동은 우리 자신을 여기 있게끔 해준 역사다. 신체기관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뿌리이자 우리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라고 생각한다. 우리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가 이를 자각하게 해야 한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원문보기 : <http://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id=201607261759251&pt>

=nv

2) 일제강점기 중국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혁명가, 아나키스트, 사상가. 그의 본명은 장지락(張志樂)으로, 1905년 3월 10일에 평안북도 용천에서 태어나 1938년 10월 19일에 강성(康生)의 지시로 일제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극비리에 처형되었다. 1983년 중국 공산당은 김산이 일본의 간첩임과 사상 변절자라는 근거가 없고 옳은 인물이었음을 인정받아 사후 45년 만에 공식적으로 명예가 회복되었다. 2005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건국훈장을 수여하였다.



생은 안중근 의사의 가족을 상하이에서 탈출시키기 위해 홍콩을 방문했지만 성사시키지는 못했다. 광저우 시내의 공습이 심해지자 광저우시 남쪽에 위치한 푸산(佛山: 불산)으로 잠시 옮긴 후 임시정부는 다시 최종 목적지 충칭으로 향했다.

임시정부 대가족은 류저우(柳州), 구이양(貴陽), 쑤이(遵義)를 거쳐, 1939년 3월 치장에 도착했다. 김구 선생은 광저우에서 다시 창사로 돌아온 후 후이화(懷化), 구이양을 거쳐 치장에 다다른다. 또 일부는 충칭이 창강의 상류라는 점을 알고, 우한에서 배를 타고 동팅후(洞庭湖), 이창(宜昌), 쑤샤(三峽), 완저우(萬州) 등을 경유해 충칭에 닿았다. 충칭 바로 아래에 위치한 치장에서 임시정부는 1940년 9월까지 1년 반 가량을 머문다. 치장 시절 좌익과 우익이 합작해 7당 통일회의를 여는 등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좌우가 합작한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 좌우 분열양상이 짙었던 독립운동 세력을 통합시키기 위해 김구 선생은 백방으로 노력했다. 이 결과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한국독립당 등 민주주의 세력인 광복진선(光復陣線)과 조선민족혁명당, 조선민족해방동맹, 조선민족전위동맹, 조선혁명자연맹 등 공산주의 세력인 민족전선연맹이 7당 통일회의를 개최했다. 비록 며칠 후에 민족혁명당 김약산 등이 찾아와 당 내부의 문제를 들어 협의안 변경을 요구해 통일회의는 파열되고 말지만, 임시정부 안에서 좌와 우의 결합 가능성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건이었다.

1940년 9월 임시정부는 치장에서 충칭으로 옮기는 한편 9월17일 자령빈관(嘉陵賓館)에서 광복군 성립식을 갖고, 시안(西安)에 총사령부를 뒀다. 광복군의 창설은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던 임시정부의 힘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백범일지’에 보면 충칭 시기 초반 임시정부의 지원에 냉담한 중국에 대해 임정은 “중국의 대일 항전이 이와 같이 곤란한 때 도리어 원조를 구함이 심히 미안하오.



불산역으로 변해버린 불산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유주대한민국임시정부항일투쟁활동진열관

미국에 만여 명의 동포들이 나를 오라 하고, 또한 미국은 부국이며 장차 미일 개전을 준비 중이니 대미 외교도 개시하고 싶소. 여비도 문제없으니 여행권 수속만 청구하오”라는 입장을 전했다. 중국이 우선 중국과 관계를 맺은 후 미국과 관계를 맺으라며 계획서를 부탁하자 “광복군 결성을 허락해주는 것이 3000만 한족(韓族)의 총 동원적 요소”라는 서신을 장제스에게 보낸다. 장제스도 임정의 이런 요구에 흔쾌히 응해 광복군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임시정부는 충칭시 양류(楊柳)가(街)에 자리를 잡았는데, 일본군의 폭격이 심해지자 상대적으로 안전할 것 같은 스반(石板)가로 다시 옮겼다. 그런데 이곳에 얼마 후 폭격으로 인해 큰 화재가 일어나자 우스예항(吳師爺巷)으로 옮겼으며, 다시 장제스의 도움으로 연화디(蓮花池) 38호로 이주했다. 이 시기엔 김구 선생의 주도하에 비교적 통일된 임시정부가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외의 재정지원금도 늘어 임정은 독립을 위한 갖가지 준비를 할 수 있었다. 양류 청사와 한국광복군 사령부 자리인 저우룽(鄒容)로 37호 건물은 이제 거의 형태를 알아 보기 어려울 정도로 변했다. 또 이 일대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만큼 보존이 쉽지 않은 상태다. 그런 점에서 충칭에 남아 있는 임시정부 유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곳은 연화디의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이다.

연화디 임시정부 청사는 2001년 2월 한국 기업의 후원 하에 새롭게 정비되어 찾는 이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연화디는 충칭의 중심지인 우중취의 중심가 제팡베이에서 10분쯤 걸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연화디 청사는 산비탈을 깎아 계단식으로 만든 건물로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있는 중심 건물에 김구 선생 흉상과 태극기가 모셔져 있다. 좌우 벽면에 임정 활동의 기본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고, 좌우로 통하는 각각의 방에는 외교활동과 군사활동에 관한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다. 건물에서 나와 제법 넓은 계단을 따라가면 내무부, 재무부, 주석실 등이 갖추어져 있어 당시 강화된 임시정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연화디 청사와 달리 저우룽로 광복군 사령부 자리는 도시개발계획으로 인해 흔적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다. 이곳 한국광복군 청사는 일본이 중국대륙 침략을 노골화한 1943년부터 일제 패망까지 2년여 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항일 군사 공격을 준비하던 총사령부 건물이었다. 태평양전쟁 발발 이후 징용됐던 우리 청년들이 소속 군대에서 탈출해 임시정부를 찾아들면서 광복군은 제법 큰 진용을 갖



기강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사진은 이동녕 선생 집)



추었다. 하지만 현재 광복군 건물은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이미 헐린 상태였다.

충청시대 임시정부는 제대로 된 구조를 갖추고, 광복군을 창설하는 한편 시안에 총사령부를 두는 등 활발한 군사활동도 전개했다. 1941년 12월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며 태평양전쟁을 개전하자, 임시정부는 곧바로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특히 1942년 조선의용대를 광복군에 편입시키고, 김원봉을 광복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등 좌우가 합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광복군에 있어 가장 가슴 벅찬 때는 1945년 1월31일, 일본군에 끌려갔다가 탈출해 찾아온 장준하, 김준업 등 학병 50명을 맞은 날이라고 김구 선생은 밝히고 있다. 이날 장준하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의 역사는 고사하고 우리 언어도 능숙치 못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유학중 징병으로 출전케 되어 가족과 이별차 귀가하였더니, 부모와 조부모들이 비밀히 교훈하기를 ‘우리의 독립정부가 중경(重慶, 충칭)에 있으니, 왜군 앞잡이로 끌려 다니다가 개죽음을 하지 말고 우리 정부를 찾아가서 독립전쟁을 하다가 영광스러운 죽음을 하라’는 말을 받았습니다. 이 말에 따라 일본 부대에서 탈주하다가 더러는 죽고 더러는 살아 우리 정부를 찾아온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1945년 7월 임정은 시안과 안후이(安徽)성 푸양(阜陽)에 광복군 특별훈련단을 설치해 미국과 연합작전을 준비했고 8월에는 시안에 가서 미군 다노베 장군을 만났다. 시안은 현재 산시(陝西)성의 성도로 당나라 수도였던 곳으로 비교적 척박한 느낌의 황토지역이다. 하지만 중국 현대사에서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바로 1936년 12월12일 이곳에서 공산당 토벌을 책임진 동북의 군벌 장쉐량(張學良)이 전쟁을 독려하려고 찾아온 장제스를 감금한 사건이 일어났다. 아버지 장쥔린(張作霖)이 일본에 의해 폭사한 것에 분을 품었던 그는 장제스가 항일전보다 공산당과의 내전에 힘을 집중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내전의 정지와 더불어 거국일치에 의한 항일전쟁을 주장하며 장제스를 억류했다. 이로써 대장정으로 인해 극도로 힘이 약화됐던 공산당은 재기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결과적으로 이 지역은 공산당 근거지인 옌안(延安)과 가깝고, 동북쪽을 향해 진격할 수 있는 근거지여서 중국과 미국 등이 전략적으로 군사력을 배양하던 곳인데, 우리 광복군도 자연스럽게 그 속에 끼이게 됐다.



중경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진열관

김구 선생은 광복군을 시찰하기 위해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만난 미국 교관이 “내가 앞서 중국 학생 400명을 모아서 시험하였을 때도 발견하지 못한 해답을 귀국 청년 7명에게서 찾아냈소. 참으로 앞날이 촉망되는 국민이요”라는 말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김구 선생은 시안에서 일본의 패망 소식을 들었다. 이때 임정은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시킨 군인들을 산둥반도에서 배를 통해 고국에 침투시키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운 상태였다. 해방 후 미군은 김구 선생에게 임시정부 자격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 갈등이 시작됐다. 한국에 들어온 후 미국과 소련 양국에 휘둘리는 복잡한 정세속에서 김구 선생은 조국이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1949년 6월26일 12시36분 경교장에서 안두희의 총에 맞아 운명했다.

상하이 청사 등 임시정부 유적지는 대부분 시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지금 중국 도시들은 도시화의 물결을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재개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정의 유적들 중 상하이와 충칭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보호받고 있는 지역이 거의 없다. 작년에 방문했던 자싱, 항저우 등의 유적지는 이미 재개발로 헐렸고 다른 지역도 도시의 확장과 더불어 빠르게 변모해가고 있다. 임시정부의 역사적 가치는 쉽게 가늠할 수 없다. 임시정부 연구에 몰두하다 정년퇴임한 성신여대 이현희 명예 교수는 “우리 정부가 임시정부를 계승한 것으로 헌법에 규정한 이상 임시정부의 가치를 더욱 소중히 해야 할 것이다. 임시정부는 3권 분립은 물론이고 공화정 형태를 갖춘 정부였다. 의정원 회의록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시 임정 활동의 발굴에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시정부의 고난에 찬 걸음들은 일제 강점기에도 민족 주권의 실체를 살려놓았다는 점



지금은 헐려버린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



중경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토교 한인촌구지(韓人村舊地))



에서 큰 업적이 아닐 수 없다. 임정 이주사는 해방 후 복잡한 정치상황 속에서 때로는 폄하되기도 했지만 우리 역사에 가치 있는 한 장면으로 기록될 부분이다. 임시정부의 활동 가운데 재평가되어야 할 것이 많다. 그 중 하나는 수없는 갈등 속에서 이루어낸 좌우 합작이다. 김구 선생은 ‘백범일지’에서 만주의 독립운동 단체인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등에 공산당이 침입한 후 각 기관을 파괴한 것에 대해 통탄했다. 그러나 끊임없는 통합작업을 통해 치장 시기에는 일시적이거나 사상적 통합을 이루어냈고, 충칭 시절 광복군을 만들 때는 김원봉 등 좌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사실상의 사상 통일도 이루어냈다.

중국이 시안사변 등 정치적 격변을 통해 사상통합을 이룬 반면에 광복군 창설은 임시정부가 수차례의 갈등과 마찰을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이룩한 역사였다. 임시정부는 광복을 한 해 앞두고는 군대 작전권까지 확보할 수 있었다.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기도 했다. 해방 이후 임시정부가 귀국할 때는 중국 공산당 대표인 저우언라이(周恩來)와 동비우(董必武)의 환송을 받았다. 임시정부는 중국 내 주요 정치 세력으로부터 존중받는 대한민국 정부였던 것이다. 임시정부의 자취를 답사하는 데는 교통이 발달한 지금도 열흘 정도가 걸린다. 임정의 이주로는 한민족의 역사가 끊어지는 것을 막아준 성공의 여로였다.



위에서부터 : 광복군 총사령부 성립 전례식, 광복군 제1·2·3지대 사진(유주 임시정부 청사에서 촬영)

### 3. 사회주의 무장투쟁, 그 파편화된 기억의 조각들을 모으며 : 광주, 계림, 중경을 중심으로

제도권 교육에서 우리가 배운 독립운동사는 안중근 의거나 3·1운동, 임시정부, 청산리·봉오동 전투 등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몇몇 무장독립운동 단체도 있었지만 그저 이름만 있을 뿐 그들이 주는 의미와 비중도 몰랐다. 그나마 많은 이들이 김일성과 관계가 있거나 공산주의자라는 이유로 우리 역사에서 잊혔지만 답사를 다니면서 나는 우리 선열들의 발자취를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답사 기간 동안 임시정부 계열의 인물들에 주목을 하면서도 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한 사회주의 계열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의 끈을 놓지 않았다. 안타깝게도 단장님의 설명과 단원들의 주제연구에 공통적으로 결여되어 그 중요성에 비해 충분히 조명을 받지 못한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족적과 그 시대적 맥락으로서 중국 공산혁명과의 관계에 대해 이번 기행문의 한 단원을 할애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

#### 3.1 광주: 광동혁명역사박물관과 광주기의열사능원/중조인민혈의정

광저우는 일찍부터 중국을 침략하던 서구 제국주의 열강들의 전진기지였고, 동아시아의 중화적 질서를 붕괴시키는 도화선이 된 아편전쟁의 시발점이었고, 쑨원(孫文)이 청 왕조를 무너뜨리고 근대적인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지지자를 규합하던 곳이었고, 장제스(蔣介石)가 황포군관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며 국민당 장악의 무력을 키우던 곳이었다. 김산이 자신이 꿈꾸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그리고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중국혁명의 대열에 자신의 몸을 던졌던 곳도 다름 아닌 광저우였다. 나에게 광저우는 그렇게 해서 뇌리에 각인되었다. 광저우가 지닌 거창하게 빛나는 혹은 치욕적인 면모 때문이 아니라 한 순수하고 열정적인 혁명가로 말미암아 깊이 각인되었다.

김산이 베이징에서 출발해 광저우에 도착한 것은 1925년 가을이었으며, 그때 그의 나이는 갓 스무 살이었다. 그는 1년 전인 1924년에 소련의 지원 하에 광저우에 황포군관학



광주기의부대철퇴노선도(광동혁명역사박물관에서 촬영)



교가 설립된 사실을 알았고, 1925년 3월에 베이징에서 쑨원이 죽었을 때 일어난 거국적인 추모열기를 목도했다. 또 직접적으로는 5·30 사건 이후 중국의 노동자, 지식인, 학생 사이에서 반제국주의 운동이 급격히 고조되는 현실이 그의 광저우행을 부추겼다. 그래서 그는 다소 들뜬 기분으로 미래를 낙관하며 중국혁명의 근거지였던 광저우로 향했다. 중국혁명의 성공이 곧 조선의 해방으로 이어지리라 확신하고 있었던 그는 조선청년들 사이에 광저우행의 열풍이 부는 속에 자신의 역할을 찾기 위해 광저우로 향했다. 이 사실을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1925년 가을 내가 광저우에 도착했을 때는 이른바 중국 대혁명에 뛰어들어 투쟁하기 위해 모인 조선인은 겨우 60명에 불과하였으며, 그 대부분은 의열단의 테러리스트였다. 그러나 1927년까지 800명 이상의 조선인들이 광둥으로 속속 몰려들었다. 우리 조선의 활동적 지도자 정예가 여기에 다 집결한 것이다. 모두가 혁명적 정치가였으며, 대개는 지식인이었다. (중략) 우리들의 평균 나이는 23살가량 되었다. 일부 중학생은 열너댓 살 밖에 안 되었고, 800명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도 40이 채 안 되었다.”

김산의 말처럼 당시 젊디젊은 조선의 젊은이들이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며 광저우에 집결했다. 그리고 그들은 열정적인 이상을 실천하다가 광저우 코뮌에서 2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어이없이 죽었다. 내가 광저우에 가고자 했던 것은 때 묻지 않은 이들의 행적을 냄새 맡고 싶어서였다. 김산으로 상징되는 이들 젊은이들의 낭만적 이상에 경의를 표하고 그 비극적 좌절을 반면교사로 삼고 싶어서였다. 아니 수많은 김산들이 품은 숭고한 정신으로부터 자꾸만 떨어지는 모습에서 생기는 도덕적 자괴감을 내밀하게 정리할 필요가 생긴 까닭이었다.

### 3.1.1. 광저우 코뮌과 조선 청년들

‘광주 기의’는 1927년 12월 11일 광저우에서 중국공산당이 봉기했을 때 장제스 국민당 군에 의해 노동자 및 공산당원 약 5천 명이 희생된 채 3일 천하로 끝난 사건을 말하는데 광주기의열사능원(廣州起義烈士陵園)은 그들을 기리기 위해 1954년에 만들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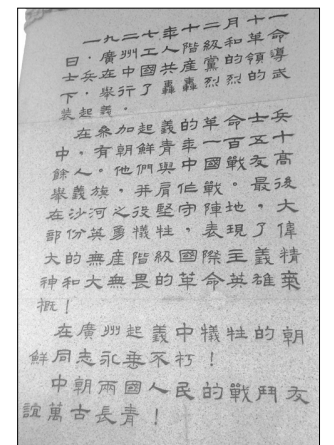


광주기의열사능원(廣州起義烈士陵園)

진 공원이다. 이 공원 안에는 광둥혁명역사박물관이 있고 중조인민혈의정(中朝人民血誼亭)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이 이름은 ‘중국과 조선 인민의 피로 맺어진 우의를 기리기 위해 세운 정자’라는 뜻이다. 정자 안에는 광주 봉기 때 부사령관이었던 예젠잉(葉劍英, 1897~1986)이 쓴 글씨를 새긴 돌비가 서있다. 돌비 앞쪽에는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이 싸움으로 맺은 우의는 만고에 길이 빛나리라!’(中朝兩國人民的戰鬥友誼萬古長青)라고 쓰여 있고 뒤쪽에는 광주기의에 대한 자세한 경위와 특히 조선의 청년 150여 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혈의정에는 3미터 높이의 석비가 있어, 엽검잉(葉劍英)의 글씨로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의 전투적 우의는 영원하리라!(中朝兩國人民的戰鬥友誼萬古長青)”라고 새겨져 있다. 이 비문은 1964년 10월 1일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비의 안쪽에는 다음과 같이 광주봉기에 참가한 조선인을 찬미하는 문장이 쓰여 있다. “1927년 12월 11일, 광주의 노동자 계급과 혁명 병사는 중국공산당의 지도아래 장렬한 무장봉기를 결행하였다. 봉기에 참가한 혁명 병사 가운데는 조선 청년 150여 명이 있었다. 그들은 중국의 전우와 함께 정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웠다. 마지막에는 사하의 전투에서 진지를 굳게 지키며 대부분이 영웅적으로 희생되어 무산 계급의 위대한 국제주의 정신과 두려움 없는 혁명 영웅의 기개를 보여 주었다. 광주봉기에서 희생된 조선 동지는 영원토록 불멸하리라! 중조 양국 인민의 전투적 우의는 영원하리라!”<sup>3)</sup>

그런데 왜 ‘조선’이 언급되어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두 사람의 한국인을 언급하기로 한다. 1927년 광주 봉기 무렵 중산대학(中山大學)과 황푸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에 다니던 조선 청년들이 800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 중 조선공산청년동맹 가입자 200명 정도가



3) 이회성, 『아리랑 그 후』, 동녘, 1993, p.102.



베트남 청년들과 함께 거사에 참여했는데 당시 황푸군관학교의 훈련 교관으로 있던 최용건(崔庸健, 1900~1976)<sup>4)</sup>이 지휘했다고 한다. 최용건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인천상륙작전에서 연합군에 패배한 장군이며 1958~197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2대 국가수반 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역임하고 그 후 죽을 때까지 제4대 국가 부주석에 올랐던 인물이다. 호가 석천(石泉)이어서 최석천으로 많이 알려진 최용건은 광주 봉기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생존자들과 함께 한 차례 합의를 거쳐 광저우의 그 진지에 봉기를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로 결정하고, 광저우기의열사능원에 기념관을 건립하게 되었던 것이다.

또 한 사람의 한국인은 1905년 3월 평북 용천 출신인 김산(金山)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명은 장지락(張志樂)이다. 그는 16세 때인 1921년 일본을 거쳐 중국으로 건너가 같은 해 쑨원



중산대학(中山大學)



광동혁명역사박물관



▲ 중국공산당의 후퇴를 위해 항일무장독립투사인 조선생도를 희생시킨 잘못 때문인지 최용건은 '윤남강무학당' 동문인 예젠잉과 함께 '중조 인민 혈의 정을 세웠다.

이 세운 황푸군관학교와 중산대학 경제학과에서 수학했다. 1922년 중국 공산당에 입당한 뒤, 이듬해 공산청년동맹에 가입해 1925년 혁명 전야인 광저우에 도착해 1927년 12월 광저우 봉기에 주역으로 참여

한다. 다행히 살아남은 김산 일행은 광둥성 북동쪽 하이핑(海豐)으로 피신했다가 1929년 베이징으로 올라온다. 이때 중국 여인 조아평(趙亞平)을 만나서 결혼한다. 그녀는 김산의 아들 고영광(조아평이 1945년 재혼하여 계부의 성을 갖게 됨)을 임신하는데, 김산은 아이의 존재도 모른 채 공산당의 정착지인 산시(陝西)성 옌안(延安)으로 향한다.

옌안에서 그는 홍군 전사를 기르던 군정대학에서 교수로 일하던 중 1937년 미국 저널리스트 님 웨일즈(Nym Wales, 1907~1997)를 만나게 된다. 님 웨일즈는 필명이고 본명은 헬렌 포스터 스노우로, 바로 산시성 바오안(保安)에서 마오쩌둥(毛澤東)을 인터뷰하여 펴낸 책 '중국의 붉은 별(Red Star Over China · 1937)'의 저자 에드거 스노우(Edgar Snow, 1905~1972)의 부인이다. 님 웨일즈는 남편과 함께 조선인 독립운동가 김산과 22차례의 인터뷰를 통해 그의 삶을 기록한 '아리랑의 노래(The Song of Arirang)'를 1941년 미국 뉴욕에서 출간했다. 이 기록은 나중에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국을 이해하는 자료로 사용되어 한민족의 독립의지를 이해하는 실마리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30년과 1933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김산은 '트로츠키주의자이자 일본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1938년, 상하이에서부터 인연이 있었던 Kangsheng(康生, 1899~1975)의 지시로 옌안에서 극비로 처형되었다. 그의 나이 불과 33세 때였다. 무엇보다 1927년 당시 반국민당 정부 무장봉기와 이를 배경으로 조선해방을 위해 중국공산혁명에 투신했던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전기 『아리랑』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혁명을 통해 조선의 독립과 혁명을 이룬다는 조직적 국제주의 노선을 따른 그가 주창한 노동계급 연대론도 함께 파악하기 위해서이다.



### 3.1.2. 김산(장지락)의 노동계급 연대론: 소수의 주체성과 독자성

일본의 탄압과 파괴로 조선 국내에서의 해방운동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국외로 망명하여 그곳에서의 조선 해방운동을 지향하고 모색했던 김산은 조선 해방의 한 방안으로 국제주의라는

4) 평북 출신으로 김일성(金日成), 김책(金策)과 함께 만주 항일무장투쟁의 핵심 트로이카로 김일성에게 반말을 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군인이자 정치가였던 최용건은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이는 얼굴과 외모였고, 만주 항일유격대 시절부터 헤어스타일과 바지가 항상 줄이 설 정도로 옷차림에 신경을 쓸 만큼 멋쟁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당시 광저우 봉기에 참여했던 김산(장지락)은 남 웨일즈의 소설 '아리랑의 노래'의 실제 인물이다.

이름하에 노동계급 연대론을 주장한다. 그가 내세운 노동계급 연대론은 동일한 일본제국주의의 억압대상으로서 식민지 조선과 반식민지 중국 두 나라, 두 민족의 연대를 포괄한다.

조선이 식민지가 되고 일본의 중국 침략을 위한 병참 기지가 되어 있는 한, 그들은 해외에서 조국 광복의 날을 꿈꾸며 당장은 중국 혁명을 위해 싸울 수밖에 없었는데,<sup>5)</sup> 그러므로 한중 두 나라 민족의 연대만이 현실적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코민테른의 민족통일전선정책에 따라 김산은 다른 조선인 혁명가들과 함께 광둥으로 달려가 중국 대혁명에 참가하게 된다. 그들은 이것이야말로 “조국해방의 첫걸음”<sup>6)</sup>이라고 생각했으며 “모든 경향의 조선

인 혁명가들이 혁명에 참가하기 위해 광주로 달려갔”(128쪽)던 것이다. 그가 얼마나 코민테른의 원칙에 잘 따랐고 국제주의적 연대에 순수하게 희망을 걸었는가는 아래의 인용문이 잘 보여준다.

젊은 패기와 정열에 넘치던 나는 딱치는 대로 손을 댔다. 나는 중국의 민족주의 정당인 국민당에 가입하였다. 국민당은 조선인의 입장을 허용하였지만 우리들 중에 정작 입당한 사람은 겨우 6명뿐이었다. 중국에 있는 조선공산당을 중국공산당의 지부로 두기로 결정되어, 나는 우리 당으로부터 중국 공산당 내의 조선인 세포에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고 5명으로 된 세포의 일원이 되었다(『아리랑』, 129쪽).

한 사람이 자기 계급과 민족과 나라를 초월하여 조선공산당일 수도 있고 심지어 앞의 두 정당과는 반대되는 계급의 이익과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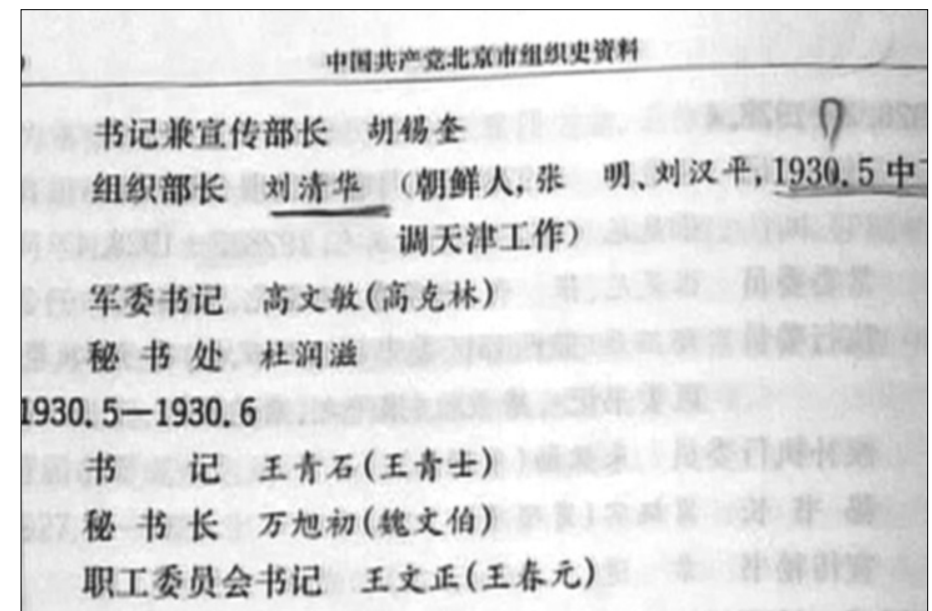
황무군관학교(黃浦軍官學校)

5) 이회성, 『아리랑 그 후』, 동녘, 1993, p.51.

6) 김산·남 웨일즈 지음,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1997, 128쪽.(이하 본문 내 인용 쪽수 표시)

칙, 이념을 추구하는 중국 국민당 당원일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은 혁명의 특수한 단계에 코민테른이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의 피압박 민족, 특히 중국 공산당에 제기한 민족통일전선 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때마저도 중국공산당 측에서는 조선혁명가들의 각개 집단에 대해 “자기들이 전체를 지도해야 할 입장에 있다”(129쪽)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장개석의 반동으로 이 기세 드높은 중국 대혁명이 실패하고 광둥코뮌도 실패했을 때, 김산은 어쩔 수 없이 “조선혁명운동 지도부의 정수가 그곳에서 전멸당하고 말았다”(42쪽)는데 커다란 충격과 비애를 느낀다.

중국 대혁명의 실패는 코민테른이 내건 ‘4계급 동맹론’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결정적인 잘못은 “공산당은 국민당과 동맹한 것이 아니라 국민당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았다”다는 것이다. 즉 공산당의 독립성이 전혀 주장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이는 실제로 중국 공산당이 “국민당에 복종하라, ‘반제’ 동맹을 분열시키지 말라”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너무 충실하게 따른 데 그 원인이 있었다.<sup>7)</sup>



중국공산당북경시조직사자료에 의하면 김산은 1930년대 북경시당위원회 조직부장으로 역임했다.

7) 물론 소련의 혁명가이며 정치·경제학자였던 니콜라이 이바노비치 부하린(Nikolai Ivanovich Bukharin)은 이 4계급 동맹론의 적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올바른 코민테른의 노선을 중국공산당이 잘못 적용해서 생긴 잘못”



1928년 코민테른 6차 대회에서는 초기 코민테른에서 제시한 민족통일전선전술의 두 가지 원칙, 즉 ‘공산당의 독립성’과 ‘다른 세력들과의 일시적 동맹’ 가운데 ‘독립성’을 특히 강조했다.<sup>8)</sup> 그럼에도 코민테른은 동시에 ‘일국일당’ 원칙을 제시하여 중국에 있는 조선공산당이 중국공산당에 개인적으로 가입할 것을 지시했다.

김산 역시 이 원칙을 충실히 따라 광둥코뮌 실패 후, 북경에서 북경 공산당 비서 및 화북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의 지하투쟁에 종사하는 외에, 그는 또 화북과 만주에 있는 조선인 및 중국인의 모든 혁명활동을 조정하는 특별한 임무도 맡았다. 그는 또 중국공산당과 조선공산당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중국 공산당에 의해 만주로 파견되었는데, 당시 양당은 아무런 관계도 가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산은 코민테른의 ‘일국일당’ 원칙에 이의가 없었으며 비록 광둥코뮌에서 조선 공산당의 정수가 파괴된 데 대해 애석함을 갖고는 있었지만 그 자신이 한 명의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조선공산당이 중국공산당과 분리되어야 하는거 아닌가”하는 주요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그는 “만주의 조선공산당이 그곳 중국공산당의 산하에 들어가서 가능한 한 밀접하게 함께 일하게 되기를 원했”(206쪽)다.

그러나 1935년 봄, 김산은 돌연히 상해로 가서 조선인 혁명가들과 새로운 접촉을 시도하려고 한다. “10년 동안이나 중국혁명에 종사해 왔으므로 이제는 조국을 위하여 좀 더 활동하고 싶었”(284쪽)던 것이다. 왜 김산은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실은 갑작스러운 결정은 결코 아니었다. 그 원인은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로 1934년경 김산은 국민당 통치구(백구)에서 일어나는 중국 공산당의 대규모 배반과 변절로 인해 중국 공산당에 회의와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그가 당 지도부에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냈다가 우파, 트로츠키분자라는 누명을 쓰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었다. 둘째로 1929년 말, 김산은 당의 파견을 받고 만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조선공산당에 의해 지도되는 대중운동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셋째로 1935년 8월 1일 중국공산당과 홍군과 소비에트 정부가 국민당과의 항일연합전선을 제창하는 선언을 발표했다. 즉 중국에서의 공산당과 국민당간의 좌우합작, 민족통일전선 형태의 출현에 고무되었던 것이다. 넷째로 중일전쟁의 대규모 발발을 앞두고 새로운 혁명정세가 도래했으며, 여기에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핵심은 “이런저런 내부투쟁에 우리의 정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이제는 일본제국

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는 명백히 코민테른 노선의 문제였다. - 崔圭鏞, 「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96, p.34 참조.  
8) 崔圭鏞, 「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 연구」, 성균관대박사논문, 1996, p.47.

주의와의 투쟁에서 우리가 지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291쪽)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조선인이 더는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절규한다.

조선사람이 중국 당 내에 여기 한 사람 저기 한사람씩 흩어져 있는 것은 별 소용이 없었다. 우리는 공동행동을 위하여 한데 모여야 하며 또한 중국만을 위하여 희생될 것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조선혁명을 보위(保衛)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결의하였다. 1932년 이래 조선공산당과 만주공산당은 독립해있었다. 이것은 중국인들이 조선문제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조선문제를 별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더 이상 물속에 녹아있는 소금처럼 우리 자신을 잃어버릴 처지가 못 된다. 우리는 쫓겨난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다른 세력에 가담하는 하나의 세력으로서 중국에 가세해야만 한다. 일본제국주의가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장래의 행동을 위하여 조선인의 운동을 건설하고 준비하는 방향으로 재빨리 우리의 정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데 우리는 동의하였다(『아리랑』, 292쪽).



1930년의 김산. 중국 공안국에 체포되어 일본 측에 넘겨진 뒤 천진 주재 일본 영사관에서 찍은 사진



『Song of Ariran』(남 웨일즈, 1941)

본명 장지락. 독립 운동가이자 사회주의 운동가였던 남 웨일즈가 그의 생애를 정리한 책으로 아리랑과 한민족에 대한 그의 생각과 격동기를 살았던 지식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



10년 동안이나 중국혁명에 투신해왔으며 조선공산당과 중국공산당의 관계조정에 주력해왔던 김산은 결국 “중국인들이 조선문제를 연구하지 않았으며 조선문제를 별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리하여 결국 조선혁명은 조선인 스스로가 직접 해야 함을 제기하는 것, 중국공산당 내에서 조선공산당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은 김산으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요구가 연안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예고된 결말이었다. 이에 앞서 이미 1932년 만주의 중국공산당 내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숙청사건인 ‘민생단(民生團) 사건’<sup>9)</sup>이 피의 교훈을 잘 보여주고 있었다.



왼쪽은 1937년 연안에서 님 웨일즈(스노우 헬렌)의 취재를 접수하고 남긴 사진



유주(柳州)의 유후공원(柳候公園)

9) 민생단 사건은 1930년대 초반 중국 간도 일대에서 중국 공산당이 민생단에 일본 스파이들이 침투해 있다고 날조해 500명의 조선인 항일혁명가를 학살한 사건을 일컫는다. 이 사건으로 간도 지역의 항일 운동 자체가 크게 위축되었는데, 1931년과 1934년 사이에 간도에서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한 인원이 80% 이상 줄었다. 뿐만 아니라, 만주 전역에서 조선인에 대한 경계와 배척이 확대되어 항일 연합전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만주사변 이후 만주 지역에서는 여러 민족과 계층이 힘을 합쳐 항일의용군, 국민구국군, 민중자위군, 항일연합군 등을 조직하여 대일 항전을 벌였다. 그러나 민생단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중국인 사회의 조선인에 대한 불신과 배척은 더욱 커졌고, 중국공산당 내부에서도 중국인 간부들이 조선인 항일운동가 대부분을 민생단으로 몰아 탄압하면서 민족 갈등이 확대되었다. 결국 1936년 초에는 만주 지역에서 가장 세력을 떨치던 간도의 항일유격구를 포기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1936년 2월 중국공산당이 반민생단 투쟁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고, 간부들을 신임하라는 지시를 전달하면서 반민생단 투쟁은 완전히 종료되었다.

### 3.2. 계림 : <조선의용대통신> 발행지(신지서점)와 조선의용대 본부터(칠성공원)

조선의용대의 두 번째 주둔지인 운두저촌(雲頭低村)이라고 하는 마을 입구에는 무궁화나무가 오롯이 피어있다. 실제로 이 무궁화나무는 조선의용대가 이곳에 주둔하던 당시 심은 것이라고 한다. 그들의 기상과 절개를 무궁화꽃이 그렇게 대변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만 광복을 맞이한 지 70년이 넘는 현재, 이들이 일본에 맞서 독립투쟁을 했던 일들은 세간에 잘 알려져 있지 않는 게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교과서에도 그들의 투쟁역사는 세밀하게 기록되지 못하고 있다. 공작대가 결성지이자 주요 활동지였던 유주(柳州)의 유후공원(柳候公園)에 이어 계림의 칠성공원(조선의용대 본부 터)과 신지서점(조선의용대통신 발행지)을 방문한 것은 한 송이 무궁화로 살다간 의용군들의 흔적이 아직까지도 남아있는지, 그들이 남기고 간 무궁화는 여전히 피고 있는지 눈으로, 마음으로 직접 들여다보기 위해서였다.

#### 3.2.1. 무궁화는 여전히 피고 있다: 조선의용대의 활동을 되짚어보며

조선의용대는 1938년 10월 10일 중국의 한구(漢口)에서 결성한 조선민족혁명당·조선민족해방동맹·조선혁명자연맹·조선혁명청년연맹 등 중국본토에서 활약하던 좌파 당의 연합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다. 당시 조선의용군의 병력은 모두 합쳐 약 500명으로 추정된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 병력 약 150명과 제 8로군에 종군한 10여 명, 1940년 조선의용대가 구이린에 있을 때 미리 와 있던 18명, 김태준·김사량과 같은 망명 인사들, 각 처에서 새로 모집한 인원 등을 합한 수다. 조선의용대는 이역만리 떨어진 중국에서 자급자족을 이어갔다. 그들의 주된 활동내역은 전지공작, 교육활동, 생산활동이다. 전지공작은 일본군 점령지구에 잠입하거나 전선에 접근해 활동하는 초모활동·선전활동·정보활동 등을 말한다. 연안에 있을 때는 전방에 파견된 선전대가 그 임무를 수행했다. 대원들은 연안 나자평에 있던 조선항일군정학교에서 군사교육과 사상교육을 받았다.

제 8로군 지역은 토지가 척박해 생활물자가 궁핍했다. 중국 군인들도 대부분 ‘자력동수 풍의족식’이라는 모택동의 구호 아래, 군인들은 밭을 일구고 농산물을 자급자족했다. 조선의용군도 이에 발맞춰 밭을 갈아 일을 하는 데 나섰다. 당시 연안 지방의 주민은 야오둥이라는 토굴 속에서 생활했다. 나자평에는 지금도 조선의용군이 살던 굴집과 군정학교 옛 터, 그리고 의용군이 일군 밭까지 여전히 남아 있다. 조선의용군은 이렇듯 타국에서 외롭고 고단한 훈련을 이어갔고 궁핍함 속에서도 나라를 되찾고자 일제에 대항해 이를 갈고 갈았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아 조선의용군은 그 해 9월 15일 제 8로군과 함께 연안을 떠났다. 그 뒤 일부는 북한으로 들어 가다가 소련군에 의해 무장해제 당했다. 북한으로 들어간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한빈 등을 중심으로 조선신민당으로 개편해 활동했다. 만주에 남아 있던 병력은 그 곳에서 동포들을 모병해 부대를 증강하고 중국의 공산혁명전쟁에 참가하기도 했다.

조선의용대 본부는 계림·기강을 거쳐 중경으로 옮겨졌다. 이후 본부는 중경에 남고 1940년 11월 4일 조선의용대는 하남성 낙양으로 집결해 1941년 3월, 황하의 맹진 나루를 건너 화북으로 이동했다. 이어 그 해 7월 10일 임현에서 신악·윤세주·박효삼·김창만 등을 중심으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결성했다. 이때부터 화북지대는 태항산 일대에서 호가장 전투(1941.12.12)·형대전투(1941.12.26)·태항산 전투(1942.5.28)를 치렀다. 태항산전투 무렵인 1942년 5월 중경에 있던 조선의용대 본부가 임시정부의 광복군 제 1지대로 편입되자 화북지대는 본부없는 지대가 되고 말았다. 이에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는 1942년 7월 10일 ‘태항산 중인 화북성 세현’



조선의용대의 이동 경로



맨앞줄 왼쪽부터 리익성, 두사령건너 박효삼, 다시 두사령건너 최창익, 한사령건너 석정(윤세주), 리정중(리화령의 남편), 김원봉총대장. 그리고 맨끝의 여성이 김위(당시 영화감독으로 불리던 김영의 누이동생). 둘째줄 왼쪽 첫번째가 윤정일, 한사령건너가 후날의 태어난 군사지휘관 장명산. 그리고 둘째줄 오른쪽에서 세번째 양복입은이가 용강한 테러리스트 리소민(리경산). 왼쪽부터 차례로 가리경표 ①이 김창만 ②가 고봉기 ③이 박우 ④가 김학철 ⑤가 리상조.

에서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됐다.

당시 중국 역시 모택동을 중심으로 인민해방운동과 동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때다. 당시 조선과 중국에게는 일제에서 벗어나자는 공통분모가 있었다. 서로 손을 맞잡은 중국과 조선은 일제에 대항해 척박한 땅에서 전투를 벌였다. 그럼에도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부터는 이러한 사실이 불편한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바로 독립을 위해 투쟁을 벌였던 열사들의 일부가 그대로 중국에 편입됐기 때문이다. 이들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력군대는 1950년 6월 25일부터 3년 간 해방된 조국 땅에서 서로 총구를 맞대고 싸우게 되고 수많은 이들에게 뼈아픈 상처를 남기게 됐다. 하지만 광복 70년이 넘는 현재, 만일 광복을 위한 이들의 투쟁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때가 됐다. 더욱이 조선의용대-조선의용군의 투쟁사는 한동안 우리 역사책에 존재하지 않거나 조금씩만 서술되어 있어 오해도 많았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에서는 이념을 초월한 그들의 항일투쟁 정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 3.2.2. 조선의용대, 천하제일 산수 ‘계림’에서 한중우의를 펼치다<sup>10)</sup>

1938년 10월 10일 호북성 무한(武漢)에서의 조선의용대 창설은 한국과 중국이 운명공동체임을 알리는 한편, 일제의 ‘만주사변(9·18)’ 및 만보산 사건과 같은 민족 이간책 등을 극복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특히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관내 지역 역시 일제의 침략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 중국은 이미 식민지로 전락한 한국 독립운동세력과 연합을 통해 일본제국주의에 공동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물론 이것은 한국 독립운동세력도 마찬가지였다.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동항일전선 구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효과적인 대적(對敵)활동을 위해 급속도로 대두된 한중연합론은 조선의용대의 창설로 귀결되었다.

하지만 무한에서의 활동도 잠시, 무한이 일제에 의해 함락되자 조선의용대는 급히 계림으로 대본부를 이전했다. 계림은 중국군사위원회와 중앙군관학교가 이전해 있던 곳이었으며, 중국인 문호 파금(巴金)이 유자명(柳子明)과 교유했던 문화생활출판사 등 당시 중국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조선의용대는 또 다른 우군을 만나게 된다. 바로 광말약(郭沫若)이 창간한 구망일보(救亡日報)사와의 인연이다. 이는 조선의용대가 중국에서도 한국

10)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주용 연구위원, 월간독립기념관 2011년 10월호 기획특집에 상당부분 의존.



독립운동을 알리고 중국과 함께 공동항일전선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조선의 용대의 활동과 위상을 알리는 데는 자신들의 선전도 중요하지만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제3자의 협조가 필수적이었던 것이다. 서로가 공동항일투쟁의 공통분모를 찾게 된 것은 구망일보사 사장 곽말약의 활동과 연관이 있다. 국공합작파인 곽말약은 조선의용대의 활약에 대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한국인의 항일투쟁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1938년 10월14일자 조선의용대 창립을 알리는 신문기사 (신화일보)



계림에서 찍은 조선의용대 창립 1주년 기념사진. 하단에 '朝鮮義勇隊創立壹周年紀念(1938.10.10)於桂林'이라는 문구가 뚜렷하다.

전설했듯이 1938년 10월 25일 무한이 함락되자 조선의용대는大本부를 계림으로 이전했고 총대장 김원봉(金元鳳)을 비롯한 조선의용대원들은 동영가(東靈街) 1호에 본부를 두었다. 이후 일제의 빈번한 공습으로 인해 동녕가에서 시가원(施家園)으로 본부를 이전했다. 여기에서 조선의용대는 중국과의 연합항일과 관련한 문제를 토론하고 업무상 경험과 교훈을 교환하여 업무수행상의 장단점을 공유하기 위해 간행물을 출간해야 한다는 데 공통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1939년 1월 15일 『조선의용대통신』은 이러한 배경으로 간행되었다. 즉 한중이 서로 연합항일 공작을 올바르게 전개하기 위한 토론의 장, 경험 토론의 장, 상호 비평의 장으

로 『통신』을 낸 것이다. 계림은 한중 양국의 공동항일투쟁을 논의할 만큼 문화도시이자 혁명의 도시이기도 했다. 이곳에서 조선의용대는 『구망일보』의 판매·보급책 역할을 담당했다. 당시 조선의용대는 구망일보사 앞에서 “우리는 고향을 만 리 밖에 두고 부모처자들을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구둣발 밑에서 구해내고자 중국항일전쟁에 참가한 조선의용대 전사들이다. 우리는 지금 국제의무신문판매대를 통해 민중들의 마음을 전달하는 『구망일보』를 판매하고 있다.”라 선전했으며, 그 효과로 독자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조선의용대는 3·1운동을 기념하고 이를 중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연을 준비했다. 공연제목은 〈조선의 딸〉이며 내용은 민족해방을 위한 조선여성들의 눈물겨운 투쟁을 생생하게 묘사한 것이다. 다음은 연극을 보고 난 후 중국인들의 감상을 『구망일보』에 실은 것이다.

연극 〈조선의 딸〉은 압박과 착취에 시달리던 조선민족의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반항과 망국 후의 침통함을 묘사한 작품으로 관중들의 반응으로 보아 상당히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막이 오르자 평생을 살아온 터전에서 쫓겨난 할아버지와 그의 남루한 보따리가 함께 문 밖으로 내팽개쳐지는 장면이 펼쳐지고 막 뒤에서는 이민자들을 실은 마차 행렬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것만으로도 망국민의 참담함을 관중들에게 전해주기에 충분해 보였다.

제한된 공간과 인적자원의 부족 등 내외적 제약을 극복하고 중국인들의 가슴 속에 망국인의 비애와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강렬하게 가슴 속에 망국인의 비애와 독립운동의 당위성을



강렬하게 남긴 연극 〈조선의 딸〉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통적인 평가는 강력한 혁명정신이었다. 계림에서 〈조선의 딸〉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중국 문화계 인사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당시 계림에는 20세기 중국 문학계를 대표하는 곽말약, 파금, 애청 등이 활동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음과 양으로 지원했기 때문에 조선의용대의 활동도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중국어의 한계로 중국인 관객에게 중요 대사를 종종 전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의 구망운동에 탄력을 주었으며, 중국항일투사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선의 딸〉을 준비하고 공연하면서 중국인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낸 것은 향후 한중연대를 강화하고



조선의용대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한중 민족이여 연합하라.’ 조선의용대 성립 선언에 나오는 말이다. 조선의용대는 중국항전에 참가하고 궁극적으로 한국의 해방을 목적으로 성립했음을 분명히 했다. 당시 중국의 국경일이었던 쌍십절(雙十節)에 창립한 것은

그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중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한국의 독립을 쟁취하는 것은 한중 연합전선을 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했던 조선의용대는 중국 각 단체와의 회의·토론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특히 3·1운동을 기억하고 이를 통해 보다 강렬한 항일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했다.

조선의용대는 3·1운동 20주년을 기념하면서 「중국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글을 통해 3·1운동이 한민족독립운동의 총화이며 정의의 분노를 폭발시킨 것이라 하면서 중국의 항일투쟁에 한국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한국의 청년들이 독립된 무장대오를 조직하여 중국인과 함께 일본 파시스트 강도 집단을 향해 진격해야 한다고 했으며, 나아가 한



계림에서의 조선의용대 여전사들

국인과 중국인은 동일한 전선에 서서 생사를 같이 할 동맹자라고 평가했다. 조선의용대가 중국군사위원회의 지원을 받으면서 활동하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은 필수적 요소였다. 따라서 그들의 구호 역시 ‘중국항전 승리 만세’, ‘조선민족해방 만세’라는 현실적인 입장이 투영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조선의용대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도 한중연합을 주장했다. 1939년 5월 1일 국제노동절을 기념한다는 취지로 한중 노동자들이 연합하여 공동의 적인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할 것을 요청했다. 조선의용대는 한국 전체 노동자들을 대표하여 중국 노동자들과 함께 세계 평화를 쟁취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의 항전과 한국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항전할 것을 결의했다.



일본군 점령 지역에 침투해 폐허가 된 사찰의 담장에 항일 표어를 쓰는 조선의용군 화북 지대 선전대원. 중조(中朝)아닌 중한(中韓)이라는 표현이 눈길을 끈다.

1939년 7월 중국의 7·7항전 2주년을 맞이하여 계림시 각 선전단체는 대규모 공연을 계획했다. 조선의용대는 계림중학 대강당에서 연극 〈반공(反攻)〉을 공연할 예정이었다. 2막으로 구성된 이 연극은 조선의용대 제1구대가 전선에서 펼친 활동을 극화한 것이다. 중국 측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한중 연합전선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고자 했던 조선의용대의 활동은 중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올해는 한중수교 24주년이다. 조선의용대가 계림에서 펼친 한중연합작전은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한중우의가 무엇인지 역사의 무게로 전해주고 있다.

### 3.3. 중경 : 조선민족혁명당 · 조선의용대 본부(탄자석, 대불단)

1936년 12월에 일어났던 시안(西安) 사변으로 제2차 국공합작(國共合作)이 이루어져 멸공에서 항일 전선으로 급선회한 장제스 국민정부가 급히 수도를 옮긴 곳이 충칭이었다. 이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군의 눈을 피해 치장(기장)으로 옮겨 있던 한국 임시정부가 1940년 9월 마지막 본거지를 정한 곳이 또한 충칭이었다. 이렇게 1940년 중경에서 중국 국민당정부와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한곳에 둥지를 틀어서 민족통일전선 형성의 필요성이 정점에 달했다. 당시 중국은 국민당정부의 주도 아래 국공합작에 의한 항일전을 수행하고 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도 가능했다. 1940년대 초반 중경 임시정부의 좌우합작 운동이 이전의 민족통일전선 운동과 다른 점은 그것이 일제의 패망이 전망되는 상황에서 중국 관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일제의 패망과 해방은 목전에 닥다른 것으로 보였고 중국과 미국 등 한국 해방에 대한 국제적 규정성도 강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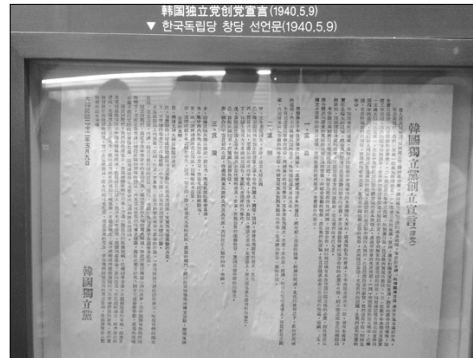


중경에서 발행된 <독립신문>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촬영)



### 3.3.1. 조선민족혁명당 대회에서 결정된 조선의용군의 복상, 그 불멸의 발자취를 쫓아<sup>11)</sup>

사실 이번에 계획된 답사 경로 중에서 조선민족혁명당·조선의용대 본부(탄자석, 대불단)는 아쉽게도 가지 못했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엄격히 바탕을 두되, 유적지가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어있던 몇 년 전에 촬영된 사진들과 영상들을 열람한 후 역사적 맥락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구성하여 내용을 서술한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한국독립당 창당 선언문(1940.5.9.)  
: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촬영

당시 독립운동 원로들의 지지를 받은 김구는 이들을 중심으로 중경에서 임시정부를 계속 이끌어나갔다. 그리고 기강에서 한국독립당을 새롭게 만들며 장개석과 국민당의 신뢰를 얻은 김구는 임시정부 요원들을 이끌고 중경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김원봉과 조선의용대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광복군의 창립을 주도했다. 반면에 수적으로 우세한 소장과 진보적 청년들을 이끌었던 김원봉은 점차 국민당의 배척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대다수가 항일 제일선으로 나갈 것을 탄원하면서 직접 일제와 싸울 것을 결의했다. 그리하여 1940년 중경에서 형식적으로 한국광복군이 창립되었고 이를 반대해 1941년 조선의용대주력이 팔로군 통제구역으로 복상하게 되었다.

1940년 중경에 옮겨온 임시정부는 처음에 양류가에 자리를 정했지만 일제의 폭격에 가옥이 파손되자 석판가로 옮겼다. 그러나 역시 일제의 폭격이 잦아 다시 오사야항 1호(號)로 이주했다. 오사야항이 바로 지금의 화평로 2항(巷)이다. 유중구 화평로(和平路) 2항에 이르면 찌그러진 2층 집들이 보이는데 내부에는 아직까지도 주민이 살고 있다고 한다. 나무와 얇은 벽을 발라 만든 건물은 금방 무너질 것만 같다고 한다. 이곳 5, 6, 7번지 건물이 당시 김구와 임시정부 요원들이 거처를 잡고 사무를 보던 곳이다. 중경시절 임시정부는 이곳에 가장 오래 머물러있었고 김구는 여기에서 《백범일지》의 후반을 완수했다.

11) 이곳을 5년 전에 취재한 길림신문의 ‘조선민족: 불멸의 발자취’ 특집종합 현지리포에 상당부분 의존: [http://kr.chinajilin.com.cn/cxz/node\\_210.htm](http://kr.chinajilin.com.cn/cxz/node_210.htm)

오사야항 유적지에는 작은 기념비가 있는데 한자로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大韓民國臨時政府舊地)》라고 새겨져있다. 기념비는 1995년 연화지의 임시정부기념관을 만들 때 함께 세웠다고 한다. 건물 위층은 복도로 서로 이어져있고 김구는 당시 2층에 거주했으며, 5년 전에는 불과 아홉 가구가 살고 있었다고 한다. 중경시 도시개발계획에 속한 이곳의 위험가옥은 곧 전체가 허물게 된다. 당시 가정해 관장은 도시개발계획에 따라 일찍이 허물었어야 할 건물이었지만 건물 앞 기념비가 있어 연장되었다고 했다. 이곳을 보수하든지 새로 복원해 만들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부문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점점 독립운동의 흔적들이 사라져가는 현실에 비추어봤을 때<sup>12)</sup> 정부 차원의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보존의지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독립운동 유적지들의 미래는 명약관화하다.

추용로(鄒容路) 37번지는 한국 광복군사령부가 있었던 곳이다. 기강으로부터 중경에 본거를 옮긴 후 김구는 서둘러 임시정부 산하의 한국광복군을 창립했다. 조선 독립운동 진영의 통합을 요구하던 장개석도 이때 김구와 임시정부를 수락하고 조선의용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광복군의 창립을 허락했던 것이다. 1940년 9월 17일 오전 중경 가릉빈관에서 한국광복군 창립식이 있었다. 광복군 총사령은 리청천, 참모장은 리범석, 총무처장은 최용덕, 참모처장은 채형세(蔡衡世), 부관처장은 황학수(黃學秀), 경리처장 겸 정훈처장은 안훈(安勛), 훈련처장은 송호, 군무처장은 류진동(劉振東)이었다. 광복군창립식에는 임시정부 요원과 중국 국민당의 손과, 오철성(吳鐵城), 공산당의 주은래를 비롯해 100여명이 참가했다. 광복군이 창립되었던 가릉빈관 자리는 지금 가릉 신촌(新村) 아파트단지로 변해버렸다.

광복군은 창립된 후 각지에서 선전공작과 초모활동을 진행하였다. 사령부는 중경 추용로

12) 관련해서 가장 최근인 2016년 8월 2일에 문화일보 정치면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임시 의정원 초대 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석오(石吾) 이동녕 선생의 중국 충칭 주거지가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기사(<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0201070130114001>)와 함께 상순가 107호 등에 있었던 김구·조성환 선생 등의 집터도 재개발로 모두 없어지고 표지석 하나 남지 않았다는 기사(<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80201070530114001>)를 연재했다. 이외에 참고할 수 있는 비교적 최근 기사로는 다음이 있다: “독립군 양성소 터가 논밭으로... 항일투사 하늘서도 운다 - [중국 내 항일유적지 현주소] 하얼빈 ‘안중근 기념관’ 건립 1개월 계기로 살펴본 관리실태”, 2014-02-20, <http://news.donga.com/3/all/20140220/61029401/1> 한편 세계일보는 2007년 3월 일찍이 ‘해의 독립운동 현장 찾아서’ 기획을 통해 중국 내 항일유적지 가운데 상당수가 엉터리로 지정됐다고 보도했다. 국가보훈처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같은 해 7월 22~31일 중국에 충북대 박길순 교수를 비롯한 답사단 4명을 파견해 독립운동 사적지를 재조사했다. 바로 그 다음 달에 세계일보는 답사단과 동행, 중국 내 항일 유적지의 실태와 현주소를 취재해 ‘사라지는 독립유적’, ‘중국측의 비협조’, ‘새로 주목받는 유적지’, ‘발굴과 보존해법은’의 순으로 4회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37번지에 있는 국민당군사위원회 군정부 건물에 정했다. 이 시기 한국광복군은 몇 개 지대로 나누어 활동하였다. 리준식(李俊植)이 제1지대장으로, 공진원(公震遠)이 제2지대장으로, 김학규(金學奎)가 제3지대장으로, 라월환(羅月煥)이 제5지대장을 맡았다. 광복군은 대부분 기간 본부를 서안에 정했기 때문에 중경의 추용로에 오래 머물지 않았다.



화평로 2항(옛 오사야항 1호)의 임시정부 거처



추용로 37번지, 한국 광복군 사령부가 있었던 곳  
(지금은 미원이라는 가게로 변함)

중경시 남안구 탄자석(彈子石)에는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본부 옛터, 김원봉의 거주지, 광복군 제1지대 본부옛터를 비롯한 유적들이 있다. 중경시 남안구는 장강 이동과 이남 지구를 포함한다. 탄자석은 남안구의 북부에 위치한다.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던 탄자석 묘배타(苗背沱) 81번지는 산과 골짜기가 많은 곳에 위치해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옛날에는 손가화원(孫家花園)이라는 공원이 있던 곳인데 5년 전에는 사천성 물자저장관리국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곳은 비교적 평탄한 곳이다. 민가들이 촘촘히 들어선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면 커다란 정문이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국가저비국(國家儲備局) 435처(處)라고 적혀있다. 정문 뒤로 커다란 공지가 있었고 한쪽에 새로 지은 3층 건물이 있다. 옛날의 손가화원 정원과 건물은 가뭇없이 사라져버렸다.

1940년 3월 중경에 온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 요원들과 함께 조선의용대 본부를 거느리고 이곳에 거처를 잡고 군사훈련을 했다. 이 시기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민족혁명당과 김구가 이끄는 한국독립당은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황이었다. 당시 주소는 남안구 탄자석 아궁보(鵝宮堡)였다. 탄자석 묘배타는 비록 중경시에 속하지만 주민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생활도 넉넉하지 못한 편이었다. 이어서 탄자석 상업구를 지나면 좁은 골목길 양쪽에 크고 작은 가게와 난전을 펼친 시장거리가 나타난다. 사람이 많고 길이 좁아 차를 시장입구에 대기시키고 도보로 걸어 시장 길을 반쯤 더 들어가면 대불단(大佛段) 150호 건물 표식을 확인할 수

있다. 원래 2층 낡은 벽돌건물로 남아있었는데 5년 전에는 유명한 동군각대약방(桐君閣大藥房) 분점으로 되어있었다. 이곳은 1942년 광복군 제1지대 본부가 있던 곳이다.



대불단 150호, 광복군 제1지대가 있었던 곳



남안구 탄자석(손가화원 옛터),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던 곳

1940년대 국민당 통치구역에 존재한 두 개의 조선인 반일부대, 즉 국민정부 군사위원회에서 지지하는 조선의용대와 국민당이 지원하는 한국광복군을 통합하기 위해 각 측은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이 시기 조선민족혁명당과 조선의용대의 소장과 청년들은 일제와 직접 싸울 수 있는 북상진로를 주장했다. 조선의용대 주력이 북상하여 팔로군 통제지역으로 가자 장개석과 국민정부는 광복군 쪽으로의 통합을 요구했다. 1941년 11월 김원봉은 조선민족혁명당 제6차대회를 소집하고 임시정부으로 방향을 돌렸다. 그리하여 임시정부에는 한국독립당과 조선혁명당 두 당이 경쟁하는 국면이 나타났고 광복군을 재편성하게 되었다. 1942년 5월 조선의용대는 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되고 김원봉은 광복군 부총사령 겸 제1지대 지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이때는 조선의용대 주력이 북상한 뒤였기 때문에 사실 중경에 남은 대원들은 50여명 정도뿐이었다. 제1지대 본부에는 부지대장 신악, 비서에 리달(李達), 총무조장에 리집중, 조원에 한지성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중경 탄자석 대불단 150호에 거주했다.

광복군 제1지대부가 있었던 대불단 150호로부터 조금 더 나가면 대불단 172호가 나타난다. 이곳은 광복군 부총사령이며 제1지대 지대장이었던 김원봉의 거처였다. 역시 거의 무너질 듯한 3층 벽돌건물이었는데 5년 전 당시에 아래층은 간소한 음식을 만들어 파는 가게였고 그 곁에는 소매점과 동군각대약방 다른 분점이 있었다. 중경에서 조선혁명가들과 독립운동가들은 치열한 경쟁을 계속 진행했다. 임시정부 내의 권력과 중국 측의 지원금 사용을 비롯한 문제를 가지고 진행된 이러한 경쟁과 투쟁은 1945년 일제의 항복할 때까지 지속되었고 마침내는 단합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각자가 귀국행로에 올랐던 것이다.





대불단 172호, 김원봉이 거처했던 옛터



광복군 1지대 김원봉, 2지대 리범석, 3지대 김학규

### 3.3.2.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와 민족통일전선 상의 한계<sup>13)</sup>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에 대해서는 이를 임정·한국독립당의 시각에서 이들이 주도한 좌우합작(통일전선)의 실현으로 간주하거나, 중국 내 이른바 한인좌파의 입장에서 민족혁명당 등의 임시정부 참여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면서도 온전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평가해 왔다. 그러면서도 좌우합작 내지 민족통일전선의 형성 자체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에서 한국독립당·임시정부나 조선민족혁명당 어느 한쪽 입장에서 긍정적 평가는 대부분 1942년 한국광복군의 조선의용대 통합과 조선민족혁명당 등의 임시의정원 참여에서 1945년 해방에 이르는 1940년대 전반기 이른바 통일전선 정부 전 기간의 활동에 기초



임시정부 수호와 대일항쟁의 강화를 위한 3당통합 시도(남목청 6호 장사 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촬영)

해 있다. 그러나 조선민족혁명당 등이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배경과 과정, 이후의 활동 내용 등을 살펴볼 때 이러한 평가를 전적으로 수긍하기는 어렵다.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타율성과 논리적 빈약성, 한국독립당의 배타성과 비자주적 태도 등은 이러한 평가를 무색하게 하는 측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에서는 선행 연구를 참작하면서 중경시기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운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민족혁명당은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파의원 13명을 1942년 10월 임시의정원 제34차 정기회의에 등원시켰다. 9명으로 늘어난 국무위원회에도 2명이 참여했다. 앞서 5월에는 중경에 잔류한 조선의용대대원들이 한국광복군 제1지대에 편입되었다. 그러나 종전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부정·불관주의(否定·不關主義) 노선을 고수하며 임정을 인정하지 않던 민족혁명당이 임정에 합류하려는 데 대한 한국독립당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자금지원의 중지까지도 시사한 중국 국민당정부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전까지 임정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조선민족혁명당이 임정 참여로 방침을 전환한 것은 무엇보다도 독소전쟁의 발발(1941.6.22)과 「대서양헌장」 선언(1941.8), 태평양전쟁 발발(1941.12)로 이어지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동

좌 : 조선민족혁명당의 기관지인 <조선민족전선>창간호(1938.4)  
우 : 조선민족혁명당의 강령과 정책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촬영)

13) 이현주(국가보훈처 연구관), “1942년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의정원 참여와 노선투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33집 - 기획논문, 2009.8, 101-141쪽에 상당부분 의존.

때문이었다. 특히 「대서양헌장」 발표를 계기로 유럽의 망명정부들이 동맹국들로부터 승인을 받자 민족혁명당은 임시정부도 승인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조선의용대의 복상으로 전력이 크게 약화되고 중국 내 국공합작의 균열 징후도 임시정부 참여를 재촉하게 했다.

그러나 민족혁명당의 임정 참여 논리는 빈약했다. 1941년 10월 민족혁명당이 임정 내 소수 반한독당파에 기대 임시의정원에 진입하려다 실패한 ‘의회 불상사건’은 한국독립당의 오만함을 드러냈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혁명당의 저의를 의심하게 한 계기가 되었다. 제34회 회기 내내 중경 안팎에선 민족혁명당이 임정을 빼앗아 정권을 장악하려 한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이것은 공고한 통일전선 정부의 형성이 지연되는 요인이 되었다. 이러한 대립과 긴장이 중경에만 국한되지는 않았다. 임시의정원 제34회 회의에서 진행된 대미 외교에 대한 질의와 응답은 정부의 임정승인 외교에 대한 평가와 토론에서 벗어나 각각 미국 내 라이벌인 이승만과 한길수의 대리전으로 변질되었다. 이승만은 민족혁명당이 임정에 참여한 뒤에도 김구에게 이들을 축출할 것을 요구했고 한길수는 김원봉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에서 독자적 활동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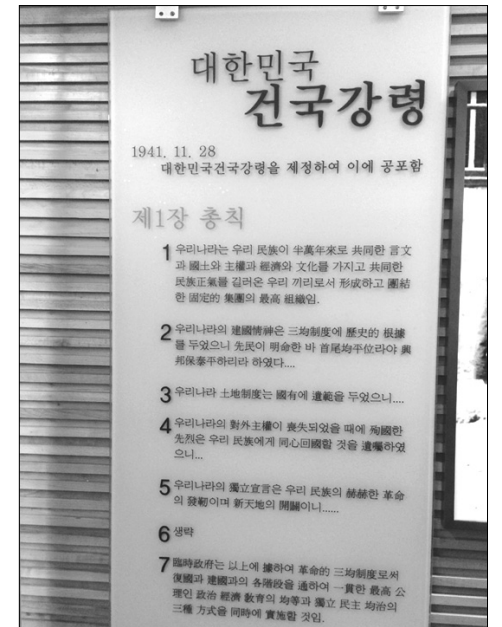
반면에 한국광복군 「9개 준승」 문제에 대한 논쟁을 합의로 이끈 것은 의미 있는 성과였다. 준승의 내용으로 볼 때 중국 국민당정부의 의도는 군사위원회로 하여금 광복군을 임시정부에서 완전히 분리시켜 항일전쟁 기간 동안 중국군에 종속시켜 항일전에 이용하겠다는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으로 광복군이 한국 내로 진입한 이후까지도 지휘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9개 준승」이 유지된다고 할 때 전쟁 기간 중 광복군의 독자적인 역할은 불가능했고 이렇게 된다면 전후 국가건설 과정에서 한중의 지분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위기 의식이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합의를 도출하게 했다. 「9개 준승」 취소안이 합의에 의해 결의되는 과정에서 한국광복군은 배수진을 쳤다. 한국광복군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소련에 대한 사실상의 적대적인 정책을 무릅쓰고 총사령 지청천과 부사령 김원봉 명의로 스탈린에게 서신을 보내, 어려움에 처한 광복군의 상황을 전하면서 군사적 지원을 호소했다.

「건국강령」<sup>14)</sup> 토론은 전후 건설될 신국가의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했지만 기왕에 공포된 데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데 집중되었다. 「건국강령」의 토지국유화 규

14) 임시정부는 창청시기에 임시정부 주변의 한국국민당(김구), 한국독립당(조소앙), 조선혁명당(지청천)을 합당함으로써 1940년에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조직하여 정부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어 1941년에는 대한민국 건국 강령(大韓民國 建國 綱領)을 제정·공포하였다.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받아들인 건국 강령은 '새로운 민주주의 확립과 사회계급의 타파, 경제적 균등주의의 실현'을 주창하였다. 이 건국 강령에 의거한 국가 건설과정은 '독립 선포 - 정부 수립 - 국토 수복 - 건국'의 과정이며, 보통 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의 수립, 정치·경제·교육의 균등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에 대한 논쟁에서 민족혁명당이 국유화에 반대하고 한국독립당이 찬성하는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합리한 노선의 전환이나 혼란이라기보다는 해방 이후 전개될 국가건설과정에서 서로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통일전선 전략의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민족혁명당은 토지정책 뿐만 아니라 1941년 강령에서 이미 조선인의 기업경영을 보장하는 등 종전과는 달리 좌파적 강령을 완화해 가고 있었다. 요컨대 해방 후 지지기반의 확충이라는 동상이몽의 통일전선 전략 속에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토지정책이 '중앙'을 향해 수렴되고 있었던 것이다.

임시약헌 수개안(修改案)을 제출한 것은 의외로 한국독립당이었다. 그러나 한국독립당의 목표는 임시약헌 중 회기 안에 선거법 개정만을 요구한 민족혁명당과 달리 일본의 패망, 도래할 국제정세의 변동까지 반영한 완전무결한 헌법을 만드는 것이었다. 한독당 우위의 체제 하에 명실상부한 헌법을 만들어 신국가 건설의 지렛대로 삼겠다는 구상이었다. 민족혁명당은 중경의 동포들만으로 시행되는 의원선거의 대표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선거구를 중국 전역과 미주, 노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시약헌 수개를 둘러



대한민국 건국강령(중경 임시정부 청사에서 촬영)

싼 논쟁은 초보적 형태나마 정당정치에 의한 민주주의 실험을 보여준다.

요컨대 1942년 말 조선민족혁명당의 임시정부 참여는 식민지 지배 말기의 전환기적 상황 하에서 민족통일전선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참여 과정에서 보여준 민족혁명당의 비논리성과 타율성은 임정 내에서의 지속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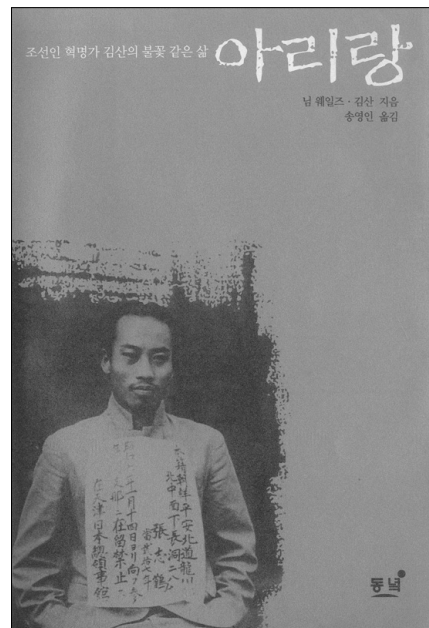
인 활동의 가능성을 약화시켰다. 한국독립당도 임시정부를 지켜왔다는 정통성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편협함으로 인해 머지않아 외로운 상황에서 힘든 싸움을 전개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음은 해방 이후의 한국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다.

#### 4. 에필로그 : ‘아리랑’을 다시 부른다는 것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으로 건너간 우리의 선열들은 남의 나라의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처지 때문에 쑨원, 장제스의 국민당 또는 마오쩌둥의 공산당에 합류했으리라 생각된다. 드넓은 중국 대륙에서 언어도 제대로 통하지 않고, 끝없는 위기 속에서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들은 독립운동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갖고 좌우도 모르고 일신의 영달을 마다하고 싸웠다. 그로 인해 이 나라가 있다.

물론 한국 현대사가 임시정부, 무장독립운동, 재미독립운동 세력 등에 의해 복잡하게 분할되어 있었고, 궁극적으로 비극적인 한국전쟁의 시초가 됐다지만 어찌면 해방 후 좁은 땅 조국에 와서는 공동의 목표가 없어지니 묻혀있던 이념이 고개를 든 것이리라. 이제 그런 역사의 굴레를 본모습 그대로 보여줘 역사를 바로 알게 해야 한다. 역사란 살아 있는 시간이며 그 속에서 살아 있는 인간의 좌표를 확인할 수 있는 단서일진대 아직도 이념 때문에 우리는 왜소한 항일운동의 역사만을 붙잡고 너무 오랫동안 마음고생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아리랑』을 읽다보면 다음 구절이 나온다. “전장에서, 사형장에서, 도시와 마을에서 그들의 뜨거운 혁명적 선혈은 조선, 만주, 시베리아, 일본, 중국의 대지 속으로 자랑스럽게 흘러들어갔다.” 조선의 민중들이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 빠져있던 중에 하늘에서 내려온 밧줄과 같은 노래, 그리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고통과 정신상태 속에서 가냘프게 불렀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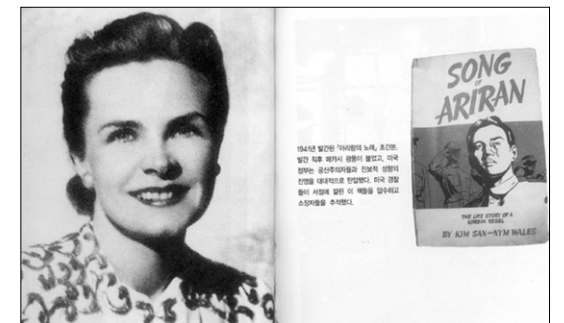


님 웨일즈·김산 지음, 송영인 옮김, 『아리랑 : 조선인혁명가 김산의 불꽃같은 삶』, 동녘, 2005

의 노래가 바로 아리랑이었다. 그 노래는 김산과 조선 민중들에게 있어 패배의 노래임과 동시에 승리의 노래이기도 했던 것이다.

그가 부른 아리랑은 혼자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아리랑은 일본군에게 맞서 싸우다 폐죽음을 당한 청년들, 마적떼들에게 토막 나 죽어간 무고한 사람들을 포함한, “김산의 등 뒤에 선, 그러나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수많은 김산”들의 노래였다. 그가 웨일즈에게 설명해준 아리랑은 이러했다. “조선에 민요가 하나 있다. 그것은 고통 받은 민중들의 뜨거운 가슴속에서 우러나온 아름다운 옛 노래다. 심금을 울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에는 슬픔이 담겨있듯이, 이것도 슬픈 노래다. 조선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극적이었듯이 이 노래도 비극적이기 때문이다.”

광저우 봉기와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혁명의 현장 속에서 김산은 단 한 차례도 승리하지 못했다. 실패와 죽음은 김산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고개’와 같았는데 그 고개가 의미하는 가치 있는 실패와 죽음이 아니고서는 아리랑에 나오는 열두 고개를 넘지 못해 마지막 열세 번째 고개를 넘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내 전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나 자신에 대해서만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자신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시대는 추웠지만 혁명가의 피는 더욱 붉고 혈관은 더욱 따뜻했다. 이 땅의 수많은 김산들이 부른 아리랑은 패배의 노래이지만, 기필코 승리하는 노래이기도 하다. 비록 지금 한없이 나약해지고 힘에 겨워도 혁명가의 혈관은 더욱 뜨겁다고 한 김산의 ‘아리랑 옥중가’를 다시 한 번 나지막이 읊조려본다.



님 웨일즈(스노우 헬렌)와 1941년 발간된 《아리랑의 노래》 초판본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는 열두 구비

첫 번째 고개를 넘어간다.

내 들던 막걸리는 어디 있나  
이제는 한강에 펄펄로구나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재판장 고개를 넘어간다

금시계줄은 어디로 갔나  
쇠수갑은 맞지를 얹으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감옥행 고개를 넘어간다

운명의 선고를 기다리며  
나 이제 생사 갈림길에 서 있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마지막 고개를 넘어가련다

아리랑 고개에 간이역 하나 지어라  
집행인 기차를 기다려야 하니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마지막 고개를 넘어간다

동지여, 동지여, 나의 동지여  
그대 열두 구비에서 멈추지 않으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열세 구비를 넘으리니

### 부록) 『아리랑』 25장 ‘패배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자만이’ 중에서 :

“내 전 생애는 실패의 연속이었다. 또한 우리나라의 역사도 실패의 역사였다. 나는 단 하나에 대해서만 - 내 자신에 대해서만 - 승리했을 뿐이다. 그렇지만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자신을 얻는 데는 이 하나의 작은 승리만으로도 충분하다. 다행스럽게도 내가 경험했던 비극과 실패는 나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강하게 만들어 주었다. 나에게는 환상이라는 것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그렇지만 나는 사람에 대한 신뢰와 역사를 창조하는 인간의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다. 역사의 의지를 알 사람은 누구일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폭력을 뒤엎지 않으면 안 되는 피억압자뿐이다. 패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사람, 일체의 새로운 세계를 최후의 전투에서 얻기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뿐이다. 억압은 고통이요, 고통은 의식이다. 의식은 운동을 의미한다. 인간 그 자체가 다시 태어날 수 있으려면 수백만이란 사람이 죽어야 하고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통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 객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유혈과 죽음의 광경, 그리고 어리석음과 실패의 광경은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나의 통찰력을 가로막지 않는다.

인류 역사의 전통은 민주주의적이요, 이 전통은 모든 인간에게 평등하게 주어진 천부의 권리이다. 그러나 이 천부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한테서 그것을 도둑질해 가는 자도 있다. 물은 사람을 빠뜨려 죽이기도 하고 구해주시기도 한다. 오늘날 인간사회는 고요한 마을 연못이 아니라 성난 홍수이다. 사람은 반드시 헤엄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14살 때부터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나는 결코 물에서 떠나본 적이 없다. 나는 몇 차례나 스스로를 포기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파괴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뿐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민중과의 계급관계를 유지하는 것. 왜냐하면 민중의 의지는 역사의 의지이기 때문이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민중은 깊고 어두우며 행동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단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대는 소곤거리는 소리와 침묵의 웅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개개인과 집단들은 큰소리로 고향을 지른다. 그리하여 그 때문에 큰 혼란에 빠지기 쉽다. 그러나 진실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되는 것이지 큰소리로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다. 민중들이 이 목소리를 들을 때, 그들은 손에 총을 잡는다. 마을 노파 한 사람의 긴박한 속삭임만으로도 충분하다. 진정한 지도력은 날카로운 귀와 신중한 입을 필요로 한다. 민중의 의지에 따르는 것만이 승리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인 것이다.

우월한 권력에 대항하여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은 쓸데없는 비극에 지나지 않는다. 힘에 대



해 저항할 수 있는 대등한 힘을 조직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힘을 동원할 수 없다면 행동을 늦추어야 한다. 모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여러 정당과 집단, 군중조직들은 수많은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여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나 역시도 그러한 선부른 행동에 수없이 참가하였다. 그러나 오류는 지도의 불가결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오류는 찾아낼 수 있다. 그렇지만 다수의 추종자를 얻기 전에는 지도할 권리가 전혀 없다. 자기 시대를 앞서 있다는 것은 선전 작업과 비판을 할 수 있는 자격에 불과할 뿐 지도할 자격은 되지 못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위대한 민주주의적 대중지도자는 대중을 쫓아가서 앞으로 밀 뿐 대중을 밟줄로 잡아끌지는 않는다.

그러나 소수는 보호되어야 한다. 소수는 변혁의 최초의 도구요, 다수의 자식이며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소수의 숨통을 막는 것은 단지 괴물을 키우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을 위하여 싸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이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은 자기 계급을, 자기 당을, 자기의 혁명적 의무를 속이는 것이다. 혁명적 지도 속에는 비겁함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 강한 신념과 자기의 판단에 대하여 자신을 갖지 못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 도덕적 용기야말로 혁명운리의 정수인 것이다. 자기 견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권리를 박탈하려는 자들에게 굴복할 때, 혁명가는 자기의 임무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타인을 억압하는 자치고 마음이 자유로운 자는 한 명도 없다. 깨진 돌이나 가장 연한 점토만 가지고는 절대로 돌비석을 만들 수가 없다. 살아 있는 인간과 강한 정신이 있어야만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요, 또한 자유로운 제후라고 하는 시멘트 이외에는 어떠한 접착제도 그것들을 결합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없다고 한다면 가장 연한 점토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다이너마이트로 변하고 말 것이다. 아치 꼭대기의 쌓기돌만으로는 아치가 세워질 수 없다. 좌우 양쪽의 지지가 없으면 붕괴되어 버릴 것이다. 자발적인 추종이 두려움에 가득 찬 복종으로 바뀔 때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다.

정당 안에서는 도덕적으로 용감하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남들을 따라가며 책임을 회피하는 편이 더 쉽다. 산꼭대기에서 홀로 있는 것은 유쾌한 일이다. 하지만 동지들 사이에서 홀로 있다는 것은 참으로 외롭기 짝이 없는 것이다.

그렇지만 도덕적 강도(強度)의 특징은 완고한 우둔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여러 조건과 함께 변화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있는 것이다. 인간정신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느 일정한 지점까지 가면 인간정신의 성장은 정지하고 그 이상 신장되지 않으며, 더 이상 새로운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미 옛날이야기인 10월 혁명에 대한 향수에 빠져들게 된다. 다음 세대에는 그 꺼칠꺼칠한 구레나룻을 깎이는 조롱을 당하기 전에 ‘구

볼셰비키’ 들은 자기네 레닌들과 함께 영광에 싸여 매장되는 것이 좋으리라.

주어진 다수의 투표는 반드시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러나 그 다수가 올바른가 올바르지 않은가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이다. 레닌 한 사람이 옳고 당 전체가 그를 수도 있다. 그러나 고독한 레닌 한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경우, 레닌이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전혀 오류를 범하지 않는 인물이기 때문에 옳은 것이 아니라 대중의 다수 의사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옳은 것이다. 또한 당이 그르다고 하는 경우, 그것은 당시 자기 밑에 있는 대중의 다수를 더 이상 대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민주적 의사표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지도력의 문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지만 그것이 억압당하고 있는 곳에서는 지도력의 문제가 위험하고도 어려운 것이다. 진정한 민주적 대중투표를 하면 잘못된 결정이 내려질 수가 없다.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투표를 실현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옳고 그름의 분계선은 유동적인 것이다. 급격한 역사적 변화의 시기에는 한때 옳았던 것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오류로 될 수도 있다. 대중운동에서 나타나는 변덕스러운 변화는 대중의 판단이 옳바르다는 증거인 것이다. 대중들은 변화를 진정으로 반영하는데, 이 변화야말로 진리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즉 변증법적인 것이지 기계적인 것이 아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올바른 평가에 도달하는 과정인 것이다. 또한 그러한 진동 그 자체가 변화를 낳는 한 요인이기도 하다.

사람은 오로지 경험을 통하여 비로소 올바른 판단을 배우고 또한 올바른 판단에 도달한다. 일정한 행동방침을 시험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방침을 발견하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다. 시험 결과 그 특정한 방침이 잘못이라는 게 입증된다면 그 시험 자체는 올바른 것이요, 올바른 것을 탐구하는 실험인 것이며, 따라서 꼭 필요한 것이다. 사회과학이라는 거대한 실험실에는 통제된 조건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의 시험관을 던져버리고 동일하게 주어진 요소들을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험관은 단 하나밖에 없으며, 그나마도 당신이 지켜보고 있는 사이에 그 내용물이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변화해 간다. 그대가 하는 일이나 실패하는 일이 모조리 그 혼합물 속으로 섞여들어가서 결코 다시는 원상복구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왔던 것은 아니었다. 1932년까지는 재판관처럼 딱 버티고 앉아서 무지비하게 ‘오류’를 규탄하기도 하고 훈련교관처럼 말쑥꾸러기들을 대열 속에 두들겨 맞추기도 하였던 것이다. 어리석은 지도와 어리석은 추종 때문에 사람들이 죽거나 운동이 깨지는 것을 보면 열화처럼 분노가 솟아올랐다. 나는 용서를 몰랐다. 한씨와 또 한



명의 조선인 당지도자가 1928년에 상해에서 심문받았을 때, 나는 그들이 왜놈첩자인가 배반자인가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았지만 불과 며칠 사이에 왜놈에게 1,000명이나 체포될 정도로 당 조직을 약하게 만들었다는 객관적인 범죄적 우둔함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관념론자였던 것이다. 나는 지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판단하였던 것이다. 이제 는 사람이라는 것이 두뇌 이외에도 여러 가지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혁명적 지도자는 좌익이다 혹은 우익이다 하고 늘어선 사람들의 머리통을 만지작거리는 것이 아니다. 인간생활의 소재를, 그 모든 동식물적인 특징을, 그 모든 가변적이고 계량 불가능한 속성을 가공하는 것이다. 혁명지도자는 여간해서는 깨뜨릴 수 없는 영혼과 아주 쉽사리 파괴될 수 있는 육체를 가공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이따금씩 육체가 파괴되어야만 한다. 리다자오나 평파이와 같은 인물 하나의 처형이 백만 명의 각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무엇이 정이고 무엇이 사인가, 무엇이 올바른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가 하는 것을 논함으로써 사람을 단죄하는 짓을 더는 하지 않는다. 내가 묻는 것은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이고 무엇이 낭비인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쓸데없는가,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부차적인가 하는 것이다. 다년간의 마음의 고통과 눈물을 통하여 ‘오류’가 필수적이며 따라서 선이라는 것을 배웠다. 오류는 인간 발전의 통합적인 일부분이며, 사회변화 과정의 통합적인 일부분인 것이다. 사람들은 말을 믿을 정도로 그렇게 어리석지가 않다. 사람들은 실험을 통하여 비로소 지혜를 배우는 것이다. 실험은 사람들의 안전장치이며 권리이다. 거짓을 배우지 않는 자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의 교과서는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피와 고통으로 쓰인 것이다. 사람들을 죽음과 실패로 이끌기는 쉽다. 그러나 승리로 이끄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비극은 인생의 한 부분이다. 억압을 딛고 일어서는 것은 한 인간의 영광이요, 굴복하는 것은 한 인간의 수치이다. 내게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제국주의전쟁 속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맹목적으로 포기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비극이다. 그것은 낭비인 것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억누르는 데 이용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내게는 비극이다. 그것은 어리석음이다. 자유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을 위하여 싸우다 의식적으로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다. 그것은 영광이요 장렬함인 것이다. 죽음은 선도 아니요 악도 아니다. 또한 죽음은 무익한 것도 아니요 꼭 필요한 것도 아니다. 스스로 믿고 있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싸우다 죽는 것은 행복한 죽음인 것이다. 나는 너무나 많은 인명의 낭비를 보아왔으며 결



국은 실패로 끝나고 마는 쓸데없는 희생을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나의 경우에는 이것을 철학적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은 늘 기억하고 있다. 혁명가들은 자기의 희생 속에서 행복하게 죽어가는 것이요, 그것이 무익하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행복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리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 청년시절의 친구나 동지들은 거의 모두가 죽었다. 민족주의자, 기독교신자, 무정부주의자, 테러리스트, 공산주의자 등등 수백 명에 이른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지금도 살아 있다. 그들의 무덤을 어디로 정해야 하는지 따위는 전혀 마음에 두지 않는다. 전장에서, 사형장에서, 도시와 마을의 거리거리에서, 그들의 뜨거운 혁명적 선혈은 조선, 만주, 시베리아, 일본, 중국의 대지 속으로 자랑스럽게 흘러들어갔다. 그들은 눈앞의 승리를 보는 데는 실패했지만 역사는 그들을 승리자로 만든다. 한 사람의 이름이나 짧은 꿈은 그 뼈와 함께 묻힐지도 모른다. 그러나 힘의 마지막 저울 속에서는 그가 이루었거나 실패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불사성(不死性)이며, 그의 영광 또는 수치인 것이다. 자기 자신이라 할지라도 이 객관적 사실은 바꿀 수가 없다. 그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 무엇도 사람이 역사라고 하는 운동 속에서 점하는 자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그 무엇도 사람을 빠져나가게 할 수가 없다. 유일한 그의 개인적 결정이라고는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굴복할 것인가, 가치를 창조할 것인가 아니면 파괴할 것인가, 강해질 것인가 아니면 나약해질 것인가 하는 것밖에 없다.”





#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임시정부의 발자취에서 찾고자 했던 ‘역사에 사는 삶’



배 상 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 1. 들어가며

2016. 7. 12. 드디어 대한민국 육군에서 명예로운 전역을 하고 오전에 효창공원에 위치한 백범 김구 선생의 묘지를 참배했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내가 평소에 가장 존경하는 분이기도 했었고, 전역 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만큼 앞으로의 삶에 대한 나만의 강한 다짐과 결의를 하고자 김구 선생의 묘지에 갔었다.

지금으로부터 한 세기 전, 우리 조국은 일본 제국주의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되었다. 조국의 주권은 강탈당했고, 전 국토는 일제에 의해 유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도자들과 지식인, 그리고 청년들은 두 가지 선택지에 놓이게 된다. 첫 번째 길은 일본 제국주의의 통치에 협력하고 타협하여 일제의 보호 아래 일정 수준 이상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삶이다. 또 다른 길은, 일제와의 일체의 타협을 거부하고 만주, 연해주, 상하이 등 중국 각지로 떠나서 조

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독립투쟁에 나서지만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의 목숨은 언제든 지 잃을 수 있는 삶이다. 여기서 백범 김구 선생을 위시한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과 청년들은 첫 번째 길을 택하지 않고, 조국의 독립이라는 그저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내려놓는 두 번째 길을 선택했다. 그리고 마침내 조국의 광복은 꿈이 아닌 현실이 되었다.

한 세기가 지나고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그때와 시대적 상황만 다를 뿐 걸어가는 삶의 줄기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득권에 안주하여 자신의 입신영달과 경제적 이해관계에만 매몰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이웃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결국 현실에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역사에 사는 삶을 살 것인가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찾고 답해야 하는 중요한 물음이 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주관하는 제 12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위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자, 어떤 삶을 걸어 나갈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가치관의 여정이기도 하다. 우리 12기 독립정신 답사단은 임시정부가 상하이를 떠나 장사, 광저우, 유주, 기강, 그리고 충칭에 이르기까지의 발자취를 6박 7일간 찾아 나섰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답사는 나의 마음을 무척이나 설레게 만들었다. 그 설레고 보람 있었던 7일간의 여정을 기행문으로 담아 보았다.



전역일에 효창공원에 있는  
백범 김구 묘지를 참배한 나

## 2. 6박 7일간의 여정

### ① 7. 15 답사 첫째 날

답사 첫째 날이다. 무척 설레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빠른 수속을 마치고 4시간 반 넘는 비행 끝에 광저우 국제공항에 답사단 전원이 무사히 도착하였다. 광저우의 공기는 뜨거웠다. 숨이 막힐 만큼의 찜통더위는 한국의 더운 날씨와 비견될 수 없을 만큼 더웠다. 하지만

답사단 전체의 뜨거운 열정을 이길 수는 없었다. 우리는 중국 식당에서 간단히 점심을 먹고 첫 답사지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광둥혁명역사박물관으로 향했다. 우리 12기 독립정신 답사단장인 한시준 교수님의 두근거리는 설명이 이어졌다. 광둥혁명에 대한 사전 지식을 한국에서 자료 조사를 통해 공부해온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내심 박물관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아는 내용이 나올 때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광둥 혁명은 사실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내부 갈등으로 표출된 봉기였다. 당시 국민혁명군 제2 방면군 장파웨이 부대 소속 교도단이 광둥지역에 진입했었는데, 공산당 탄압으로 급선회하면서 중공광둥성위원회에서 무장봉기하기로 결의하였다. 그리고 12월 초 광둥성 일원에서 선원, 노동자들의 파업과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다. 당시 봉기군의 병력은 교도단 일부, 무장노동자와 군중을 포함하여 5천명에 달했다. 그러나 영, 미, 프, 일본의 군함이 봉기군 진지를 향해 함포사격을 하고 국민당 군대가 반격을 하게 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고 결국 3일 만에 봉기는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광둥 혁명으로 인해 상당수의 한인혁명가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 당시 800명이 넘는 진보적 한인혁명가들이 광둥 혁명에 참여하고 합류했다는 사실을 통해 국민당보다 공산당의 정책 노선에 더 매력을 느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국민당 정부는 서구 제국주의의 세력에 등을 입고 일본 제국주의와 타협을 시도하려고 했던 반면에 공산당은 반외세, 계급타파, 토지혁명, 민족해방 등을 내세웠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독립투쟁을 전개했던 한인들에게는 공산당에 합류하여 일본과 싸우는 것이 더 조국의 광복에 가까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렇게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광둥혁명에 참가하여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던 조선인 청년들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광주기의열사능원에 있는 중-조 혈의정을 방문하였다. 당시 150명에 달하는 조선의 청년들이 조국의 광복을 맞보기도 전에 그것도 일본군과 맞서다 죽은 것이 아니라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내부충돌로 인해 희생되었기에 더욱더 안타깝게 다가왔다. 다행히도 중국 공산당 정부가 광주기의에 참여하여 희생된 조선 청년들을 기리는 정자를 만들었다. 정자 안에 있는 돌 비석에 ‘중국과 조선 두 나라 인민이 싸움으로 맺은 우의는 길이 빛나리라.’ 라고 쓰여 있었다. 비석에 쓰인 말 그대로 항일투쟁에 있어서 혈맹으로 맺어진 한중간의 우의가 최근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로 인해 금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그렇게 중-조 혈의정에서 답사단원들과 함께 희생된 조선인 청년들을 추모하고 나서 비석의 내용을 읽는 시간이 있었다. 한시준 단장님의 설명이 끝나고 나서 임시정부기념사업회 곽태원 부회장님께서 중국어로 한번 읽어볼 것을 나에게 제안하여 당혹스러웠

다. 중국에 10년 이상 살았던 유학생들이 많았기에 나의 중국어 실력이 한참 부족하여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서 중국어로 읽었다. 부끄러움에 맞서서 용기를 내는 것, 그것은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일이었지만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였다. 그렇게 내 자신의 용기에 스스로를 격려하며 다음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광둥혁명에 희생당한 열사를 기리기 위한 기념비  
(광주기의열사능원)

그 다음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바로 손문대총통관저가 있는 월수 공원이었다. 손문은 중국 정부와 대만(타이완) 모두에게 존경받는 국부(國父)이다. 손문은 그 유명한 삼민주의를 제창하면서 2000년간 이어져왔던 봉건적인 왕조 국가를 타파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적 국민 국가의 수립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했다. 1911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신해혁명의 성공으로 전제군주제는 역사에 막을 내리고 중화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었다. 이후 손문을 포함한 혁명세력은 국민당을 창당하고 의회정치의 실현을 주장하며 위안스카이의 북경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이후 손문이 죽고 그의 후계자였던 장제스가 1920년대 중국 국민혁명을 통해 난립해있던 중국 각지의 군벌들을 정벌하고 통일을 이룩하였다.

손문의 혁명정신은 중국 국민당뿐만 아니라 공산당까지 계승되어 삼민주의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강령의 토대가 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손문이 중국 현대사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인 만큼, 손문이 과거 대총통으로 취임하며 머물렀던 관저에 대한 보존이 잘 되어있었다. 임시정부 요인이었던 신규식이 손문을 상대로 임정의 승인과 독립운동



손문대총통관저에서 한시준 교수님의 열정적인 설명

의 지원을 요청하며 회답을 이곳에서 했기에 임시정부와의 인연도 인상 깊었다. 당시 관저의 건물은 없어졌지만 지금은 월수공원으로 조성되어 그 자리에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글귀에는 총리유촉, 즉 손문이 죽으면서 죽은 뒤를 부탁하는 내용이 있었다. 한시준 교수님이 이에 대해서 손문의 유촉을 많은 중국 청년들이 암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이 상당히



높다는 자세한 설명을 해주었다. 아직 한자실력이 뛰어나지 않아 전부 해석을 못했지만 유창하게 해석을 하시면서 기념비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설명해주시는 한시준 단장님을 보면서 나도 한문 독해 능력을 더 높여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중국 역사 문헌이 대부분 한자와 중국어로 적혀있기 때문에 심도 있는 역사 공부를 위해서는 외국어 능력이 나에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자극을 받으며 그렇게 답사 첫째 날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호텔로 이동한 후 발대식을 가지게 되었다.



손문대총통관저(월수공원내)에 있는 손문의 유촉  
(죽은 뒤를 부탁하는 내용)

발대식에서는 단장님과 부회장님의 간단한 인사말과 출정 선언문의 낭독, 그리고 한시준 단장님의 강연이 있었다. 한시준 단장님의 1시간 넘게 진행된 강연은 무더운 날씨 속에 새벽부터 공항에 모이고, 광저우의 여러 답사지를 들리며 강행군을 소화한 우리들의 피로감을 잊게 할 만큼 흥미진진했다. 내용은 카이로 선언에 관한 것이었는데, 강연을 듣기 이전에는 카이로 선언에 담긴 한국의 독립 약속이 임시정부가 중국 장제스와의 치열한 협상과 노력 끝에 맺어진 산물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카이로 선언에 담긴 한국의 독립 약속 문구에 임시정부의 눈물겨운 노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임시정부의 최대 성과이자, 가장 잘한 일 중 하나라는 한시준 단장님의 주장에 공감할 수 있었다. ‘역사에도 정의가 존재한다.’는 단장님의 마지막 울림은 나의 가슴 깊숙이 뜨거운 열정과 만나며 불타올랐다. 친일과 청산,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그 후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대우,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마음속으로 희망하며 아쉬웠던 답사 첫째 날을 마무리 하게 되었다.

## ② 16. 7. 16 답사 둘째 날

답사 둘째 날이 밝았다.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다음 답사지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했다. 다음 답사지는 황포군관학교였다. 사실 조별과제 발표 주제가 황포군관학교였기 때문에 중국에 오기 전에 미리 자료검색을 하면서 황포군관학교의 창설 배경과 한인입교 현황 등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렇게 배경지식을 습득하고 나서 실제로 황포군관학교에 가보니 훨씬 도움이 되었다.

황포군관학교는 중국 국민혁명에 필요한 간부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1924년 중국 광저우에 설립된 군사교육기관이다.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제1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고 나서, 군벌세력과 반봉건세력을 타파하기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쳐 국민혁명이라는 대업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그렇기에 황포군관학교는 국민당 중앙집행위원회의 주도 아래 공산당이 함께 참여하는 공동 결실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손문이 총리였고, 장제스가 교장이었지만 정치부 부주임은 중국 공산당의 저우언라이가 담당하였고, 교육부 부주임도 중공의 유력 인물인 예젠잉이 참여하였다. 그러나 국민당과 공산당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세력 확장으로 대립하였고 그 국공분열의 결과 파국으로 끝나 얼마 지나지 않아 황포군관학교는 폐교되고 말았다. 이러한 창설배경과 대립, 그리고 파국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황포군관학교 전시관에서 사진 자료들을 보면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황포군관학교를 둘러보면서 가장 놀라웠던 점은 중국 정부와 시당국이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한 한인들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이다. 전시관 내부에는 별도로 황포군관학교 한인 졸업생들의 명단과 현황, 그리고 졸업 후 항일활동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었다. 그리고 임시정부와의 연계성도 처음 접한 부분이었기에 흥미로웠다. 실제 한인의 황포군관학교 입교는 임시정부의 핵심적 요인이었던 조소앙, 박찬익 등의 활약 덕분에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로 인해 200명이 훨씬 넘는 수많은 조선인 항일 운동가들이 황



황포군관학교에서 찍은 단체 사진

포군관학교에서 군사 교육을 받고 졸업 이후 항일투쟁에 가담할 때에도 동학(同學)이라는 인연으로 중국 정부의 많은 도움을 받으며 항일독립투쟁을 지속할 수 있었다. 우리가 많이 아는 의열단장이자 조선의용대 대장이었던 약산 김원봉도 황포군관학교 제4기 졸업생 중 하나였다. 그리고 광복군 총사령부 참모, 국민혁명군, 조선민족혁명당 등 다양한 조직에서 다방면의 활약을 하며 한중 연합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졸업생들이 눈에 띄었다.

이렇게 황포군관학교 한인 졸업생들이 걸어간 발자국은 제각각 달랐지만 조국의 광복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와 지향점은 모두 같았다. 조국의 광명을 되찾기 위해 나와 나이가 비슷한 20살에 지나지 않는 청년의 시기에 중국으로 건너가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이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가슴 벅차올랐다. 그리고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황포군관학교에 입교하고 중국 공산당에 합류한 젊은 청년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하루빨리 조국이 통일이 되어 사회주의 계열에 몸을 담으며 혁명정신이 투철했던 조선 혁명가들에 대한 역사적 서술과 재평가가 이루어져 한국 독립운동사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고, 항일의 역사를 바로 세웠으면 한다.

그 다음 들렀던 곳이 광저우에서 조금 멀리떨어져있는 포산에 있는 불산임시정부가죽거주지였다. 하지만 불산임시정부가죽거주지는 옛 자취를 감추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단지 이 거리에서 예전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이 잠시 머물렀다는 것만 추측할 뿐이었다. 독립운동의 흔적은 없고 아쉽게도 보존이 되어있지 않았지만 한시준 단장님께서 이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생생하게 들려주었기에 그것으로 위안을 삼아야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잠깐 불산역에 들리고 나서 단체사진을 찍은 다음에 중산대학으로 향했다.

중산대학은 손문이 1924년에 설립한 학교이고, 지금도 중국의 학생들도 한국의 유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당시 손문은 한국 학생들의 학비 감면과 생활비 제공을 통해 한국 독립운동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중산대학은 황포군관학교처럼 한중 간의 항일투쟁 역량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큰 의의가 있다. 실제로 중국 국민당의 배려로 수많은 한인 청년들이 중산대학에서 수업을 들



중산대학교에서 있는 대학 슬로건이 인상적이다.

을 수 있었고, 이후 독립운동 단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다. 한편, 중산대학의 캠퍼스를 직접 가보니 중국 대학 특유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3년 전에도 북경사범대학에 1달간 어학연수를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학교 분위기와 흡사했다. 특히 중산대학만의 슬로건이 조형물에 크게 새겨져있었는데 매우 인상적이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한 번 더 중국에 있는 대학교에 어학연수를 가고 싶을 만큼 캠퍼스의 낭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이제 중산대학 방문일정을 마치고 다음 장소로 향한 곳은 바로 임시정부가 광저우로 피난을 오면서 청사로 사용했었던 동산백원이었다. 지금은 동산공원으로 바뀌어 예전의 청사 모습을 볼 수 없어 무척이나 아쉬웠다. 일본군의 공습이 너무 심해 임시정부가 3개월 밖에 머물지 못했다는 한시준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일본군에 쫓기며 풍찬노숙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독립투쟁을 했던 임시정부 요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에 가슴이 아팠다. 조국이 없어 외국에서 떠돌면서도 언제나 일제의 감시와 폭력에 한 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늘 가슴을 조이며 살아야했던 임시정부의 고뇌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했다. 한편, 이곳에서 우리는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생겼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열심히 촬영하시던 김소진 PD님의 향방을 아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다. 한 시간 넘게 구석구석을 다니며 PD님을 애타게 찾았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게 망연자실하게 있다가 결국 PD님을 찾기는 찾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김소진 PD님은 다음 답사지로 이동할 때마다 가장 먼저 찾는 요주의 인물이 되고 말았다. 아무튼 여행답사 중에 이런 에피소드가 나중에 여행의 재미있는 추억으로 기억되는 것 같다.

동산백원을 끝으로 답사 둘째 날의 공식적인 답사 일정은 마무리하고 저녁을 먹은 후 광저우 야경을 구경하고 야간열차를 타기 위해 기차역으로 향했다. 광저우에서 장사역까지 야간열차를 타고 이동했다. 야간 열차 안에서 샤워를 할 수 없었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도 아니었지만 답사단원들과 함께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겼다. 언제 한번 중국 야간열차에서 잠을 자보겠는가? 그렇게 답사단원들과 밤늦게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가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고 다음날 아침에 장사역에 도착하게 되었다.

### ③ 7. 17 답사 셋째 날

우리는 야간열차를 타고 장사역에 도착했다. 제일 먼저 간 곳은 상아의원이었다. 상아의원도 앞선 불산 임시정부가죽거주지처럼 옛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공사 중인 새 건물만을 멀리서 바라본 채 발걸음을 무겁게 돌릴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상아의원은 임시정부



역사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곳이다. 상아의 원은 1932년 윤봉길 의거 이후 침체되어있던 임시정부의 활기를 불어넣고 중국 국민당의 공식적인 지원과 지지를 받아낸 백범 김구 선생이 수술을 받고 기적적으로 회생한 병원이었다. 1937년 7월 7일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 이후, 야만적인 제국주의를 중국 대륙까지 뻗고 공습이 계속해서 이어지자 임시정부를 장사로 옮기게 되었다. 임시정부는

1937년 12월부터 1938년 7월까지 머물렀는데 그때 당시에는 3당 통합 문제가 한참 대두되고 있었다. 그래서 조선혁명당 본부에서 김구, 지청천, 조소앙, 유동렬 등이 모여 3당 통합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그때 조선혁명당 소속의 이운한이 충기를 난사하여 여러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상과 부상을 입게 되었다. 현익철은 그때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김구, 지청천, 유동렬 등은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그때 중국 국민당 장제스는 특별 지시로 치료를 후원하여 김구 선생을 반드시 살리라는 특명을 보내왔고, 이후 장제스 측근들이 여러 차례 병원에 직접 찾아오면서까지 한중간의 깊은 우의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결국 김구 선생은 수술을 받고 회생했다. 이러한 역사적 공간을 실제로 볼 수 없었지만 한시준 단장님의 열정적인 설명으로 만족하고 아쉽게 발걸음을 뒤로 옮겼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구지인 남목청을 가게 되었다. 태어나서 한번도 가지 못했던 임시정부 청사를 처음으로 가보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상하이와 충칭에만 임시정부 청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사에도 청사가 있다. 짧은 시일이었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구지(남목청)안에 있는 김구 선생의 흉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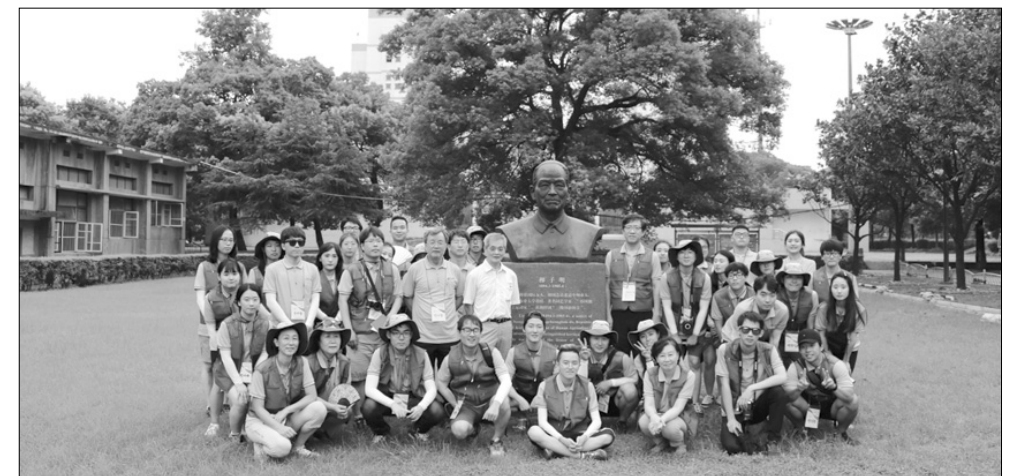


상아의원의 현재 모습이다. 현재 공사 중인 건물로 인해 상아의원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곳 남목청에서 3당 통합 회의를 하고 조선혁명당 본부로 지정하여 꾸준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었다. 그동안 남목청은 계속 방치되어 있다가 이러한 역사적 중요도를 고려하여 중국 청사시 인민정부의 노력으로 남목청을 시급 문화재로 지정하고 2009년에 그 당시 썼던 물건들을 그대로 진열하고 복원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건물 내부에는 당시 한국광복군 총사령관이었던 지청천의 침실과 서재

가 방 한 칸에 따로 있었고 그 외에도 김구 선생 흉상, 회의실 등이 잘 보존되어 있었다. 그리고 남목청 입구부터 한국 관광객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한국어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구지(남목청)'이 적혀있었다. 그동안 답사를 계속하면서 중국어만 있어서 언어적 장벽을 느꼈지만 남목청은 입구부터 전시관 내부까지 한국어로 설명이 되어 있어서 마음의 고향처럼 편안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임정 기념사업회가 보관하고 있던 김구 선생의 친필 휘호를 당시 남목청에 전달하는 간단한 행사가 열렸다. 그때 우리 임시정부 답사단원이었던 3조의 한지연 누나가 남목청 중국 직원의 짤막하지만 의미있는 답사(答辭)를 통역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개별 단체사진과 전체 촬영을 마치고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음 답사지로 이동하게 되었다.

그 다음은 유자명기념관이었다. 사실 유자명기념관에 가기 전, 유자명 선생이 중국에서 그렇게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유자명기념관 근처에 동상이 있었다는 점이었다. 중국에서는 인물 동상을 짓기 위해서는 중국 중앙 정부와 시당국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 특히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제에 반대되는 사람들이나 외국 인물의 경우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처럼 중국에서 매우 유명한 정치 인물이 아니면 동상을 짓기가 매우 어려운데 유자명 선생의 동상이 세워져있는 것을 보고 중국이 인정할만큼 대단히 영향력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몸소 체감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 백범 김구 선생과 유자명 선생의 동상 이외의 한국인 동상 허용이 거의 제한적이라는 한시준 단장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유자명 기념관 옆에 있는 유자명 선생의 비석이다.

유자명기념관에 도착하니 유자명 선생의 아들분이 직접 나오셔서 우리 답사단 전원을 환영하였다. 기념관 건물은 상당히 노후 되었지만 유자명이 걷고자 했던 길은 결코 노후 되지 않았다. 3.1 운동 이후 의열단에 가입하고 아나키스트, 즉 무정부주의자로 활동하며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에 가담하였다. 유자명 선생은 단지 무정부주의자로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1942년 임시정부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당선되어 임정 요인으로도 활약했었다. 게다가 삼균주의로 유명한 조소앙과 함께 헌법기초의원으로서 임시정부 헌법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해방 이후에도 중국 국적을 갖지 않고 오로지 통일된 조국을 꿈꾸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중국의 호남대학에서 농학자의 길을 걷다가 병사를 하게 되었다.

유자명기념관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전시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남북한 정부 양국이 유자명 선생에게 추서한 훈장이었다. 유자명 선생은 북한이 추서한 훈장이 가장 먼저 소개되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훈장과 메달이 있었다. 이를 통해 중국이 주변국과의 관계 서열에서 아직은 대한민국보다는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우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중국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인적 교류도 1000만 명을 이미 넘어설 만큼 한중간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지만 여전히 중국은 북한이 차지하는 전략적 가치와 상호간에 공유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더욱 중요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나마 피부에 와닿을 수 있었다.

유자명기념관을 끝으로 답사 셋째 날의 공식적인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호텔에 도착하고 나서 샤워를 했는데 하루 전날 야간열차 탑승으로 전신 샤워를 못했기에 답사 셋째 날 호텔에서 따뜻한 물로 전신 샤워를 한 15분의 시간은 정말 태어나서 가장 개운한 역대급 목욕이었다. 이렇게 공식적인 일정은 마무리되었지만 호텔에서 지정과제 조별 발표와 답사단의 밤의 조별 연극 준비로 인해 밤늦게까지 모여서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잠에 들 수 있었다. 상당히 빡빡한 하루였다. 연일 계속되는 강행군과 장기간의 이동 시간으로 우리 모두 피곤했지만 독립운동 유적지를 내일도 볼 생각에 들떠 있었다.

#### ④ 7. 18 답사 넷째 날

답사 넷째 날의 아침이 밝았다. 드디어 유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진열관에 들리게 되었다. 유주는 임시정부가 광저우를 떠나 기장으로 가기 전에 5개월가량 잠시 머무른 도시였다. 처음부터 장기간 체류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장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구지인 남목청처럼 큰 청사는 없었다. 대신에 임정 요인들이 거주했던 곳으로 추정하는 곳에

한국의 독립기념관과 유주 인민정부의 협조로 작은 항일투쟁진열관을 조성하여 임정의 항일투쟁역사를 소개하고 있었다.

시기적으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류저우에서의 임시정부 활약상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민족주의 우파 3당의 통합 노력을 기울이는 등 독립운동에 있어서 구심점의 역할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을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결실이 맺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독립당이 주체가 되어 만든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이다. 이 단체는 나중에 1940년 임시정부가 총칭에 정착하고 9월 17일에 창설한 한국광복군의 전신이기도 했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는 전투 편제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대일 선전, 가두행진, 연극, 일본인 포로 심문 등 공작활동과 선전활동을 하며 항일의식의 고취에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활동이 유주 항일투쟁활동진열관(전시관)에 잘 나와 있었다. 그리고 이 단체가 1939년 4월에 류저우를 떠나고 기장으로 이동하기 전에 유주에 있던 각 기관 단체 대표들과 함께 이별사진을 찍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유후공원이라 답사단원 모두가 그곳으로 함께 가게 되었다. 하지만 유후공원도 아쉽게도 옛 모습이 남아있지 않고 단지 이곳이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류저우를 떠나기 전에 단체사진을 찍은 장소로 추정하고만 있을 뿐이었다.

이제 류저우에서의 답사 일정을 마치고 계림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계림은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중 하나이다. 아름다운 산수와 도시의 변화함을 절묘하게 접목된 계림은 야경이 그 절정을 이룬다. 중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슬로우시티 12개 중 첫 번째인 계림의 첩재산을 가게 되었다. 횡단된 산위의 반위가 첩첩이 붙어있어 마치 천연색 비단이 쌓여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 바로 '첩재산'이다. 영상 40도에 육박하는 무더운 날씨에 조금만 걸어도 땀이 줄줄 나는 높은 습도였지만 첩재산 정상인 명월봉에 올라 계림시 전체를 내려 본 풍경은 그야말로 환상적이었다. 낮은 도심 건물들 사이에 여기저기에 솟아 있고 병풍처럼 드리운 겹겹의 봉우리들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 듯 했다. '桂林山水甲天下(계림의 산수가 천하의 제일이다.)'라는 말이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았다. 너무 더워서 10위안을 주고 산 부채에도 위의 문구가 적혀있었는데 그 표현에 자연스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다.

이제 계림에 있었던 조선의용대 본부 터를 가기 위해 이동을 하였다. 조선의용대는 내가



유주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투쟁진열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다.



계림으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답사단원들 앞에서 지정주제 발표를 했던 주제이기도 했다. 그렇기에 발표준비를 위해 많은 시간을 조선의용대 공부에 할애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가 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원래 1938년 10월 10일 무한에서 조선민족혁명당 등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좌파가 함께 결성한 군사조직단체였다. 1937년 일제의 야만적인 중국 침략 이후 반파시스트에 맞설 국제의용군 조직의 필요성이 중국 내부에서 대두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 대만,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반파시스트동맹의 일원으로 한국의 조선의용대 창설을 승인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조선의용대를 조직하려고 했던 약산 김원봉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결국 지도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반파시스트동맹의 소속이 아니라 중국 국민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소속으로 지휘권은 장제스에게 있지만 독자적인 지도권을 조선의용대가 가져가는 절충적 성격으로 조선의용대가 창설되었다. 조선의용대는 전투부대가 아니라 항일 선전활동을 주로 담당하며 일본인 포로 수용 및 심문, 정보수집, 〈조선의용대통신〉 잡지 발간, 집회 참석, 그리고 연극 등을 통하여 한중간의 연합 항일투쟁을 수행하였다.

그렇게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무한에서 결성된 조선의용대가 계림으로 이동하여 본부를 세우고 약 2년 넘게 활동을 했기 때문에 계림의 조선의용대 본부 터는 자료조사와 발표준비를 하면서부터 실제 답사지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했다. 발표를 할 때에도 우

리 모두가 조선의용대 대원이 되어보자는 말을 맨 처음 서두에 꺼냈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조선의용대 본부 터인 칠성공원으로 가게 되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조선의용대 본부 터도 옛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중국 사람들이 휴식하고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일반적인 공원의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저 평범하고 일상적인 공원으로 보이는 그 곳에서 조선의용대원들의 모습을 떠올리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자료 조사를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그때의 시절로 들어가 감정이입을 하고 한시준 단장님의 상세하고 친절하 설명을 들으면서 독립정신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 ⑤ 7. 19 ~ 7. 21 답사 다섯째 날 / 여섯째 날 / 귀국

답사가 점점 후반부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계림을 떠나 충칭으로 이동했다는 것은 이제 충칭에서의 마지막 밤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미했다. 임시정부는 1939년 4월에 유주에서 이동하여 기강에 도착한 후 충칭에 정착하기 전까지 2년의 시간을 기강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렇기에 기강에도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가 있었다.

한편, 다음 장소였던 기강박물관에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대한민국임시정부 전시관이 보이는 이들로 하여금 뿌듯함을 느끼게 하였다. 중국 측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이 너무나도 잘 드러난 전시관이었기에 더욱 애착이 가서 오래 머물렀던 것 같다. 기존의 다른 중국 지방의 임시정부 전시관과 특별한 차이는 없었지만 박물관 내부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임시정부의 활약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다루고 있었기에 중국 내의 임시정부의 위상을 다시 한번 더 체감할 수 있었다.

답사 다섯째 날은 계림에서 기강까지의 긴 이동시간 때문에 여러 독립운동 유적지를 가지 못했다. 하지만 충칭에 도착한 여섯째 날은 달랐다. 한국으로 떠나는 하루 전날이기도 했고, 그토록 교과서와 신문으로만 봤던 충칭의 임시정부 청사를 보러 가는 날이었기에 가장 기대되고 가슴이 저절로 뛰었다. 일단 충칭 임시정부 청사는 이 날 맨 마지막에 갔었다. 원래 하이라이트는 매일 마지막에 나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처음에는 도쿄 한인촌으로 향했다. 도쿄 한인촌구지라는 표지석만 작게 남아 있었다. 임시정부가 중국의 전시도시였던 충칭으로 옮긴 후 정착을 했었는데 이때 충칭의 땅을 일부 사서 그 임정 요인들의 가족들이 거주할 수 있게 하였다. 100명이 훨씬 넘는 임정 가족들이 도쿄 한인촌에서 거주했지만 지금은 도시개발로 인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집 1채만 남아 있고 나머지는 아예 자취를 감추었다. 그것



조선의용대 본부 터(단체 기념사진)

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도 마찬가지였다. 한국광복군이 임정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도를 고려한다면 보존이 안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의외였고 안타까웠다.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는 자체적으로 광복군 창설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충칭까지 계속해서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군대를 창설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결국 1940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충칭에 정착하고 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하게 되었다. 1941년 일본이 진주만 기습 공격을 하며 태평양전쟁을 일으키자 일본에 대일본선전포고를 하고, 김원봉이 이끄는 조선의용대 본군을 편입시켜 광복군 전력이 크게 증강되기도 하였다. 또한 이에 그치지 않고 CIA의 전신이라고 하는 미 OSS군과 함께 국내진공작전을 계획하기 위해 일부 광복군 청년들과 함께 특수훈련을 3개월가량 받기도 하였다. 물론 국내진공작전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며 패망하여 실현되지 못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이 ‘이 소식은 내게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다. 수년 동안 애를 써서 참전을 준비한 것도 모두 허사로 돌아가고 말았다.’고 말했던 것처럼 한국의 국제적 발언권이 약해질까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백범 김구 선생이 우려했던 것처럼 광복 후 한반도는 미, 소의 냉전적 질서에 의해 분단이 되었고 지금까지 그 분단의 장벽을 극복하지 못했다. 이제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우리들의 시대정신이자, 과제로 남게 되었다.

이제 드디어 답사단원들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다리던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도착하였다. 교과서로만 보던 중경의 임시정부 청사에 실제로 도착하니 깊은 감회에 젖게 만들었다. 일군에서 탈출하여 6천리를 걸으며 충칭까지 걸어왔던 장준하 선생이 임시정부 청사에 높이 휘날리는 태극기를 바라보며 안으로 울음을 삼켜가며 놀랐던 그 감격이 어땠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만 같았다.

충칭 임시정부 청사의 면적은 넓었으며 당시 임시정부 원형 그대로 복원되어 있었다. 한시준 단장님의 설명이 이어졌다. “세상에는 돈을 버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돈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있지만, 역사로 돈을 버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국과의 수교 이전에 한시준 단장님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역사학자가 중경시 시장과의 저녁 식사에서 한 말이었다. 이 말을 듣고 중경 인민정부는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헐지 않고 복원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것



토쿄 한인촌(한인거주엿터)에 표지석만 남아 있다.

이다. 그 결과 1994년 독립 기념관과 중경시 대외인민우호협회가 중경 임시정부 청사 복원 협정을 체결하고 1995년 복원을 완료했다.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나서 말 한 마디가 역사를 바꿀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중경에서 가장 완벽하게 보존된 역사 유적지인 임시정부 청사 복원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실현된 것이 아니라 중경 인민정부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서 상호간의 역사적 인식을 함께 공유하였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함께 맞서고 저항했던 항일의 역사를 한중 양국 국민들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이를 기억하려는 노력의 산물이 중경 임시정부 청사의 완벽에 가까운 복원과 보존으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한시준 단장님과 중경 임시정부 청사에 근무하시는 직원들의 설명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답사단 전원이 함께 임시정부 청사에서 독립군가를 부르며 임정 요인들이 환국하기 전 찍었던 대열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그때 눈물이 울컥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과 설움이 함께 교차하는 듯 했다. 기념사진때 펼쳤던 태극기가 휘날릴 때 나의 뜨거운 숨결이 휩싸여 안겼다. 나라 없는 설움을 디디고 일어선 임시정부가 우리의 역사였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 그 가슴 북받치는 설움과 기쁨은 어느새 감격의 눈물로 바뀌어 내 눈가를 축축이 적시게 만들었다. 눈물을 삼키고 충칭 임시정부 청사를 떠나야만 했던 그 아쉬움을 아직도 잊을 수 없다. 방명록에 글을 남기고 선열들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찍은 기념비적 단체사진



의 고귀한 독립정신을 한국에 돌아가서도 바로 세워야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고 역사에 사는 삶을 살겠다는 강한 결의를 하고나서야 청사 건물을 간신히 떠날 수 있었다.

답사단의 밤에는 퀴즈 대회와 수료증 지급, 그리고 조별 장기자랑 시간이 있었다. 내가 속한 2조는 1905년 을사조약 체결부터 1919년 상하이에서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통합 출범까지의 과정을 연극으로 담아 발표하였다. 많은 준비와 노력이 있었기에 전체 종합 순위에서 1등을 수상하면서 좋은 결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그렇게 답사단의 밤은 저물어갔지만 조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답사단원들과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며 충칭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내고 그 다음날 인천 국제공항으로 귀국하여 6박 7일간의 독립정신 답사 여정을 마무리하였다.



답사단의 밤에 수료증을 받고 있는 나

### 3. 맺으며

내가 맨 처음 기행문 서두에서 이번 독립정신 답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고민해보는 가치관의 여정이라고 제시하였다. 임시정부의 뿌리를 찾아나서는 여정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아나서는 여정이기도 하다. 임시정부가 꿈꾸었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임시정부가 세우고자 했던 독립정신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는 중국 광저우에서 장사, 류저우, 계림, 기강, 그리고 충칭에 이르기까지 독립운동 유적지를 답사하면서 계속해서 나에게 던진 질문들이었다.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정신은 무엇일까? 시시각각 급변하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속에서 분단국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운명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 앞으로 20~30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 광복 100주년이 되는 2045년의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까?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준비해야 한다. 그리고 일어서야 한다. 과거 100여년 전, 언제 올지도 모르는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 중국 각지에서 풍찬노숙하며 힘겹게 항일투쟁을 전개했던 당시 조국의 청년들과 독립운동가들. 그들의 청춘과 삶을 맛바꿀만큼 조국의 가치는 그렇게 무겁고 엄숙했던 것일까? 지금의

우리들은 과거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친 선열들만큼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안타깝게도 경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공동체의식과 윤리의식의 부재가 우리 사회와 청년들의 의식을 강하게 지배하고 있다. 어떻게든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와 배금주의, 출세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출세주의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내 이웃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배려는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우리는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이번 12기 독립정신 답사를 갔다온 답사단원들의 마음 속에 내가 살아온 방식에 대한 성찰과 고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굳은 다짐과 가치관의 변화가 찾아왔다면 그것이야말로 독립정신의 발자취를 찾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립정신을 세우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우리 각자가 독립운동가들이 걸어온 길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다.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걷고자 하는 길과 다른 길을 한번 걸어가는 것이다. 험난하고 힘들겠지만 희망을 가슴에 품고 역사에 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불의와 현실에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며 역사에 사는 삶. 그런 삶이야말로 과거 자신이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청춘을 바치며 끝까지 불의의 현실과 타협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뿌리인 임시정부의 발자취를 찾아 나선 6박 7일간의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할 때이다. 나는 오늘도 그 답을 찾기 위해 살아가고 있다. 



독립정신 답사단 해단식때 찍은 단체 사진

## “광야에서 역사를 마주하다”



홍 석 천  
원광대학교 사학과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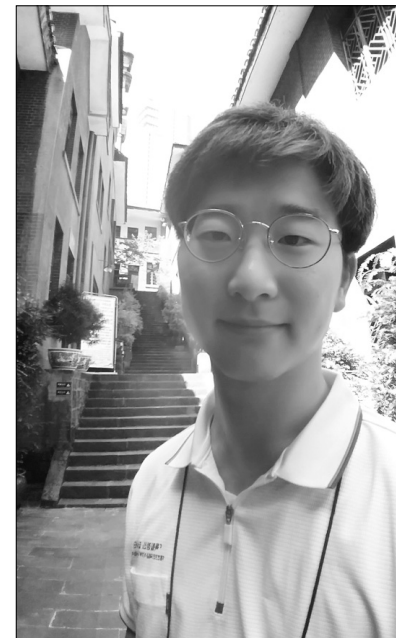
“찢기는 가슴 안고 사라졌던 이 땅의 피울음 있다. / 부동킨 두 팔에 쏘아나는 하얀옷에 핏줄기 있다...”

지난 7월 15일~21일, 설렘과 기대를 가득 안고 떠났던 제12기 『독립정신(獨立精神)』 답사단원으로서의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 이하 임시정부) 사적답사(史跡踏査)’, 그러나 처음 출발하기 전부터 마음속에서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었던 막연한 ‘설렘’과 ‘기대’는 이내 매서운 칼바람에 꺼질 듯 말 듯 한 작은 불씨처럼 시나브로 사그라들고 또 다른 무언가의 ‘감상(感想)’이 피어나기 시작했다.

그 또 다른 감상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6박 7일이라는 짧지 않은 긴 시간 동안 내내 나는 이것만 생각하고 사적지 하나하나를 밟고 디디며(踏) 그 감상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형상해보았다. 지난 1세기 전, 그 어떤 나라, 그 어떤 민족보다 더 치열했고, 뜨거웠던 우리 선열(先



대한민국임시정부 창사(남목청) 활동구지 안에서 조원들과 함께



중경 대한민국임시정부청사 사적지 안에서

烈)들의 자랑스러운 항일투쟁사(抗日鬪爭史)를 되짚어보면서...

그래서 되짚어보며 심사숙고해보니 아래의 세 개의 성어(成語)가 내가 느꼈던 또 다른 감상의 대표적인 형상으로 떠올랐다. 즉,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완벽히 복원전시 하고 있는 창사(長沙, 창사) 남목청(楠木廳) 6호의 임시정부 구지와 유주(柳州, 류저우)의 임시정부 기념관, 중경(重慶, 충칭) 연화지의 임시정부 청사에서의 ‘감개무량(感慨無量)’, 우리의 무관심과 무의식 속에 사라져버린 과거에 독립운동 사적지였던 현지의 장소를 보며 ‘망연자실(茫然自失)’, 그러나 슬픔에만 매달리지 않고 또 다른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러한 느낌 속에서 자각을 하고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어 이번 6박 7일간의 여정의 답사는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 정말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오매불망(寤寐不忘)’이 바로 그것이었다.

특히, 앞서 서두에서 인용한 어느 대중가요의<sup>3)</sup> 시작부분 노랫말대로 이번 답사로 갔던 현지의 사적지들이 모두 지난 1세기 전 나라 잃은 망국민의 슬픔과 설움으로 ‘찢기는 가슴을 안고’, 머나먼 이국땅에 망명해와 조국해방을 위해 ‘사라졌던 이 땅의 (우리 선열들의) 피울음’이 있었고, 그 곳에서 어렵고 부족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주독립’에만 집착했던 우리 선열들의 ‘부둥킨 두 팔에 솟아나는 하얀 옷에 뿔줄기’가 온몸으로 느껴져 그세가지의 감상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여 답사기간 동안 내내 내 가슴을 크게 흔들어놓았던 것이다.

정말 지금까지 아직 보잘 것 없이 살아온 내 25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잊지 못할, 아니 앞으로 펼쳐나갈 ‘두근두근’ 내 인생의 지향점이자 궁극적인 삶의 목표로 기억하고, 추억하고, 매일매일 곱씹어 생각하고 싶은 느낌이었다.

그 세 가지 감상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되돌아보면, 먼저 ‘감개무량(感慨無量)’은 앞서 말한 대로 장사와 유주, 중경의 임시정부기념관에서 느낄 수 있었던 감상이었는데, 이 느낌의 실질적인 근원(根源)은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지난 1992년 우리와의 정식수교 이후 우리 임시정부를 비롯한 한인들의 중국 관내 독립운동 사적지의 본래 위치 찾기와 원형복원에 생각보다 훨씬 지대한 관심을 보여줬고 또한 그 노력의 성과를 여과 없이 보여준 결과물이 바로 이 세 곳(남목청, 유주, 중경)의 기념관이구나라는 자각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중고교시절 배운 임시정부의 ‘역사(歷史, History)’는 처음 수립 직후인 상해시절과 해방 직전 중경시절의 역사, 그리고 이동했다고만 간략히(그것도 너무나 소략하게) 소개하며, 자료사진은 상해와 중경 청사의 정문 사진만 실린 것으로만 기억하고, 임시정부의 창사와 유주를 포함한 일제의 중국 본토 침략에 따라 이동한 역사는 학부 입학 후에야 『민족운동사』 시간에 배울 수 있었는데, 이 시기 임시정부를 비롯한 중국 관내지역의 독립운동은 일제의 중국 본토 침략과 좌우 이념(이데올로기)<sup>4)</sup>의 대립이라는 중대 위기 속에서 그 이전 시기보다 더 치열하게 투쟁해야 독립을 쟁취할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그만큼 어렵고 험난한 고난의 시기였던 것을 생각하고 세 곳의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니... 어느새 눈가가 축축해지면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이 느껴워 가슴이 뭉클해졌다.

1) 김광석, 『광야에서(1993)』

2) 좌 : 사회주의[아나키즘(자유연합주의) vs 코뮤니즘(공산주의)], 우 : 민족주의[그러나 민족주의 내에서도 좌파와 우파간의 대립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목청 에서는 지난 1세기 전 한중 인민 모두에게 공공의 적(敵)이었던 일제군국주의라는 ‘거악(巨惡)’을 앞에 두고 동족 간의 비극이 있었다는(1938.5.6 남목청 사건<sup>3)</sup>) 사실을 처음 알게 되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sup>4)</sup> 대한민국의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그 동안 이와 같은 임시정부의 굴곡진 역사에 대해 기성세대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우리 청년세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그에 따라 3.1 항쟁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1919-2019)을 눈앞에 둔 오늘날까지 우리 모두가 무지(無知)했다는 것에 대해 남목청을 비롯한 유주, 중경 청사 사적 내에 살아있는 선열들의 숭고한 영혼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마음만 가득 차올라 목메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 곳 사적을 보고 느꼈던 ‘감개무량’은 정말 나 자신에게나 선열들 앞에서나 떳떳하지 못한 반쪽 자리 감상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망연자실(茫然自失)’은 우리의 무관심과 무의식 속에 사라져버리고 잊혀져버린 과거 독립운동, 즉 당시 선열들의 어렵고 험난했던 고난의 세월이 깊게 배어있는 실제 거주하고 투쟁한 모든 활동이 이루어졌었던 사적지이자 나도 그동안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장소들을 보며 느꼈던 감상이었는데 그 역사적인 장소들을 하나하나 열거해보면 광주(廣州, 광저우)의 동산백원과 아세아여관 터, 불산(佛山, 포산)과 서원북리의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터, 장사의 호남대학 내에 있는 유자명 기념관,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활동했던 유주의 유후공원, 조선의용대 본부가 있었던 계림(桂林, 구이린)의 칠성공원, 기강(綦江, 치장)의 임시정부 가족 거주지 터와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가 유주를 떠나 기강에 도착하여 일시 머물렀던 장소였지만 지금은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어 그 위치 또한 확실하지 못해 가질 못한 관음암, 쉽 없이 돌아가는 주변의 공장 기계소리에 어수선했던 가운데 표지석이라도 있는 게 다행으로 생각되어진 토교 한인촌구지, 그리고 중경 시내 곳곳의 재개발의 바람과 함께 사라져버린 화상산 묘지와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터까지.... 정말 이 모든 장소들 하나하나가 지난 세월의 폭풍 같은 변화의 바람을 맞아 황량(荒涼)함과 적막강산(寂寞江山)의 느낌이 공통적으로 느껴져 정말로 보자마자 멍하니 정신을 잃을 정도로 통탄

3) 임시정부가 장사에 머물고 있던 1938년 5월 6일, 조선혁명당 본부가 위치한 ‘남목청’에서 민족주의 진영 3당(한국국민당, 재건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통합을 위한 회의가 개최되어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 조선혁명당원 이운환이 회의장에 난입하여 권총을 쏘아 김구가 중상을 입고, 현익철이 사망한 사건

4)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 대한민국 헌법 전문(大韓民國憲法前文) 中



유주 대한민국임시정부 항일투쟁활동전시관 안에서 조원들과 함께

스러움과 자괴감(自愧感), 그리고 못나고 못한 후손으로서의 비애(悲哀)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

그러나 서두에서부터 인용한 대중가요의 중반부 노랫말과 같이 ‘해뜨는 동해에서 해지는 서해까지, 뜨거운 남도에서 광활한 만주벌판’이라는 한반도 전역과 압록강 이북의 만주지역, 그리고 이번 6박 7일간의 여정으로 생애 처음으로 차근차근 발을 디더본 중국 관내(화북과 장강이남) 지역까지... 동북아 지역 모두가 지난 세기 우리 민족과 선열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마지않았던 해방 및 자주독립국가 수립을 위해 각자 다양한 이념과 그에 따른 방략으로 끊임없는 투쟁과 헌신을 하시지 않은 곳이 없었다는 사실을.... 그렇게 망연자실 하며 자괴감과 비애를 느끼고 있는 가운데서도 머릿속 한 구석에서부터 서서히 자각을 하고 나니 이제는 더 이상 이와 같은 감정이 다시는 느껴지지 않게끔, 아니 느끼는 일이 없도록 나 스스로가 노력하고 변화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한마디로 슬픔의 감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비장미(悲壯美)’를 이번 답사를 통해

서 느낄 수 있었는데, 앞서 말한 ‘또 다른 무언가’가 바로 이것이었다. 즉, 일제의 침략에 나라의 주권을 통째로 갖다 바쳐 그에 대한 대가로 작위와 은사금을 받고 기뻐하며 마치 자기네들 세상이 된 것처럼 크게 착각하고 있었던 매국수작자들이 판치는 가운데 망국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오직 일신의 영달과 사적이익 추구를 목적으로 국적(國賊, 일제와 친일 세력)에 협력한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망국의 설움과 슬픔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숭고한 독립투쟁으로 승화(昇華)시킨 임시정부 요인(要人)들을 비롯한 좌우의 수없이 많은 독립운동가와 순국선열들이 존재했었다는 명명백백한 역사적 사실 자체가 바로 ‘비장미’에 해당된다고 나 자신이 나의 관점에서 생각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장미’를 느끼는 가운데 이번 답사가 앞으로의 내 인생에 있어 정말로 잊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오매불망(寤寐不忘)’이 대표적 형상 중 마지막으로 떠오르게 된 것이었다. ‘오매불망’... 누군가는 정말 너무 깊은 사랑을 하다가 자의든 타의든 헤어진 연인을 ‘오매불망’ 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지금의 나에게는, 25년을 살면서 아직까지 ‘나(我)’ 자신이 아닌 이성에 대한 진지한 ‘사랑’이란 걸 경험해보지 않았기에 지금의 나로서는 이번 6박 7일 동안의 값진 기억, 정말 지금까지 내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진짜(Real)’ 역사의 실체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공부(工夫)다운 공부’ 그러나 단순히 역사를 마주한 게 아닌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나(我)’라는 존재의 근원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인생공부’였다는.... 나의 지극히 주관적인 소감을 ‘오매불망’하며 결과적으로 역사를 통해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해야 되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특히, 답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 제 12기 『독립정신』 답사단의 단장님으로서 6박 7일 동안 우리들을 ‘잘’ 이끌어 주신 한시준 교수(단국대)님께서 우리 12기 청년 단원들 모두에게 역사적 의미가 깊이 배어 있으면서도 정말 진정성 있는 애정과 충고가 담겨 있구나 라고 생각되어진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고 믿는 것, 그것이 독립정신이다!”라는 주옥같은 말씀은 지금까지 내가 이 글에서 말하고자한 나의 이번 답사의 감상과 자각 그리고 이에 바탕을 둔 ‘일신우일신’이라는 결심을 새로이 정립(定立)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이에 나는 이제부터 날마다 새롭게 달라질(日新又日新) 것이다. 정말 우연하게 이번 『독립정신』 답사단의 일원이 되어 ‘임시정부 사적답사’라는 흔하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를 운명으로 경험하고 감상할 수 있었던 나로서는 답사 가기 전과 답사를 갔다 온 후의 ‘나(我)’는 완전히 달라져야 된다는 당위성(當爲性)이 내 마음 속에서부터 형성되기 시작해 머릿속



까지 완전히 도달하여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 글을 쓰고 끝맺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강철 같은 단단한 자신감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 속에서 오늘의 해법을 구하며(古今通義) 날마다 새롭게 달라질 것을 ‘나(我)’ 자신(自身) 스스로에게 약속하고자 한다. ‘주저하지 않고 더욱더 뜨겁게, 뜨겁게.....’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 다시 서는 저 들판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 한국 최초의 재벌이 된 친일인사



최 광 응  
데이터정치연구소장

“99% 민중은 개·돼지로 취급하면 된다. 나는 1%가 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다. 신분제를 공고화시켜야 한다.” 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발언을 뱉어낸 나향욱 前교육부 정책기획관이 지난 7월 22일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았다. 헌법 규정에서는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제정 당시 신분제가 폐지됐지만 1% 재벌과 99% 민중의 경제·사회적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재벌은 대한민국의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세계사적인 기업형태다. 해방 후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적산(일제 또는 일본인 재산)을 불하하는 과정에서 재벌이 탄생하기 시작했다. 1945년 광복 무렵 재벌로는 박흥식의 화신산업, 백낙승의 태창직물, 김연수의 경성방직 등을 꼽을 수 있다. 당시 이들의 위상에 비하면 삼성이나 LG(옛 럭키·樂喜)는 구멍가게 수준

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나면서 화신, 태창 등은 사라졌고, 삼양사로 사명을 바꾼 경성방직은 1990년대 사업구조 고도화를 거쳐 최근에도 100대 재벌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태창그룹은 광복 이후 등장한 최초의 재벌이다. 8.15 광복 직후 신문지면에 축하광고를 낸 기업은 화신산업과 태창직물 단 두 개뿐일 정도로 태창은 사업이 번성했다. 특히 태창은 태창방직, 태창공업, 태창직물, 해전직물, 대한문화선전사, 조선기계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며 1950년대 초 국내 최대의 기업집단을 형성했다. 태창을 이끈 이는 백낙승 사장이다. 그의 창씨개명은 시라카와 라쿠쇼이다. 서울 육의전 거상이자 대창무역 창업주인 백윤수의 4남 중 막내로 태어났다. 그는 일본으로 유학해 메이지대학 법학과와 니혼대학 상과를 졸업한 엘리트였다.

1916년 자본금 25만원으로 설립된 대창무역은 청나라로부터 각종 견직물을 수입해 제법 큰돈을 주물렀다. 그러나 1922년 갑작스러운 백윤수의 요절 이후 지배인으로 일하던 장남 낙원이 사업을 물려받았다. 백낙원은 1백만원의 자본금(납입자본금 75만원)으로 1924년 견직물과 마포류 등을 생산하는 대창직물을 설립하는데 대창무역 내 직물가공부를 독립·확장시킨 것이었다. 이때 막내인 낙승도 대창직물의 취체역(이사)으로 본격적인 경영에 참가해 일본에서 배워온 수완을 발휘한다. 대창직물은 1935년 태창직물로 사명을 변경하고 자본금도 3백만원으로 증자할 만큼 사업은 번창했다. 인조견 직물 생산은 태창직물이 국내 최초였다.

그렇지만 큰 형 역시 1930년대 말에 사망한 후 막내인 낙승이 후계자로 대표 취체역(사장)으로 취임하며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일제와 더욱 밀착했다. 그는 ‘정경유착’을 제대로 이해한 기업인이었다. 화신산업 박흥식이 설립한 군수기업인 조선비행기공업주식회사의 대주주로서 1939년 ‘애국기’라는 이름으로 군용비행기를 헌납했다. 1939년 12월 24일자 동아일보를 보면, 태창직물 백낙승 사장은 국방헌금 1만원과 가뭄 구제헌금 3천원을 특별 기부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

그리하여 백낙승의 태창직물은 태평양전쟁 당시 일본 관동군사령부 헌병대의 비호 하에 만주로 인견직물을 밀수출 하는 등 사업을 급성장시켰다. 특히 백낙승은 일본 상사들로부터 받은 포목에다가 일본 국화인 벚꽃 무늬 속 ‘泰’자가 들어있는 태창 상표를 붙여 일본제국주

의의 환심을 넘치게 얻었다. 결국 이토추, 마루베니 등 일본의 대형 무역상들도 태창을 수출 창구로 이용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태창은 막강한 위세를 과시했다.

소문난 친일파이자 밀수꾼인 백낙승은 광복 이후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곧바로 이승만에게 접근했다. 1945년 11월부터 이승만이 대통령에 취임할 때까지 무려 70만원의 정치자금과 함께 매달 50만원의 생활비를 바치고 그 대신 엄청난 특혜를 누렸다. 이승만은 대통령에 오른 후 이듬해 백낙승에게 적산인 조선기계공업사의 관리인을 맡겼고 홍삼전매권까지 몰아주었다. 백낙승은 1949년 2월 반민특위에 체포되기도 했으나 이승만의 지시로 3주 만에 석방되었고 최종 무죄로 결정됐다.

1950년 초반 백낙승은 경쟁자인 박흥식, 김연수 등과는 달리 이승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속에 태창방직을 주력 기업으로 하여 태창직물, 동서해상, 협동섬유, 자유신문사, 금강공업, 태창상사, 태창산업, 태창공업, 해전직물, 백용상회, 조선기계 등 총 12개의 기업을 거느린 거대재벌로 성장시켰다. 이승만은 한국전쟁 중인 1952년 국회의 반대 속에 고려방직 영등포공장을 수의계약으로 백낙승에게 불하해준다. 이승만은 백낙승에게 식산은행(현 산업은행)을 통해 국내 최초로 500만 달러 외화대부를 허용해 주었으며, 백낙승은 방직기를 증설하고 태창방직으로 사명을 변경한 후 1956년부터 공장을 가동한다.

태창방직 영등포공장은 외화대출 1호이자 무담보 사건이라는 특혜시비를 낳았다. 결국 심계원(현 감사원) 감사와 1954년 9월 실시된 민의원 국정감사를 통해 “중복담보와 450만원의 로비자금, 그리고 중역회의를 거치지 않은 2600만원의 대출 사실” 등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자유당정권의 지나친 각종 경제추문에 얽혀 고심하던 백낙승은 1956년 사망한다.

후계자로 나선 아들 백남일도 정경유착에는 일가견이 있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당시 자유당에 정치자금 5378만환을 헌납했고, 이듬해는 민주당에 2271만환을 바쳤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이 무너지자 태창도 몰락의 길을 걸었다. 4·19 혁명 직후 부정대출, 부정축재 등 혐의로 백남일이 체포됐고 다음 해 5·16 군사쿠데타 직후에는 구속과 함께 전 재산을 국가에 헌납하고 말았다.

그 후 백남일 등 일족은 일본으로 귀화하고 말았다. 과연 골수 친일파의 후손다운 결정이



었다. 이런 결말을 예감이라도 했는지 그의 조부인 백운수 시절부터 꾸준히 투자해 놓은 일본 동양면화의 주식이 그들의 마지막 휴식처를 제공했던 것이다. 물론 태창직물은 196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인수했고, 주력기업인 태창방직은 재일동포 사업가이자 사카모토 방직을 세운 서갑호가 인수해 방림방직으로 사명을 개칭했다.

백낙승은 2002년 발표된 친일파 708인 명단 중 군수산업 관련자 부문에 포함돼 있다. 2008년 민족문제연구소가 발표한 친일인명사전 수록예정자 명단 중에는 경제 부문에 포함되었다. 1944년 자본금 259만원을 납입하여 군수회사인 일본무연탄제철주식회사의 1대주주(지분 39%)가 되었으며 역시 강원조선철공주식회사 사장으로서는 군수품을 생산 조달하고 8만 5천원과 비행기 1대를 기부하는 등 일제에 부역한 증거가 모두 인정돼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4인 명단에도 포함되었다. 그는 조종회와의 사이에 3남 2녀를 두었는데 막내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이다.

친일청산 문제는 곧 불평등 해소와 맞닿아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은 대체로 가난하고 친일파 후손은 대부분 부유한 까닭이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는 경제민주화가 주된 이슈였으며 2017년에도 불평등 해소를 예측하는 이들이 많다. 친일청산과 불평등 해소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함께 갔으면 좋으리라. 

## ‘노상예배’의 추억



정운현  
전 오마이뉴스 편집국장

1980년대 중반 어느 해 8월 서울 중부경찰서 앞. 찌는 듯한 더위에도 불구하고 사오십 명의 사람들이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었다. 그들의 한 손에는 성경이 들려 있었다. 시위대 앞에서는 60대 초반의 한 남자가 북을 치며 찬송가를 불렀다. “옳은 길 따르라 의(義)의 길을, 세계만민의 참된 길 이 길을 따라서 살기를...” 그는 서울 오장동 제일교회의 박형규 목사였다. 오장동은 냉면과 제일교회로 유명하다. 당시 김 목사는 제일교회 목사보다는 ‘길 위의 목사’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했다.

1959년 한국기독교장로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서울 공덕교회 부목사로 시무하던 박 목사가 ‘거리의 투사’로 변신하게 된 계기는 1960년 4.19혁명이었다. 경무대(청와대) 인근 궁정동에서 결혼식 주례를 마치고 나오던 그는 총소리와 함께 피 흘리는 학생들을 목격했다. 4.19 하루 전날 있던 반공청년단의 소위 ‘4.18 고대생 테러’였다. 훗날 그는 회고록에서 “들

것에 실린 학생들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다”고 회고했다.

박정희 군사독재 하에서 그는 불의와 부정부패에 맞서 민주투사로 나섰다. 1973년 4월에 있는 ‘남산 야외음악당 부활절 연합예배 사건’이 그 시작이었다. 한국 기독교 사상 진보-보수단체가 처음으로 연합예배를 가진 후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시위를 계획하였다. “선열의 피로 지킨 조국, 독재국가 웬말이냐” “서글픈 부활절, 통곡하는 민주주의” 등의 플랜카드와 시위 주도 혐의로 그는 권호경 목사 등과 함께 구속됐다. 이후 그는 내란음모죄, 긴급조치 위반, 집시법 위반 등의 죄목으로 6차례 투옥됐다.

박정희 정권 시절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던 그가 전두환 정권이라고 곱게 보일 리 없었다. 마침내 박 목사가 목회활동을 하고 있던 오장동 제일교회에 대한 파괴공작이 시작됐다. 전두환 정권은 그를 교회에서 쫓아내기 위해 신자들 간에 이간 책동을 벌였다. 1983년 8월, 이 교회의 장로 정 아무개 씨가 사소한 트집을 잡아 박 목사를 구타했다. 이 사건을 발단으로 신자 20여 명은 노골적인 예배방해와 교인들에 대한 폭력·구타를 일삼았다. 이듬해 9월에는 자칭 보안사요원 조동화 씨가 ‘개척신도’를 자처하는 폭력배들을 몰고 와 박 목사와 교인들을 60시간 동안 불법 감금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교회 내부의 일이라고 방관하면서 개척신도 편을 들었다.

결국 박 목사와 그를 따르는 교인들은 길거리로 쫓겨나고 말았다. 이들은 ‘정의와 평화를 위한 십자가 행진’을 하면서 노상예배를 올렸다. 전두환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노상예배는 끈질기게 계속됐으며, 교인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 노상예배에 참석했던 독일인 울리히 두크로우 목사는 “천장이 없으니 하늘이 천장이고, 벽이 없어 막힌 곳이 없으니 온 세계로 열려 있다. 서울제일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라고 말한 바 있다. 박 목사와 교인들이 무려 6년 동안 노상예배를 드린 중부경찰서 앞은 시대의 아픔을 나누는 광장이자 민주화운동의 현장이 되었다.

당시 노상예배에 더러 참석하곤 했던 김자동(88)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장은 “날이 추우면 추우니까 사람들이 안 나올지 모르겠다 해서 가고 또 비가 오면 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안 나오겠구나 그럼 나라도 가 봐야겠다 해서 나갔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고 증언했다. 이따금씩 야당 지도자 김대중과 김영삼도 얼굴을 드러냈다. 노상예배가 끝나면 박 목사 일행과 함께 인근 중국집으로 가서 짜장면으로 허기를 채우곤 했다.

‘민주화 운동의 대부’로 불린 박형규 목사가 지난 18일 93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그는 목

회자로서 시대의 아픔과 민중들의 고단한 삶을 외면하지 않았다. 은퇴 후에는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평화운동에 여생을 바쳤다. 그는 자신의 회고록 <나의 믿음은 길 위에 있다>에서 “불의한 시대에 성직자가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추모인파가 끊이지 않았다. 성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 하 고픔이라.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조선여공의 햇불 ‘박재복’



이 윤 옥  
시인, 한일문화어울림연구소장

미쓰이 대재벌 공장서  
어리디 어린소녀들  
노동력 착취로  
시름에 겨워할 때

쳐진 어깨 다독이며  
일본의 패망을 알려줘  
푸른 꿈 갖게 한 이여

임의 저항으로  
소녀들 권리 찾고  
임의 위로로  
삶의 희망 얻었으니

임은  
조선여공의 햇불이어라.

### 박재복 애국지사 (1918.1.28~1998.7.18)

박재복 애국지사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군시제사주식회사(郡是製絲株式會社) 대전공장  
장에서 일하며 동료들에게 항일의식을 심어주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군시공장은 일본대재  
벌 미쓰이(三井) 계열회사로 이들의 식민수탈이 가혹하여 이곳에서 일하던 여공들을 중심으  
로 1929년 4월과 1932년 11월에 동맹파업이 일어났다.

“요와 이불은 벼룩과 빈대로 절어 있었으면서도 회사에서는 이불 소독 값을 공제했습니  
다. 가장 서글픈 것은 늘 배가 고팠다는 사실입니다. 식당 배식구에서 조선인 차별을 몸소  
겪을 때는 정말 죽고 싶었지요.” 이는1930년대 일본에 여공으로 팔려간 어린 조선여공들의  
실상을 고발한 책《조선인여공의노래, 朝鮮人女工のうた》에 나오는 나이 어린 여공들의 증언  
내용이다. 당시 조선의 방직공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인에 대한 경계가 삼엄하던 시절 ‘일본패망론’을 말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임에  
도 박재복 애국지사는 동료들에게 일본은 중일전쟁에서 반드시 패한다는 말을 유포함으로써  
조선의 독립을 암시하고 동료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패망  
론’을 퍼뜨린 죄로 박재복 애국지사는 왜경에게 체포되었으며 이 일로 1941년 10월 29일 전  
주 지방법원에서 육군형법위반으로 금고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 영화 <아가씨>, 일제 강점기와 영화적 채색의 범위



이 두 희  
자유기고가

박찬욱 감독의 영화 <아가씨>(2016)는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리 장르의 영화이다. 최근 우리의 근현대사를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들이 역사적 사건을 극화하고 있었다면, 영화 <아가씨>는 처음부터 외국의 원작 소설을 변안한 작품으로 허구적인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다루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영화는 역사적 사실관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이야기 속에서 식민지 시대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에 대한 색다른 예가 되고 있다.

1930년대 일제 치하의 조선, 친일 행적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사교계에서는 일본인 행세를 하는 코우즈키는 비밀스런 독서회를 운영하고 있다. 몰락한 일본 귀족으로서 이모부 코우즈키의 후견을 받는 히데코 아가씨는 사실상 그의 저택에 갇혀 살고 있다. 한편, 히데코가 물려받을 재산을 노린 사기꾼 백작은 조선인 숙희를 히데코의 시녀로서 코우즈키의 집에 들어가도록 한다. 영화는 히데코의 마음을 움직여 함께 야반도주를 꾀하는 백작과 숙희의 계략이 진행되며, 코우즈키가 운영하는 독서회의 진실이 함께 드러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히데코와 숙희가 서로를 속이는 관계에서 점차 서로에게 의지하는 사이로 변하면서,

일본으로 달아나 히데코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는 백작의 계획은 어긋나기 시작한다.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영화 <아가씨>에도 시대적 배경을 읽을 수 있는 요소들은 있다. 조선어를 쓰는 하층민들과 대비되어 일본 사회에 편입하려 애쓰는 당시 상류층 친일파의 모습이나, 징병된 젊은이들의 표정에서 엿보이는 일본 군국주의의 흔적들을 비롯하여, 서양식 근대 문물의 도입과 남아있는 전통 생활양식이 혼재된 일상은 당시의 생활상을 어느 정도 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영화 속에서 이러한 모습들은 대부분 전형적인 시대와 인물상으로써 빌려 쓴 것으로 여겨진다.

사실 이 영화의 원작 소설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산업혁명 후기 산업화와 제국주의적 팽창이 극대화되고,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계급의 양극화가 두드러지며, 귀족 문화와 도시 하층민의 명암이 대비되고, 세속적인 쾌락과 죄의식의 어두운 그림자가 함께 드리워진 시대로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는 지금까지 많은 소설과 영화에서 전형적인 배경과 시대적 모델이 되기도 하였다. 특히 주류 문화와 대비되어 흔히 서브 컬처라 불리는 주변, 소수 문화의 창작물들에서는 이러한 빅토리아 시대 풍의 분위기는, 빛과 어둠이 강하게 대조되며 과거와의 단절이나 새로운 시대상, 신분 상승의 기회와 같은 장르적 전형들이 쉽게 가능한 상상의 공간으로서 자주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흔히 과기하고 독특한 소재가 나오는 추리물이나, 화려한 의복과 장식물 뒤에 감춰진 상류층 사교계의 비밀스런 이야기들을 다루기에 어울리는 시대적 배경이 되는 것이다.

박찬욱 감독이 이러한 원작의 배경을 영화 속에서 1930년대의 조선으로 바꾼 것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에 대한 과감하면서도 적절한 차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신분제가 붕괴되고, 근대화와 수탈이 함께 진행되며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조선과 일본이라는 이



▲ 영화 <아가씨> 중에서





중적인 사회 기준이 뒤섞인 이 시기야 말로 몰락하는 상류층과 사기꾼들이 활개 치기에 더할 나위 없는 배경이 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영화 <아가씨>는 이야기가 진행 될수록 비밀 독서회를 통해 밝혀지는 음란 소설과 춘화집에 대한 묘사라든가 주인공들의 동성애 관계와 같이 과거 금기시되던 성적 소수자 지향의 소재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관객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다른 영화 평론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만일 히데코와 숙희의 관계가 동성애적 동지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의 사랑으로 설정되었다면, 아마도 영화는 일본과 조선의 식민지 지배 관계에 대한 비유적 해석을 피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이야기의 배경을 비롯한 이러한 설정들은 눈을 즐겁게 하는 세밀한 미술 소품들과 함께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의 높은 표현 수위까지 더하여져, 마치 어른들을 위한 잔혹 동화를 보는 듯이 영화에 판타지적인 성격을 부여하게 하였다.

그럼으로써 영화는 지금까지 한국 영화가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지 시대를 이야기할 때 피하기 어려웠던 가치 평가의 기준을 벗어난다. 피식민지 역사의 핍박과 설움이나, 민족 독립을 위한 저항과 투쟁이라는 고정된 이야기의 틀을 비껴가는 것이다. 이 영화는 식민지 시대에 대한 어떤 고발도, 목숨을 바쳐 싸운 독립 운동가들에 대한 어떤 경의도 명시적으로 표하지 않고, 오로지 영화만으로서 기능하는 것이다. 하지만 영화 <아가씨>에서 사실관계의 왜곡이나 식민지 시대의 옹호로 해석될 만한 반역사적인 성격을 찾기도 역시 어렵다. 영화는 다만 역사적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성에서 벗어난 탈역사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를 자리매김 할 뿐이다.

근래 많은 한국 영화들이 우리 근현대사의 이야기들을 영화화하고, 대부분 민족적 긍지를 지키는 민족주의적인 입장에서 관객들에게 다가가는 경향을 볼 때, 영화 <아가씨>는 시대에 대한 접근에서 차별화 한다. 하지만 관객들 역시 흥행 성적에서 적지 않은 호응을 보였고,

언론과 평단에서도 이 영화의 역사관에 시비를 거는 일도 두드러지지 않은 것 같다. 그렇다면 영화 <아가씨>는 혹시 그 동안 우리 영화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의식에 대한 강박을 반증하면서, 판타지적인 전략을 통해 그 틈새에 성공적으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아닐까?

물론 사회적 공동체의 정체성으로서 민족정신이나 역사의식의 중요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영화에 대한 논의가 영화에 담긴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것으로 한정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반 관객들이 영화의 미학적 평가나 영화사적 의의까지 논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적어도 기존의 정치 논리에 기대어 성급히 영화를 단정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영화적 경험을 스스로 표현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영화의 이야기 역시 시대와 역사에 대한 이해에 자유롭지는 않더라도 영화의 몫과 관객의 몫은 어디까지나 분리되어 있으며, 역사의식이란 몇 편의 잘 만들어진 영화들을 가려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화를 보는 시민들의 분별에서 비롯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영화 <덕혜옹주>에 대해서는 역사적 실존인물에 대한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조선황실에 대한 미화와 더불어 독립운동의 개입 여부에 대한 허구성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과연 영화 <아가씨>와 <덕혜옹주> 사이에서 일제 강점기에 대한 영화적 채색의 가능성은 어느 범위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할 수 있을까. 장르적인 전형들을 이용해 피식민지 사회를 색다르게 그려보고 계급적, 성적 억압에서 자유롭게 도피하는 인물들에 대해 잠시나마 발칙한 상상을 해보는 일과, 허구적인 덧칠을 통해서나마 우리가 겪었던 민족적 비극을 부각해서 상기시켜 보려는 시도 사이의 어딘가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인정을 할 수 있을지. 결국 영화가 그리는 역사에 대한 균형 감각은 영화 안에 있다기보다는 영화 밖의 우리에게서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영화 <아가씨> 중에서





# 누구를 위한 화해인가

## - 제국의 위안부의 반역사성

• 지은이 | 정영환, 박노자(해제) • 옮긴이 | 임경화  
• 출판사 | 푸른역사 쪽수 | 280쪽



《제국의 위안부》, 무엇이 문제인가  
왜 일본은 《제국의 위안부》를  
상찬하는가?

《제국의 위안부》와 ‘《제국의 위안부》  
사태’에 대한 전면적 종합적 비판서

정영환은 박유하(세종대 교수)의 《제국의 위안부: 식민지 지배와 기억의 투쟁》(2013)에서 제시된 전거를 하나하나 꼼꼼히 검증하면서, 박유하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일본군의 ‘동지’이자 ‘대일제국의 애국자’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자료들을 어떻게 왜곡했는지 매우 상세하게 규명하며, 동시에 박유하가 만들어낸 ‘전후 사과와 보상’의 이미지가 얼마나 허구적인지를 방대한 증거들을 제시하면서 확인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결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일본 언론계가 《제국의 위안부》를 높이 평가하는 배경을 예리하게 고찰, 비판함으로써 일본 사회의 지적·도덕적 퇴락, 즉 과거의 체제 비판자들이 보수적 ‘국민주의’ 주류로 점차 합류해가는 작금의 우려스러운 상황에 경종을 울린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 조선인 ‘위안부’는 일제에 애국한 일본군의 동지  
박유하는 한일 간에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것은 ‘위안부’

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고, ‘일본군에 강제연행된 순진 무구한 조선인 소녀들’이라는 ‘위안부’ 이미지는 지원단체 등에 의해 왜곡된 것이지, 있는 그대로의 기억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 왜곡된 이미지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박유하가 제시한 것이 ‘제국의 위안부’론이다. 이것은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인 ‘위안부’와 일본군과의 관계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으며, 전쟁 수행에 협력하는 ‘애국’적 존재로,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에 있고 스스로도 ‘동지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해방 후에는 ‘식민지의 후유증’ 때문에 스스로 ‘제국의 위안부’였던 기억을 은폐했다고 한다.

하지만 정영환은 이 주장이 사료의 오독, 증언의 자의적 해석과 취사선택, 연구 성과에 대한 잘못된 이해 등에 의해 도출된 억측에 지나지 않음을 명확히 밝힌다.

박유하가 귀 기울인 것은 ‘병사들의 목소리’

더욱이 ‘제3의 목소리’ 등으로 명명하며 마치 ‘위안부’ 이미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나 새로운 해결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포장된 ‘제국의 위안부’론은 1980년대 이전에 ‘병사들의 목소리’로 구축되었던 ‘사랑’, ‘위안’, ‘운명’, ‘애국’, ‘동지’ 등의 키워드를 가진 ‘위안부’ 인식으로의 회귀다. 이러한 ‘병사들의 목소리’는 1990년대 이후 아시아 피해 여성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구조적인 성폭력 시스템으로서의 ‘위안부’ 제도가 규명되면서 뿌리부터 흔들리게 되었다. 박유하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배후의 지원 단체들에 의해 왜곡된 목소리일 뿐, 그들의 진정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체성과 자발성을 존중하는 듯한 어법을 구사한다.

하지만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실상은 과거의 ‘병사들의 목소리’를 복권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했음을 밝힌다.

박유하는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했는가.

박유하는 일본의 역사수정주의를 비판한 것처럼 속임수를 쓴다. 박유하는 우선 ‘위안부’ 문제의 책임부정론을 ‘자발적인 매춘부’론에 한정하고 이것을 비판한다. 그러나 하타 이쿠이코를 대표 논자로 하는 현재의 일본군 책임부정론은 역사수정주의의 비판 대상에서 제외한다. 물론 아직까지 ‘자발적인 매춘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만, 연구의 진전과 정부 견해의 수정으로 인해 ‘군의 관여’를 부정하는 ‘자발적 매춘부’론만으로는 주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된 부정론자들은, 그 초점을 ‘군의 관여’에서 ‘공권력에 의한 강제연행의 유무’로 이동시킨 ‘일본군 무죄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위안소=전투지 공창시





설론, 군의 ‘좋은 관여’, 성노예 부정, 업자 주범설에 입각한 국가나 군의 책임 부정, 강제 연행 부정 등을 핵심 주장으로 하고 있는 ‘일본군 무죄론’은 박유하의 ‘위안부’ 제도 이해와 일치한다. 더욱이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의 책임을 ‘발상’, ‘수요’, ‘목인’에만 한정한다. 이는 오히려 군의 책임을 개개의 병사나 업자에게 전가하는 책임 해제의 논리다. 따라서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 국가의 책임을 극소화했다고 할 수 있다.

### 일부의 페미니스트들이 《제국의 위안부》를 평가하는 이유

이와 같이, 박유하가 이해하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일본군 무죄론’과 동일한 것이며 《제국의 위안부》는 ‘병사들의 목소리’의 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반페미니즘 저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이 책이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박유하가 우에노 지즈코의 레토릭을 차용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 박유하는 우에노 논문을 출전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소녀’나 ‘성노예’에 대한 박유하의 주장은 우에노의 ‘모델 피해자’ 이미지 비판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즉 ‘위안부’ 피해자 중에 소녀는 소수이자 예외적인 존재인데도 소녀상으로 피해자 이미지를 강조하는 것은 피해의식을 키우고 매춘을 차별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식은 ‘성노예’ 패러다임이 ‘연행 당시 소녀였고 완전히 속거나 폭력에 의해 납치되어 도망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저지당했다’는 ‘모델 피해자’ 이미지와 연결된다는 우에노의 주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신고된 피해자들의 대다수는 20세 이하이며, 소녀상도 미성년자 징집이 많았던 사실의 반영이지 순결주의를 투영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박유하가 이러한 오류를 범한 것은 일본인 ‘위안부’와 조선인 ‘위안부’를 동일한 위치로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매춘 전력이 없는 미성년 징집은, ‘추업’에 종사하며 성병 없는 만21세 이상으로 징집을 한정한 일본 ‘내지’와는 다른 식민지 지배 하의 조선인 ‘위안부’ 징집의 중요한 특징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본래 일본 정부의 ‘순결주의’의 배후에 있는 식민주의와 여성 차별이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에노=박유하는 이것을 연구자나 지원 단체의 매춘 차별로 책임을 전가한다.

### 《제국의 위안부》와 책임의 영역

박유하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에 대해서는, 일본군에게 법적 책임은 없다는 전제 하에 처음부터 ‘위안부’ 피해 여성에게 일본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없으며, 설령 있다 하더라도 한일회담에서 한국정부에 의해 ‘위안부’ 피해자들 개인의 청구권은 포기되었으며,

대신에 한국정부가 수취한 ‘경제협력’은 중일전쟁 이후에 관한 ‘배상’이었고, 하지만 그 어느 주장도 근거가 없으며, 박유하는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전개하는 연구를 자신의 ‘논거’로 삼고 있었다. 더욱이 박유하는 고노 담화나 국민기금에서 ‘식민지 문제’에 대한 응답을 억지로 읽어내면서, 정대협이 ‘식민지 문제’를 소거하고 ‘전쟁’에 관한 것으로 왜소화했다고 비판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오류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 범죄와 전쟁 범죄의 중첩성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제국의 위안부》가 시도한 것은 식민지 지배 책임을 묻는 것이 결코 아니다. 박유하는 대일본제국 논리의 범위 내에서 ‘위안부’ 문제를 재해석하고자 했다. 그래서 일본인 ‘위안부’와의 ‘애국’적 동기의 공통성, 병사와의 ‘동지적 관계’를 강조하고, 미성년자 징집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제도의 식민주의적 성격을 억지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가 말하는 ‘식민지 지배의 문제’는 조선 침략의 죄와 책임이나 전쟁범죄, 식민지 범죄를 묻는 것이 아니다. ‘위안부’의 역사를 ‘일본인의 역사’로 다시 서술하고자 한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의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본의 ‘제국의 식’에 호소하여 조선을 ‘통치’한 자로서 예전에 ‘동지’였던 (구)식민지 ‘신민’들을 위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호소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제국의 위안부’론은 전쟁 지도자의 책임을 말단의 ‘위안부’나 병사의 ‘협력’으로 바꿔치기하여 책임을 전가하는 기능을 한다. 어떠한 의미에서도 식민주의를 비판하는 담론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일본어판과 한국어판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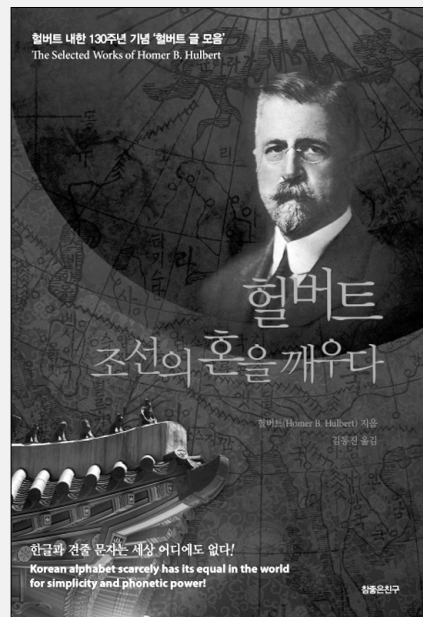
《제국의 위안부》 한국어판과 일본어판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양자는 동일한 제목을 달고 있어 원서와 번역서의 관계를 표방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하지만 번역 시의 생략과 가필, 수정의 과정에서 가해진 다양한 변용은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박유하가 일본의 독자들의 어떠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 책에 실린 구체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면, 일본어판에서는 한국어판과 달리 “전후 일본의 역사는 ‘사죄, 보상’을 해온 역사”라는 점이 더욱더 강조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이 한일조약의 시대적 한계를 보완하여 과거의 식민지화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는 것은 “세계사적으로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던 한국어판의 기술은, 일본어판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죄’는 실제로는 제국이었던 나라들 중에 가장 구체적이었다”는 상찬의 표현으로 수정되어 세계사적이었던 일본의 사죄와 보상을 모르고 ‘기억’하지 않은 한국 측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서술되어 있다.



# 헬버트 조선의 혼을 깨우다

• 지은이 | 헬버트 • 옮긴이 | 김동진 • 출판사 | 참좋은친구  
• 쪽수 | 557쪽



조선 말기로의 시간여행 / 한국학의  
개척자 헬버트의 한민족 뿌리 탐구  
헬버트의 지성과 정의, 인간애,  
실용의 가치관을 만나다  
한민족이라면 꼭 알아야 할 민족적  
자긍심이 담긴 인문, 역사, 교양서

저자 헬버트는 1949년 7월 1일 86세의 한 서양 노인이 미국 워싱턴의 주미한국대사관을 나섰었다. AP통신 기자가 노인에게 한국을 방문하는 소회를 물었다. 노인은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라고 답했다. 노인은 한국 땅을 다시 밟는다는 감격에 눈시울을 붉혔다. 일제의 박해로 한국을 떠난 지 40년 만이 아닌가.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물리학자 뉴턴(Sir Isaac Newton), 대문호 디킨스(Charles Dickens) 등이 묻힌 유서 깊은 곳이다. 이 노인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진한 한국 사랑을 고백하였을까? 그 노인이 바로 23세에 조선 땅을 밟아 평생을 한민족과 기쁨과 슬픔을 공유한 헬버트(Homer B. Hulbert)이다. 그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1949년 광복절 행사에 참석해 달라며 국민으로 초청받은 것이다.

헬버트는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3년 1월 26일 미국 동북부 버몬트(Vermont) 주에서

대학총장이자 목사였던 아버지와 다트머스(Dartmouth)대학 설립자 후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3남 1여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헬버트는 ‘원칙이 승리보다 중요하다(Character is more fundamental than victory)’라는 가훈 속에서 성장하였다. 헬버트는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에 재학 중, 조선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인 ‘육영공원(育英公院員)’의 교사가 되기 위해 1886년 7월 5일 조선 땅을 밟았다.

헬버트의 한국 사랑은 드라마보다 질다. 그는 한국의 역사, 문화에 매료되어 한민족의 진수를 한국인보다 질게 음미하였다. 그는 ‘교육만이 살길이다’라는 신념 아래 근대 교육의 초석을 놓았다. 그는 또 한글을 통한 교육 확장만이 한민족의 문명화를 이룰 수 있다며 한글 사용을 외롭게 외쳐댔다.

헬버트는 일제의 침략주의를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국경과 인종을 넘어 고종 황제의 밀사로, 민권운동가로 일본과 맞서 싸우며 정의, 평화, 인간애, 올바른 애국심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보여 주었다.

헬버트는 한 달여의 여정에 지쳐 한국에 도착한 지 일주일만인 1949년 8월 5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광복절 경축식 단상에는 서보지도 못하고 한강변 양화진에 묻혔다. 그리도 사랑하던 한국의 분단을 슬퍼하며 오늘도 그의 눈물이 한강으로 방울방울 흘러들고 있을지 모른다.

외국인인 헬버트의 한국 사랑에서 우리는 우리를 무엇을 배워야 할까. 헬버트는 한국 사랑에 의무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으나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사랑했다. 그의 한국 사랑의 의미를 더 넓고 더 깊게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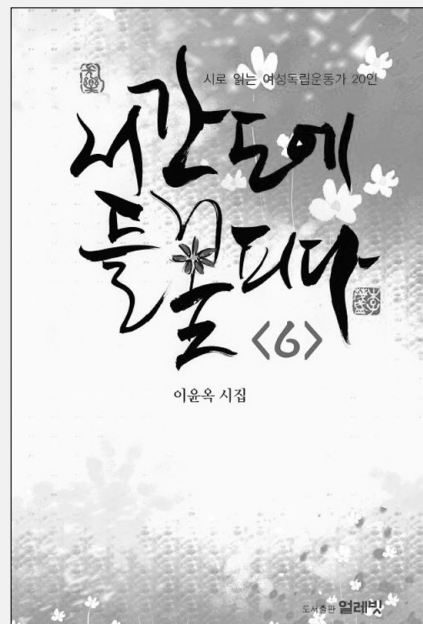




## 서간도에 들꽃 피다. 6

- 시로 읽는 여성독립운동가 20인

• 지은이 | 이윤옥 • 출판사 | 엘레빗 • 쪽수 | 170쪽



“내가 죽는다고 조금도 어찌지 말라.  
내 평생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아무 것도  
없음이 도리어 부끄럽다.  
내가 자나 깨나 잊을 수 없는 것은 우리  
청년들의 교육이다.  
내가 죽어서 청년들의 가슴에 조그마한  
충격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일이다.”

이는 65살의 이에 폭탄 의거로 순국의 길을  
걸은 강우규 의사가 사형 집행을 앞두고 남긴  
말이다. 나라를 빼앗은 흉악한 일제에 온몸으로  
저항한 것이야말로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한 것  
이지만 강우규 지사는 겸손하게 “나라를 위해  
한 일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청년들의 교육’을 걱정했다. 그러한 강우규 의사의 숭고한 나라사랑 실천 행동 뒤  
에는 탁명숙이라는 여성독립운동가가 있었지만 이를 아는 이는 드물다.

그런가하면 핏덩이 갓난아기를 남겨두고 독립운동에 뛰어든 박치은 애국지사도 있다. 박  
치은 애국지사는 남편 곽치문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다 잡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핏덩이 갓난  
아기를 둔 몸이었다. 철창 밖에서 젖이 먹고 싶어 우는 아기를 일제는 끝내 면회시켜주지 않  
아 눈앞에서 아기가 숨지는 고통을 견뎌내야만 했다. 2년의 형기를 마치고 남편보다 먼저 출  
소한 박치은 애국지사는 부모가 옥중에 있는 동안 어린 두 자매가 병사하여 숨지고 겨우 큰

딸과 막내만이 살아남아 부모님의 출옥을 기다리는 현실과 맞닥트려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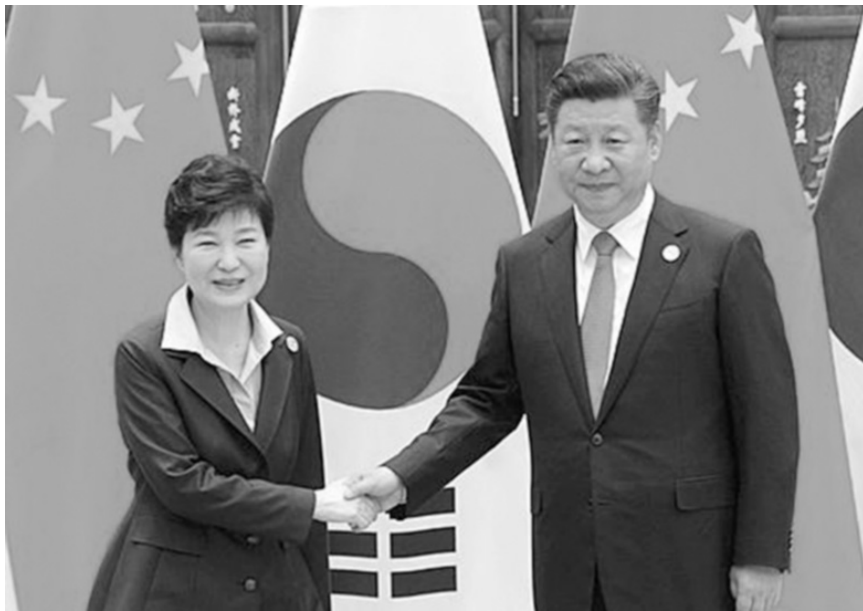
빼앗긴 나라 되찾고자 / 갓 태어난 핏덩이 남겨두고 / 뛰어든 험난한 가시밭길 / 어미 품  
그리며 유치장 밖서 / 숨저간 어린 딸 / 하늘이며 두 모녀 가는 길 / 무궁화 꽃 뿌려주소서

- ‘핏덩이 남겨두고 독립의 깃발 높이든 <박치은>’ 시 가운데 -

또한 평양 고무공장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 평양의 을밀대 지붕 위에 올라가 여공들의 부  
당한 처사에 항거한 강주룡 애국지사, 기생출신으로 통영에서 만세운동에 앞장선 정막래 애  
국지사, 비바리의 함성을 이끈 부덕량 애국지사, 봉건의 너울을 벗고 독립의 길 걸은 신정균  
애국지사, 독서회로 독립정신 일군 심계월, 수예품 만들어 군자금 마련한 유인경 애국지사  
등 《서간도에 들꽃 피다》 6권에는 저마다 신분이 다르고 배움이나 집안 배경도 달랐던 여성  
들이지만 각자가 처한 환경에서 독립운동의 끈을 놓지 않았던 여성독립운동가 스무 분의 이  
야기가 실려 있다.

《서간도에 들꽃 피다》 6권으로 이윤옥 시인은 스무 분의 여성독립운동가를 새롭게 조명했  
고, 이로써 사회의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던 120분의 여성독립운동가들을 밝은 해 아래로  
불러내는 작업을 마쳤다. 곧 광복 71돌이다. 광복은 여성독립운동가가 없을 때 가능할 수 없  
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이다.

## 시진핑 주석, 韓中 정상회담 모두발언 전문



9/5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대통령님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항저우에서 오셔서 G20 정상회의 참석한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대통령님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항저우는 한국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1930년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3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유명한 지도자인 김구 선생님께서 저장성에서 투쟁을 하셨고, 중국 국민들이 김구 선생님을 위하여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김구 선생님 아들인 김신 장군님께서 1996년에 항저우 저장성 옆에 있는 하이옌 도시를 방문했을 때 음수사원(飲水思源) 한중우의(韓中友誼)라는 글자를 남겼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국제정세가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상황이고 세계경제 회복세가 전체적으로 약하며,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중-한 양국 간 가까운 이웃으로, 공동 이익을 갖고 있는 만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인 협력 기초를 소중히 여기며, 어려움과 도전을 극복하고 중-한 관계가 올바른 궤도에서 안정되고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지역-세계의 평화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저는 박 대통령님과 중-한 관계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G20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시진핑 주석이 밝힌 임정 활동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는 깊은 경의와 감사의 인사를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봉창·윤봉길 의거 직후인 1932년 5월, 일제의 감시와 검거를 피해 절강성 항주(杭州)로 피신하였다. 1935년 11월 진강(鎮江)으로 옮기기 전까지 3년 7개월 동안 항주에서 활동하였다.





## 제71주년 광복절 계기 독립유공자 포상자 명단(235명)

◆ 건국훈장 152명, 건국포장 26명, 대통령표창 57명 ◆

### ☐ 건국훈장 애국장(58명)

|               |               |                |
|---------------|---------------|----------------|
| 강덕보 姜德保(의 병)  | 서성실 徐聖實(의 병)  | 임병수 林炳洙(의 병)   |
| 강영승 康永昇(미주방면) | 선규환 宣奎煥(만주방면) | 임영기 任永基(의 병)   |
| 강일봉 姜一鳳(만주방면) | 성낙희 成樂喜(의 병)  | 장선군 張先君(의 병)   |
| 곽이용 郭伊用(의 병)  | 성선조 成善祚(의 병)  | 전기서 全基西(의 병)   |
| 권성범 權成凡(만주방면) | 송병태 宋炳台(의 병)  | 전제익 全濟益(노령방면)  |
| 권운택 權雲澤(의 병)  | 송화순 宋化順(의 병)  | 정경순 鄭敬洵(만주방면)  |
| 권중삼 權重三(의 병)  | 양계갑 梁癸甲(만주방면) | 정선경 鄭善京(의 병)   |
| 김명호 金明浩(만주방면) | 양성진 楊星鎭(계몽운동) | 정종섭 鄭宗涉(의 병)   |
| 김병헌 金秉憲(국내항일) | 양재환 梁在煥(의 병)  | 조기선 趙基善(국내항일)  |
| 김상욱 金尙旭(만주방면) | 엄승도 嚴承道(국내항일) | 지춘경 池春敬(의 병)   |
| 김시홍 金時弘(만주방면) | 유기홍 柳箕弘(국내항일) | 최봉선 崔鳳先(의 병)   |
| 김운익 金雲益(의 병)  | 윤영수 尹榮壽(국내항일) | 최석길 崔錫吉(3·1운동) |
| 김중섭 金鍾涉(만주방면) | 이경선 李敬善(의 병)  | 최성록 崔成錄(만주방면)  |
| 김중기 金仲其(의 병)  | 이광신 李光信(의 병)  | 최창철 崔昌鐵(만주방면)  |
| 김한경 金漢京(의 병)  | 이동식 李東植(의 병)  | 한수길 韓壽吉(의 병)   |
| 김홍일 金洪一(의 병)  | 이성근 李聖根(의 병)  | 한옥산 韓玉山(만주방면)  |
| 문명국 文明國(의 병)  | 이용진 李龍鎭(만주방면) | 홍문선 洪文善(3·1운동) |
| 민찬호 閔燦鎬(미주방면) | 이운서 李雲瑞(국내항일) | 황덕성 黃德成(의 병)   |
| 박창영 朴昌永(국내항일) | 이철우 李哲雨(일본방면) |                |
| 서기준 徐基俊(의 병)  | 이춘실 李春實(의 병)  |                |

### ☐ 건국훈장 애족장(94명)

|               |                |              |
|---------------|----------------|--------------|
| 강명환 姜明煥(만주방면) | 김복동 金復東(3·1운동) | 김수동 金守同(의 병) |
| 고정화 高貞華(국내항일) | 김성도 金成道(국내항일)  | 김순복 金順福(의 병) |
| 고택술 高澤述(국내항일) | 김성백 金成伯(노령방면)  | 김운선 金雲先(의 병) |

|                  |                |                |
|------------------|----------------|----------------|
| 김운현 金雲鉉(국내항일)    | 신덕오 申德五(의 병)   | 임성준 林成濬(국내항일)  |
| 김원려 金元麗(국내항일)    | 신무경 申武敬(의 병)   | 임정수 林正秀(미주방면)  |
| 김응선 金應善(의 병)     | 신봉렬 申奉烈(의 병)   | 임준기 林俊基(미주방면)  |
| 김익진 金益鎭(국내항일)    | 심주현 沈周鉉(의 병)   | 임찬규 任讚珪(국내항일)  |
| 김인순 金寅淳(만주방면)    | 안석중 安奭中(미주방면)  | 장문동 張汶同(의 병)   |
| 김장옥 金長玉(의 병)     | 양창익 楊昌益(만주방면)  | 장치일 張致一(의 병)   |
| 김재천 金在天(의 병)     | 오영선 吳英善(중국방면)  | 정기인 鄭基仁(의 병)   |
| 김호익 金瑚翼(국내항일)    | 오창준 吳昌俊(국내항일)  | 정만춘 鄭萬春(의 병)   |
| 나형순 羅亨淳(국내항일)    | 유명길 柳命吉(의 병)   | 정원경 鄭元景(의 병)   |
| 남현수 南顯秀(의 병)     | 윤수봉 尹水封(의 병)   | 정대경 鄭泰京(의 병)   |
| 두전혜이 杜君慧(독립운동지원) | 윤태현 尹泰賢(만주방면)  | 조문섭 趙文燮(의 병)   |
| 민영면 閔泳冕(국내항일)    | 이경래 李景徠(3·1운동) | 조복동 趙福同(의 병)   |
| 박선군 朴善群(국내항일)    | 이공업 李共業(의 병)   | 지광운 池光雲(만주방면)  |
| 박업동 朴業東(의 병)     | 이근영 李根永(미주방면)  | 차보석 車寶錫(미주방면)  |
| 배을룡 裴乙龍(의 병)     | 이근중 李根琰(3·1운동) | 최경휴 崔卿休(의 병)   |
| 변성오 邊聖五(의 병)     | 이달근 李達根(3·1운동) | 최기섭 崔基燮(의 병)   |
| 서완득 徐完得(3·1운동)   | 이득춘 李得春(의 병)   | 최기열 崔基烈(3·1운동) |
| 서원태 徐元泰(국내항일)    | 이만성 李萬成(의 병)   | 최 봉 崔 鳳(의 병)   |
| 석만길 石萬吉(의 병)     | 이무범 李武範(의 병)   | 최재성 崔在成(의 병)   |
| 석승렬 石承烈(의 병)     | 이승준 李承俊(만주방면)  | 최태경 崔太京(만주방면)  |
| 손경렬 孫敬烈(의 병)     | 이용복 李容馥(의 병)   | 하군배 河君輩(의 병)   |
| 송교원 宋敎源(의 병)     | 이운집 李云集(의 병)   | 한팔복 韓八福(의 병)   |
| 송금종 宋今宗(의 병)     | 이원발 李元發(만주방면)  | 현영원 玄永元(의 병)   |
| 송인택 宋仁澤(의 병)     | 이윤빈 李允賓(의 병)   | 홍준성 洪俊成(의 병)   |
| 송일봉 宋一鳳(국내항일)    | 이자화 李子化(의 병)   | 홍희영 洪喜永(의 병)   |
| 송평운 宋平云(의 병)     | 이준항 李準恒(만주방면)  | 황상봉 黃尙鳳(만주방면)  |
| 송헌준 宋憲俊(의 병)     | 이창호 李昶鎬(3·1운동) | 황용기 黃龍起(만주방면)  |
| 승용환 承龍煥(미주방면)    | 이하경 李夏卿(의 병)   |                |
| 신갑록 申甲錄(의 병)     | 임메불 林메불(미주방면)  |                |



## 【정부포상자 명단】

### ☐ 건국포장(26명)

|                |                |                |
|----------------|----------------|----------------|
| 강영효 姜永黻(미주방면)  | 박치근 朴致根(의 병)   | 윤상구 尹商求(3·1운동) |
| 김낙희 金樂希(미주방면)  | 송승균 宋昇均(미주방면)  | 이병호 李秉湖(미주방면)  |
| 김도연 金道演(미주방면)  | 신창화 申昌和(3·1운동) | 이봉권 李鳳權(3·1운동) |
| 김암우 金岩佑(3·1운동) | 안재창 安在昶(의 병)   | 이학선 李學善(만주방면)  |
| 김용선 金龍善(미주방면)  | 염만석 廉萬石(미주방면)  | 장두경 張斗京(3·1운동) |
| 김중학 金鍾鶴(미주방면)  | 유광명 柳曠鳴(3·1운동) | 정도선 鄭道善(만주방면)  |
| 맹정희 孟貞熹(미주방면)  | 유덕형 柳德馨(미주방면)  | 정칠래 鄭七來(미주방면)  |
| 박대일 朴大一(미주방면)  | 유재순 柳在順(의 병)   | 허창도 許昌道(국내항일)  |
| 박춘삼 朴春三(미주방면)  | 유진석 俞鎭奭(미주방면)  |                |

### ☐ 대통령표창(57명)

|                |                |                |
|----------------|----------------|----------------|
| 계창림 桂昌林(국내항일)  | 박덕엽 朴德燁(미주방면)  | 윤원구 尹元求(3·1운동) |
| 고승현 高承鉉(3·1운동) | 박봉하 朴鳳夏(3·1운동) | 이승직 李承稷(국내항일)  |
| 고창덕 高昌德(미주방면)  | 박석순 朴錫順(국내항일)  | 이승호 李承鎬(국내항일)  |
| 권중현 權重顯(의 병)   | 박성순 朴聖淳(3·1운동) | 이윤상 李允相(미주방면)  |
| 기회준 奇會俊(학생운동)  | 서현우 徐鉉宇(미주방면)  | 이종관 李鍾寬(미주방면)  |
| 김동헌 金東憲(국내항일)  | 소귀남 蘇貴男(3·1운동) | 이태옥 李泰玉(3·1운동) |
| 김삼룡 金三龍(국내항일)  | 손기현 孫基賢(만주방면)  | 이학기 李鶴基(만주방면)  |
| 김세선 金世璇(미주방면)  | 송이균 宋二均(미주방면)  | 임지성 任志成(미주방면)  |
| 김순권 金順權(미주방면)  | 송창균 宋昌均(미주방면)  | 장응두 張應斗(국내항일)  |
| 김용채 金龍采(국내항일)  | 신달원 申達元(미주방면)  | 장치훈 張致勳(국내항일)  |
| 김윤원 金允元(미주방면)  | 신어삼 辛於三(미주방면)  | 전익서 全益瑞(미주방면)  |
| 김정빈 金正彬(국내항일)  | 신언학 申彦學(국내항일)  | 정기섭 丁基燮(3·1운동) |
| 김치욱 金致旭(국내항일)  | 안태욱 安泰旭(국내항일)  | 정동규 鄭東奎(3·1운동) |
| 김태규 金泰圭(국내항일)  | 안화여 安化如(의 병)   | 정수현 鄭壽賢(국내항일)  |
| 김태열 金太烈(3·1운동) | 양순희 梁順喜(3·1운동) | 조제언 趙濟彦(미주방면)  |
| 김화순 金華順(3·1운동) | 양춘길 梁春吉(만주방면)  | 조태화 趙泰和(미주방면)  |
| 문인화 文寅華(미주방면)  | 오현식 吳鉉植(3·1운동) | 천진화 千鎭化(미주방면)  |
| 박근배 朴根培(미주방면)  | 유금렬 柳兢烈(국내항일)  | 한철순 韓哲順(3·1운동) |
| 박달해 朴達海(3·1운동) | 유순명 柳順明(미주방면)  | 홍순남 洪順南(3·1운동) |

## | 독립정신 | 이모저모 |

### 호주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제막



‘평화의 소녀상 제막식’ 이 8월 6일에 시드니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 주최로 한인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제막식은 이미 한인회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였지만 그 동안 호주 내 일본 우익단체들이 관련 인사들과 기관에 항의하는 등 방해 행위를 지속하면서 우여곡절을 겪었다. 상당한 협박과 방해 공작을 받아왔던 애쉬필드 유나이티드 교회 빌 크루 목사는 평화의 소녀

상 제막에 대한 입장을 강하게 내세우며 추진하였고, 그 결과 제막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한편, 광복회 호주지회(회장 황명하) 역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일왕이 직접 사과하라”라며 촉구하면서 “지난 해 연말 일본 아베 정권과 굴욕적인 위안부 문제 합의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대해 큰 실망을 느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 2016년 서대문 독립 민주 축제



서울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는 8월 14일부터 15일까지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2016 서대문독립민주축제’를 개최했다.

서대문 독립민주축제는 광복의 기쁨을 나누고 독립과 민주, 자유와 평화라는 인류 보편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 2010년 처음으로 시작됐다. 행사가 열리는 서대문형무소역사관(옛 서대문형무소)은 일제 강점기 애국지사가, 군사독재시절에는 민주지사들이 옥고를 치른 곳이다.

올해 행사는 8월 4일 오후 7시30분 독립민주인사의 의롭고 험난한 삶의 발자취를 기억한다는 의미로 발 도장을 찍어 남기는 ‘풋프린팅’ 행사를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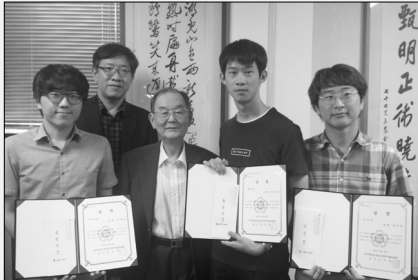
독립운동가로 오광선 장군의 차녀로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일본군 정보수집 등의 활동을 펼친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지사(90),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에서 항일활동을 펼치고 해방 후 우리 공군통신체계 수립에 기여한 이윤철 지사(90)가 참여했다.

## 제16차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회



본회 제16차 임정 이사회가 9월 22일(목)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이일선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았고, 30명 이상의 임원이 참여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신임 이사 선임의 건, 제5대 회장 선출의 건, 제11차년(임정기념관 9차년) 결산서 승인의 건, 제13차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의 건이 의결안건으로 올라가 승인되었으며, 기타 경과 보고가 이루어졌다. 또한, 임정기념관 건립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과 건국절 관련의 건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공모전 시상식



8월 24일 본회 사무실에서 제12기 독립정신 답사단 기행문 대회 시상식이 있었다.

총 10편의 기행문 중에 최우수작 2편, 우수작 1편이 선정되었다.

- \* 공동 1등(상금 각 30만원)  
손하늘(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배상윤(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 \* 3등(상금 10만원)  
홍석천(원광대학교 사학과)

### ❖ 대한민국 임시정부기념사업회 총회 안내

- 일 시 : 11월 25일(금) 오후 4시~6시
- 장 소 : 서울시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2016년 7월, 8월 회비납부자 명단 ◆

| 회원명 | 7월      | 8월      | 회원명 | 7월      | 8월      | 회원명 | 7월      | 8월      |
|-----|---------|---------|-----|---------|---------|-----|---------|---------|
| 강만길 | 10,000  |         | 박인석 | 10,000  | 10,000  | 이일선 | 20,000  | 20,000  |
| 강재욱 | 20,000  | 20,000  | 박재민 | 10,000  | 10,000  | 이재선 | 5,000   | 5,000   |
| 강찬모 | 20,000  | 20,000  | 박정근 | 30,000  | 30,000  | 이중찬 | 100,000 | 100,000 |
| 곽태원 | 50,000  | 50,000  | 박제선 | 30,000  | 30,000  | 이창윤 | 10,000  | 10,000  |
| 권경업 | 50,000  | 50,000  | 박창재 | 30,000  | 30,000  | 이창중 | 20,000  | 20,000  |
| 권영관 | 10,000  | 10,000  | 박형순 | 10,000  | 10,000  | 이 철 | 10,000  | 10,000  |
| 길사원 | 10,000  | 10,000  | 배다지 | 10,000  | 10,000  | 이학노 |         | 20,000  |
| 김광림 | 30,000  | 30,000  | 배석준 | 5,000   | 5,000   | 이학호 | 10,000  | 10,000  |
| 김광재 | 5,000   | 5,000   | 배해원 |         | 30,000  | 이항중 | 30,000  | 30,000  |
| 김동현 | 10,000  | 10,000  | 백낙청 | 10,000  | 10,000  | 이해준 | 10,000  | 10,000  |
| 김률근 | 10,000  | 10,000  | 변병식 | 100,000 | 100,000 | 이현진 | 10,000  | 10,000  |
| 김봉현 | 30,000  | 30,000  | 방인섭 | 30,000  | 30,000  | 이호현 | 20,000  | 20,000  |
| 김빛나 | 10,000  | 10,000  | 서동희 |         | 5,000   | 이화순 | 30,000  | 30,000  |
| 김삼웅 | 20,000  | 20,000  | 서봉수 | 10,000  | 10,000  | 이후삼 | 10,000  | 10,000  |
| 김선군 | 10,000  | 10,000  | 서홍관 | 30,000  | 30,000  | 임재경 | 10,000  | 10,000  |
| 김성곤 | 10,000  | 10,000  | 석혜진 | 10,000  | 10,000  | 임진택 | 5,000   | 5,000   |
| 김성배 | 10,000  | 10,000  | 신경숙 | 10,000  | 10,000  | 장두영 | 10,000  | 10,000  |
| 김숙정 | 50,000  | 50,000  | 신명식 | 10,000  | 10,000  | 장두원 | 20,000  | 20,000  |
| 김승돈 |         | 100,000 | 신성광 |         | 100,000 | 장상록 | 10,000  | 10,000  |
| 김영방 | 10,000  | 10,000  | 신홍범 | 10,000  | 10,000  | 장채령 | 10,000  | 10,000  |
| 김영일 | 10,000  | 10,000  | 심재권 | 30,000  | 30,000  | 전영복 | 10,000  | 10,000  |
| 김용수 | 5,000   | 5,000   | 안재웅 | 10,000  | 10,000  | 정관훈 | 100,000 | 100,000 |
| 김 위 | 20,000  | 20,000  | 안효진 | 10,000  | 10,000  | 정만기 | 30,000  | 30,000  |
| 김윤수 | 30,000  | 30,000  | 양인선 | 10,000  | 10,000  | 정범구 | 10,000  | 10,000  |
| 김윤영 | 10,000  | 10,000  | 엄기남 | 10,000  | 10,000  | 정지완 |         | 5,000   |
| 김은수 |         | 10,000  | 염승훈 | 10,000  | 10,000  | 정철승 | 30,000  | 30,000  |
| 김자동 | 100,000 | 100,000 | 오상균 | 10,000  | 10,000  | 조기식 | 10,000  | 10,000  |
| 김재홍 | 10,000  | 10,000  | 오정섭 | 10,000  | 10,000  | 조명숙 | 10,000  | 10,000  |
| 김정록 | 70,000  | 70,000  | 오정수 | 20,000  | 20,000  | 조세현 | 10,000  | 10,000  |
| 김정인 | 20,000  | 20,000  | 우상호 | 10,000  | 10,000  | 조용욱 | 10,000  | 10,000  |
| 김종규 | 10,000  | 10,000  | 원영애 | 30,000  |         | 조인형 | 10,000  | 10,000  |
| 김종성 | 10,000  | 10,000  | 유덕곤 | 10,000  | 10,000  | 조정훈 | 30,000  | 30,000  |
| 김중숙 | 10,000  | 10,000  | 유한별 |         | 200,000 | 조황영 |         | 50,000  |
| 김진모 | 20,000  | 20,000  | 윤경자 | 40,000  | 40,000  | 조희환 | 20,000  | 20,000  |
| 김진영 | 10,000  | 10,000  | 윤용환 | 10,000  | 5,000   | 주세영 | 30,000  | 30,000  |
| 김진현 | 50,000  | 50,000  | 윤종순 | 5,000   | 5,000   | 차영조 | 10,000  | 10,000  |
| 김판수 | 5,000   | 5,000   | 윤철호 | 100,000 | 100,000 | 천정배 | 10,000  | 10,000  |
| 김학근 | 20,000  | 20,000  | 윤한옥 | 10,000  | 10,000  | 최권행 | 30,000  | 30,000  |
| 김호진 | 10,000  | 10,000  | 이계환 | 10,000  | 10,000  | 최문성 | 10,000  | 10,000  |
| 김홍수 | 10,000  | 10,000  | 이규중 | 30,000  | 30,000  | 최문순 | 10,000  | 10,000  |
| 김희선 | 10,000  | 10,000  | 이기자 | 10,000  | 10,000  | 최희주 | 10,000  |         |
| 남만우 | 50,000  | 50,000  | 이동진 | 20,000  | 20,000  | 한의식 | 10,000  | 10,000  |
| 노수문 | 20,000  | 20,000  | 이두엽 | 50,000  |         | 함세웅 | 30,000  | 30,000  |
| 노시선 | 30,000  | 30,000  | 이두희 | 30,000  | 30,000  | 홍용희 | 10,000  |         |
| 노웅래 | 20,000  | 20,000  | 이범중 | 100,000 | 100,000 | 황명하 | 10,000  | 10,000  |
| 류동연 | 20,000  | 20,000  | 이상준 | 100,000 | 100,000 | 황용만 | 5,000   | 5,000   |
| 류한수 | 15,000  | 15,000  | 이상준 | 100,000 | 100,000 | 황인자 | 30,000  | 30,000  |
| 민향선 | 30,000  | 30,000  | 이상훈 | 10,000  | 10,000  |     |         |         |
| 박복삼 | 10,000  | 10,000  | 이양순 | 20,000  | 20,000  |     |         |         |
| 박덕진 | 10,000  | 10,000  | 이영국 | 10,000  | 10,000  |     |         |         |
| 박동기 | 10,000  | 10,000  | 이영숙 | 10,000  | 10,000  |     |         |         |
| 박두곤 | 10,000  | 10,000  | 이우재 | 10,000  | 10,000  |     |         |         |
| 박용규 | 10,000  | 10,000  | 이윤옥 | 20,000  | 20,000  |     |         |         |
| 박유진 | 10,000  | 10,000  | 이응국 | 5,000   | 5,000   |     |         |         |
| 박은봉 | 30,000  | 30,000  | 이인석 | 10,000  | 10,000  |     |         |         |

### 2016년 7월, 8월 특별회비

| 회원명       | 7월        | 8월        |
|-----------|-----------|-----------|
| (주)오토 오티오 | 5,000,000 | 5,000,000 |
| (주)아팩철강   | 3,000,000 | 8,000,000 |
| 배양숙       |           | 1,000,000 |



## ◆ 입 회 원 서 ◆

|             |  |     |       |
|-------------|--|-----|-------|
| 이 름<br>(한자) |  | 연락처 | 핸드폰   |
|             |  |     | 자 택   |
| 생년월일        |  | 성 별 | 남 / 여 |
| 주 소         |  |     |       |
| 직 업         |  | 소 속 |       |
| 비 고         |  |     |       |

본인은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설립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회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다할 것을 약속하며, 이에 입회원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_\_\_\_\_ (서명)

## ◆ CMS자동납입 신청서 ◆

|       |                                                                                                                                                                                                              |          |           |
|-------|--------------------------------------------------------------------------------------------------------------------------------------------------------------------------------------------------------------|----------|-----------|
| 은 행 명 | 은행                                                                                                                                                                                                           | 계좌번호     |           |
| 예금주명  |                                                                                                                                                                                                              | 예금주 주민번호 |           |
| 이체희망일 |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 출금시작월    | (      )월 |
| 납부금액  | 1만원 <input type="checkbox"/> 2만원 <input type="checkbox"/> 3만원 <input type="checkbox"/> 4만원 <input type="checkbox"/> 5만원 <input type="checkbox"/> 10만원 <input type="checkbox"/> 20만원 <input type="checkbox"/> |          |           |
|       | 자유지정금액 <input type="checkbox"/> (      원)                                                                                                                                                                    |          |           |

- \* 납부하신 회비는 지정 기부금 영수증을 1월에 발행하며 연말정산에 경상비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 \* 본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FAX(02-732-2870)으로 송부 바랍니다.

## 서대문형무소와 독립운동가 ①9

### 유범규와 서대문형무소

유범규(劉範圭, 1881. 3. 7. ~ 1949. 4. 7.)는 간도와 만주 등지에서 조국의 광복을 위해 헌신함으로써 1991년 국가로부터 애국장을 추서 받은 인물이다. 함경북도 온성 출신인 그는 1919년 제2회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선출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고 하얼빈, 북경 등지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일경에 체포되어 옥고를 두 번 치렀다. 하지만 그는 뜻을 굽히지 않고 중국보다 활동하기 어려운 서울로 잠입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다 피체됨으로써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게 된다. 당시 그의 행적은 신문기사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偽造通帳(위조통장)으로 金錢借用(금전차용) 더금통당위조하야 빚쓰고잡히여’ 1927년 8월 31일 동아일보에 실린 독립운동가 유범규의 국내 행적에 대한 최초의 헤드라인 기사이다. 그 내용은 광화문에 사는 유범규가 아내 황숙경의 명의로 우체국에 돈 2원을 저금하고 그 저금통장에 오백팔십원을 기입한 후 우편국장 도장과 수부인(受付印)을 위조하여 삼백원의 돈을 대용한 혐의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잡범이 돈을 마련하기 위해 조작한 사기행각에 불과하지만 사실 화폐를 위조하여 군자금으로 사용하려다 피체된 것이다. 이후 약 1년 남짓 지난 시점인 1928년 6월16일 동아일보에 ‘본정서에 발각된 중대사건전말’이라는 기사로 그의 행적이 크게 보도된다. 유범규는 백순화, 김성만, 김우천 등 6명과 경성중앙을 근거로 폭탄과 지폐를 제조 위조지폐는 수송, 무기(武器)는 수입하고 관공서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유범규는 일제의 감시망을 피해 지속적인 활동을 전개하고자 유홍구(劉洪九), 이성권(李成權)이라는 가명도 사용하였다. 보통 한 지면에 여러 개의 기사와 함께 광고가 실리지만 이 사건은 한 지면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 기사는 윤봉길의사가 상해 의거를 일으키지 전까지 독립운동이 소강상태를 보이는 1920년대 중후반부터 1932년 이전까지 당시 언론에 가장 크게 보도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이 당시 얼마나 큰 사건이었던지를 짐작할 수 있다. 유범규와 함께 독립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의 공판과정은 신문에 계속 보도되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들의 목적이 독립운동이었기에 ‘독립’이라는 글자는 ‘OO’으로 표시하여 신문을 구독하는 사람들은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어렵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후 이들의 공판 기사는 1920년 4월20일 동아일보에 경성지방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유범규가 복역하게 되었다는 말로 끝을 맺을 때 까지 총 10건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이 사건으로 유범규와 김중섭은 징역5년, 백순화는 4년형을 언도 받고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게 되었다.

유범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일원으로 활동하였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인물들은 도산안창호, 백범김구, 우강양기탁, 몽양여운형 등이 있다. 그가 활동한 시기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제병합하여 독립운동의 열기가 한창이었던 시기가 아니다. 3·1독립만세운동의 여파로 일제의 문화정책으로 식민지배의 형태를 바꿨지만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삶을 더욱 옥죄었기에 국내의 독립운동은 삶의 생존과 연결된 노동운동의 형태로 전개 되면서 국외와는 약간의 거리감이 있었다. 이러한 때에 유범규는 조국독립의 염원을 실천하고자 국외로부터 잠입하여 폭탄제조를 통한 관공서 파괴와 군자금 마련 등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갔다. 그의 독립운동은 일제에 발각되어 큰 성과를 거두진 못하였지만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했던 국내로 들어와 독립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내외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존재를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주게 하였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으로 모두에게 다시 한 번 독립의 열기를 지필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우리에게 희망을 준 그의 행적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 100年 편지



## 편지를 보내주세요

‘100년 편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1919.4.13)을 기념하여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년(2019)을 맞아 쓰는 편지입니다.

100년이라는 시간과 인간형을 넘나드는,  
역사와 상상이 조우하고 회통하는,  
100년 편지는 편지이자 편지로 쓰는 칼럼입니다.  
내가 안중근 의사에게 편지를 쓰거나,  
내가 김구 선생이 되어 편지를 쓸 수 있습니다.

2010년 4월 13일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통씩 메일로 발송되는  
100년 편지는 현재 약 3,500명 정도 받아보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민이 볼 수 있도록 계속 수신인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전국민이 함께하기 위해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에서  
발송되는 100년 편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역사속 인물에게 편지(원고지 5매~7매 분량)를 보내 주시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100년 편지를 메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로 연락주세요.

[www.korea100.org](http://www.korea100.org)

보내주실 곳 : 100-101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 1가 76-3 오양수산빌딩 305호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E-mail : kpg1919@korea.com  
minkook100@naver.com

\*채택되신 분께는 감사한 마음으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해드립니다.